

전발연 2005-R-15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05



연구진

연구책임 조경욱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안완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주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자문 박재규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연숙 • 안골노인복지회 관장
최원규 • 전북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합리적인 목적과 적절한 개입 전략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기획·실행·평가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정확한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 및 의료실태, 경제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 전라북도의 사회지표 및 관련통계를 통하여 노인인구 추이 및 노인특성, 노인복지 시설 및 기관 등 복지자원에 관한 사항 등과 전라북도 노인복지 수준과 문제점을 분석 함
-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해 1,000명을 할당표집 함
- 다양한 계층의 노인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노인은 전체표집 가운데 30%를 할당하여 유의 표집 함

3. 연구결과 요약

1)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이 및 전망

- 전라북도의 고령인구증가율은 이미 1980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22.3%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전라북도 고령화지수는 1990년 28.8%에서 2004년 68.1%로, 노년부양비는 같은 해 11.1%에서 19.8%에 달하는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부양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고령인구 성별분포는 2004년 현재, 남성노인 39.1%, 여성노인 60.9%로 여성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커짐
- 65-74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후기노인에 속하는 75-84세 노인(middle-old)과 85세 이상의 노인(old-old)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음

2) 전라북도 노인복지 사업 및 시설현황

-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예산 수준은 정부의 전체예산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전체 예산 가운데 5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소득지원은 경로연금지급과 교통수당으로 지방의 부담이 크며 중앙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전체예산의 2.06%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후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시설유형에서 절대적인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많은 편임. 그러나 이를 시설 당 노인인구수로 환산하면 전문병원과 단기보호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3년 안에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거의 절반 이상 증가 및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우선적인 이용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유료시설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보장되어야 함

3)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가족관계 및 지원: 별거자녀와의 접촉정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자녀와의 상호 주고 받는 도움으로는 노인은 경제적지원이, 자녀는 정서적 교류가 많았음. 개인특성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건강이 나쁜 노인 집단에서 가족과의 교류 및 지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일차적 타겟집단으로 분류 됨
- 소득 및 생활수준: 노인의 주요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지원(61.1%)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33.8%에 불과하였음.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55.4만원, 월평균 용돈액은 14.7만원, 희망하는 월평균 용돈액은 20.2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생활비 50만원 미만은 56.6%로 노인의 절반정도는 최저생활을 하고 있음.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였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있는 노인은 22.0%이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여성노인의 빈곤이 예상됨
- 경제활동: 현재 소득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노인은 30.4%로 종사직종 으로는 농업(70.0%)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희망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65.5%)가 가장 많아 노인들이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음
미취업 노인들의 일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57.0%)이외에 일자리가 없어서(14.5%),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13.2%)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상당수 있어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한 고용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등이 가장 보편적이며 취업 희망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전국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남
- 건강실태 및 욕구: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93.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만성질환유무는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지역,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집단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전국추세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내기(46.4%), 친구나 이웃 만남(21.4%) 등 단순소일형태가 많았으며 취미 및 학습(3.8%)이나 사회단체 활동(8.3%)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특히 여성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며 소극적이어서 이들 대상의 여가활동 지원 대책이 필요함. 자원봉사 경험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으나 현재 참여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남
-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노인복지 서비스의 인지도는 여가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았음. 이용경험에 있어서는 노인요양서비스 및 시설이 가장 낮았음. 경로교통수당과 경로연금에 대한 사업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인식 됨.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수혜자가 극히 적음.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음. 향후 이용희망율이 있어서는 일자리 사업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희망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노인들의 변화된 생활양식과 부양관이 엇보임
-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경제적 부양 및 동거부양 등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의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노후생활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부부끼리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가 높기는 하나 노인요양시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국조사 결과보다 높았음

II. 정책건의

1. 정책추진 방향

1) 후기고령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

- 후기고령노인의 증가는 치매나 외상 등의 중증 요보호 노인의 증가와 함께 동

- 시에 진행되므로 이들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시설도 확대해야 함
-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이외의 다른 일반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유료시설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2) 여성노인문제를 고려한 성인지적 노인복지정책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빈곤하며, 건강에 있어서는 더 취약하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등 성간의 격차 큼
- 정책기구의 정비와 예산확충, 성별 통계의 구축, 정책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 분석 등을 추진해야 함

3) 다양한 계층과 농촌중심의 노인복지정책

- 노인의 계층이 다양해지고 노년기도 길어지므로 그동안의 요보호 중심의 노인대상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의 도시편중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고 가족적 지원체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중심의 노인정책이 필요함

2. 향후추진과제

1)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 및 노인실태조사 실시

- 노인인구의 규모와 비중, 복지서비스 기반의 차이존재, 노인복지 예산의 지방정부이양 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역통계 산출 필요성 증대 및 그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2)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수립

- 노인을 둘러싼 정책적·인구학적 변화 및 노인육구 다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자원을 고려한 지역기반 중심의 계획수립, 정책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수립 필요

3)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노인지원프로그램 운영

- 노인의 여가활용을 돕고 요양수요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 고립되고 폐쇄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 부녀회,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지원함

4) 가족지원이 취약한 노인대상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가족지원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망이 취약한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 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감. 이웃과의 결연관계를 맺어 취약한 노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린단위로 소방서나 보건소로 연결하는 비상시스템 등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필요

5) 노인건강지원의 확대

- 노인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무료건강진단을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 실시하며 질병노인에 대한 치료와 사후서비스의 연계를 도모함. 아울러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체도를 포함한 예방대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6)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

-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나 시설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가족 부양체계의 미비나 결손으로 인해 점차 증대되는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이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장함. 홍보를 위해 지역의 매스컴과 사회복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요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7
제1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9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10
제3절 자료 분석방법	13
제 3 장 전라북도 고령인구 일반현황	15
제1절 전라북도 고령인구 추이	17
1. 고령인구 증가	17
2. 고령화 비율과 노인부양비	19
3.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지역별 현황	20
제2절 전라북도 고령인구의 특성	21
1. 인구학적 특성	21
2. 경제 상황	24
3. 건강 상태	27
제 4 장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현황	31
제1절 노인복지 예산 및 사업	33
1. 전라북도 노인복지예산	33
2.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	35
제2절 노인복지시설 현황	37
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38
2.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43

제 5 장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47
제1절 노인의 일반특성	49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49
2.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	51
제2절 가족관계 및 지원	53
1. 가족관계	53
2. 자녀와의 지원관계	59
제3절 소득과 경제활동	64
1. 노인의 경제상황	65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76
제4절 건강 및 의료실태	88
1. 건강상태	88
2. 건강관리	92
제5절 여가 및 사회활동	96
1. 여가활동	96
2. 자원봉사활동	100
제6절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102
1. 노인복지프로그램 이용현황	102
2. 경로당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10
3. 경로식당 이용실태	115
제7절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116
1. 자녀관계 및 부양에 대한 태도	116
2. 희망 노후 거주형태	120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25
제1절 주요결과 요약	127
1.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이 및 전망	127
2. 전라북도 노인복지 사업 및 시설	127
3.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128
제2절 정책제언	138
1. 정책추진방향	138
2. 향후 추진과제	141

■ 참고문헌	145
■ 부 록	151
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153
2. 설문조사 통계표	161

표 목 차

<표 2-1>	전북지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조사항목	12
<표 3-1>	전라북도 고령인구 현황	17
<표 3-2>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변화 추이	18
<표 3-3>	전라북도 고령화 및 노인부양비 지수	19
<표 3-4>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시·군별 분포현황	21
<표 3-5>	성별·연령별 고령 인구 현황	22
<표 3-6>	연령단계별 노인인구의 변화추이(1980-2004)	23
<표 3-7>	전북지역 노인의 가구구성	24
<표 3-8>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25
<표 3-9>	생활비 마련방법	26
<표 3-10>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27
<표 3-11>	고령인구의 10대 만성질환 유병률	28
<표 3-12>	전라북도 고령인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29
<표 4-1>	중앙의 노인복지예산 변화 추이(2000-2003)	33
<표 4-2>	전라북도 노인복지예산 변화 추이(2000-2004)	34
<표 4-3>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 사업내용 및 예산(2005)	35
<표 4-4>	전국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38
<표 4-5>	노인복지시설당 인구수 현황	39
<표 4-6>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40
<표 4-7>	전라북도 각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41
<표 5-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50
<표 5-2>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	52
<표 5-3>	노인특성별 가구의 형태	54
<표 5-4>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동거이유	56
<표 5-5>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별거이유(1)	57
<표 5-5>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별거이유(2)	58
<표 5-6>	노인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	60
<표 5-7>	자녀와의 상호교류(부모→자녀)	62
<표 5-8>	자녀와의 상호교류(자녀→부모)	64

<표 5-9> 노인특성별 소득수준 분포(1)	66
<표 5-10> 노인특성별 소득수준 분포(2)	67
<표 5-11> 노인특성별 소득원	68
<표 5-12> 노인특성별 소득원과 월평균 소득액	70
<표 5-13> 노인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용돈, 희망용돈, 수입의 차이	75
<표 5-14> 노인특성별 취업상태	77
<표 5-15> (일을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의 내용	77
<표 5-16> 노인특성별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	78
<표 5-17> 노인특성별 취업이유	80
<표 5-18> 노인특성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81
<표 5-19> 노인특성별 취업불만족 이유	82
<표 5-20> 노인특성별 취업유지에 대한 희망여부	83
<표 5-21> 노인특성별 미취업 이유	84
<표 5-22> 노인의 미취업 이유의 전국조사결과와의 비교	85
<표 5-23> 노인특성별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여부	85
<표 5-24>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이유	86
<표 5-25>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보수	87
<표 5-26> 노인특성별 만성질환 유무	89
<표 5-27>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	90
<표 5-28> 노인특성별 만성질환 치료방법	91
<표 5-29> 노인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92
<표 5-30> 노인 특성별 운동실천 여부 및 주당 평균 운동일수	94
<표 5-31>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	95
<표 5-32>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한 생활문제와 스트레스 정도	96
<표 5-33>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	97
<표 5-34> 노인특성별 여가활동만족도	98
<표 5-35> 노인복지사업 인지도·이용경험률·향후이용률	103
<표 5-36> 노인특성별 경로당 이용여부 및 이용자의 주당 평균 출입일수 ..	110
<표 5-37> 노인정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114
<표 5-38>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117
<표 5-39> 노인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	118
<표 5-40> 노인특성별 노후생활 준비방법	119

<표 5-41> 노인특성별 건강악화 시 거주형태(유배우 경우)	120
<표 5-42> 노인특성별 건강악화 시 거주형태(무배우 경우)	121
<표 5-43> 노인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이 지원정책(1순위)	123
<표 5-44> 자신의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4
<부표-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기준표	153
<부표-2> 전라북도 주거복지시설	154
<부표-3> 전라북도 의료복지시설	155
<부표-4>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56
<부표-5>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158
<부표-6>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간보호시설	159
<부표-7>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단기보호시설	159
<부표-8> 전라북도 경로당 현황	160
<부표-9> 질병치료의 힘든점	161
<부표-10>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실시 여부	161
<부표-11> (운동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운동	162
<부표-12> 희망하는 여가활동 유무	162
<부표-13>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모임	163
<부표-14>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163
<부표-15> 소득보장·취업관련사업 인지도	164
<부표-16>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인지도	165
<부표-17> 여가서비스 인지도	166
<부표-18> 경로당 출입 않는 이유	166
<부표-19> 경로당 이용 만족도	167
<부표-20>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	167
<부표-21>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정기적 이용여부	167
<부표-22> 경로식당 서비스 대상집단	168
<부표-23> 경로식당 이용요금 유료화 여부	168
<부표-24>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169
<부표-25> 동거부양에 대한 태도	169
<부표-26> 노후준비 여부	170
<부표-27> 노인주거전용주택/실버타운입주의사	170

<부표-28> (입주의사 있는 경우)적당한 지불 비용	171
<부표-29> (입주의사 있는 경우)적당한 거주 규모	171

그림 목 차

<그림 3-1>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변화 추이	18
<그림 3-2>	연령단계별 노인인구의 변화추이	23
<그림 3-3>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25
<그림 5-1>	월 평균 생활비	71
<그림 5-2>	부담되는 소비 지출	72
<그림 5-3>	노인의 월평균 용돈	73
<그림 5-4>	노인의 월평균 희망용돈 수준	74
<그림 5-5>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75
<그림 5-6>	현재하는 일의 구직경로	79
<그림 5-7>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이유	86
<그림 5-8>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보수	87
<그림 5-9>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	97
<그림 5-10>	여가활동 불만 이유	99
<그림 5-11>	자원봉사활동 경험	100
<그림 5-12>	자원봉사활동 희망분야	101
<그림 5-13>	경로당 이용 주요활동	111
<그림 5-14>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	112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출생율과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6년 3.7% 수준에 그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7.1%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과 사망률을 감안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7%, 2020년경에는 이 비율이 15.1%로 7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3).

이러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4년 12월말 현재 237,655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노인인구인 8.7%보다 3.8% 높은 비율이며 전북지역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¹⁾.

고령화 현상은 인구학적 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노인에 대한 의식과 사회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의 빠른 증가와는 달리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및 가족구조가 붕괴하면서 기존의 가족 중심적 노후보장체계도 붕괴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부양부담을 책임져야 할 국가사회의 부양체계 및 지원망은 아직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역할상실, 외로움과 고독 등으로 인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박재규, 2004).

따라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1) 즉 전라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고령화 진행상황에 비해서 도농복합형 도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타 지역보다 노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 통계청(2001)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최고로서 82.3%이며 전라북도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노령화지수(65.1%)를 나타내고 있다.

있는 노인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노인복지와 정책의 실현주체 및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노인의 특성상 재가복지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탈피하고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노인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점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합리적인 목적과 적절한 개입전략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기획·실행·평가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충남, 장성군 등은 지역실태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경기도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 장성군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가 올 고령화를 대비한 지방정부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고령시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노인관련 연구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결과, 전북지역의 노인들의 실체를 광범위하게 보여줄 만한 조사연구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²⁾. 또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매 4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관계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실태에 관한 정확한 문제 접근이 어려우며 노인 인구특성 및 실태에 근거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2) 그동안 여러 형태로 전북지역의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전북사회복지현안과 발전전략을 위한 “노인욕구 조사”(서윤, 1992), 「전라북도민 사회복지 욕구조사」(김훈, 2001a)의 일부로 포함된 “노인복지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전주지역의 사회복지행정만족도 연구」(권중돈, 2002)에서 일부로 포함된 “노인대상 사회복지행정 만족도”, 전주시 관내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을 주로 조사대상으로 실시한 「전주시 노인복지프로그램만족도 조사연구」(김훈, 2001b), 「군산지역 노인복지 욕구와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권중돈, 2002), 완주군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 방향연구 -완주군을 중심으로-」(김훈·백종만), 「전북지역 여성노인의 여가실태 및 활성화 방안」(조경옥, 2004),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박재규, 2004) 등이 있으나 전라북도 노인 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 및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 및 의료실태, 경제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조사결과는 향후 전라북도 노인정책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서도 그 활용가치와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의 사회지표 및 관련통계를 통하여 노인인구 추이 및 노인인구의 건강, 경제생활, 복지욕구 등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전라북도 노인복지 시설 및 기관 등 복지자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사업 및 이용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노인복지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노인들의 건강, 경제생활, 가족관계 및 지원, 여가 및 사회활동,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노인 특성별 주요 정책과제 및 전북 노인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에 관련된 문제점, 욕구 등을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 인구의 현황과 향후 변동추이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고령화의 속도 및 진행을 예측하고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구체적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복지욕 구 등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들의 가족관계 및 지원,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실태, 여가활동, 복지서 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연구범 위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하여 전라북도 노인인 구의 증가추이 및 노인인구의 인구학적, 경제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인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노인복지 예산 및 구체적 노인복지사업,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를 토대로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가족관계 및 지원,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에 관련된 문제점 및 욕구, 건강상태, 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노 후생활 인식 및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북지역 노인들 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관한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노인복지 정책 개 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 제 1 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 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제 2 장 자료 및 연구의 방법

제 1 절 조사대상자와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관계 및 지원내용, 건강 및 경제생활, 여가와 사회활동,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노후 생활 인식 및 태도 등 노인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이며,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집을 하였다. 특히 노인들의 생활상의 문제점과 정책적 욕구는 노인의 경제적 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실태를 일반노인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전체 표집 가운데 30%를 할당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이외에 일반 노인의 표집방법은 우선 각 시에 기본할당으로 각 50명을, 군 단위는 기본적으로 40명을 할당하되 타 군지역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고창과 부안 지역은 기본적으로 50명을 할당하였다. 이러한 기본할당을 토대로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표본크기를 조정하였다. 조사는 2005년 8월 18일 -9월 4일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의 방법을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조사표 가운데 불량한 조사표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수는 997명이다. 이들 최종집계에 포함된 표본수는 도시지역(시부)에서 550명, 농촌지역(군부)에서 447명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1. 문헌연구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일반현황은 기존의 통계자료 및 선행조사연구에서 실시된 데이터에 대한 이차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활용자료는 통계청인구센서스, 전북여성통계연보, 전라북도 노인복지담당 내부자료,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의 조사결과이다.

전라북도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 및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제한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연구 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2. 실태조사

전라북도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노인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과 향후 사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노인연구 전문 자문위원과 전라북도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검토를 통하여 조정,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2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문항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노인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의 선정과정에서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 연령 및 경제생활 상태 등을 고려한 유의적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은 빈곤노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노인들

의 다양한 욕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상이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일반노인과 저소득층노인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하였다.

3. 자문회의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내용의 구성에서부터 조사설계, 표본설계, 그리고 정책개발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4. 조사내용 및 항목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7가지의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정함에 있어서 노인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몇몇 문항들은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기본적인 항목을 참고하였다. 이는 전라북도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전국 노인들의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전라북도 노인문제와 욕구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전북지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조사항목

항 목	조 사 내 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주택소유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
가족관계 및 지원	가족의 구성형태, 배우자 유무, 자녀수,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이유(비동거 이유), 자녀와의 연락정도, 자녀와의 상호교류 내용
경제상황	소득이 되는 일 종사여부, 현재 하는 일, 일의 형태, 취업경로, 일 하는 이유, 일의 만족도, 불만인 점, 향후 일할 의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향후 일할 의사유무, 희망하는 일과 그 이유, 희망보수정도, 일하지 않는 이유,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수입원, 월 생활비, 지출부담 항목, 개인용돈정도, 희망용돈정도, 생활수준
건강 및 의료이용 실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이용의료시설, 질병치료 시 힘든 점, 건강검진여부, 건강검진 경로 여부, 운동유무 및 정도, 가장 많이 하는 운동,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 삶의 사건들 경험 유무 및 스트레스 정도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상황, 여가활동 만족도, 불만인 이유, 희망하는 여가활동, 정기적인 모임여부,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자원봉사활동 희망여부 및 희망하는 일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유무,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여부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유무,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여부 노인여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유무, 만족도, 향후 이용 희망여부 경로당이용여부, 이용횟수, 주로 하는 일, 만족도, 만족이유 및 불만족이유, 경로당 희망프로그램, 유료 희망여부 및 적정비용, 경로당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무료급식 이용여부, 무료급식에 대한 인식, 유료식사에 이용희망여부 및 식사평가, 무료급식에 대한 인식도, 유료식사 이용찬성여부 및 적정비용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노후에 자녀와의 관계유지 위해 중요한 것, 기혼자녀의 부모동거여부, 자녀의 부모부양의무, 노후생활비마련방법, 노후준비유무, 노환으로 인한 외상 시 부양선호방법, 실버타운 입주여부, 실버타운의 적정비용 및 규모, 노인을 위한 정부의 우선정책, 생활만족도(10문항)

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조사원에 의해 회수된 조사표를 편집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조사표를 제외시키고 최종 997명의 응답 자료를 유효 자료로 결정하였고,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응답자의 모든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생활실태 및 그에 따른 문제점, 욕구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차이검정(ANOVA)을 실시하였다.

제 3 장

전라북도 고령인구 일반현황

- 제 1 절 전라북도 고령인구 추이
- 제 2 절 전라북도 고령인구의 특성

제 3 장 전라북도 고령인구 일반현황

제 1 절 전라북도 고령인구 추이

1. 고령인구 증가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말 현재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45,003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³⁾ 전국의 노인인구가 2004년 현재 8.7%인 점을 고려하면 4.6% 높은 비율이며 전북지역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전북의 총인구는 1980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4년 현재 -1.40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성비는 1980년 4.8%에서 2004년 현재 13.3%로 거의 2.8배나 증가하였다.

<표 3-1> 전라북도 고령인구 현황

구 분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총인구	인구수*1)	명	2,329,212	2,220,652	2,046,776	1,921,970	1,927,005	1,841,564
	증가율*2)	%	0	-4.66	-7.83	-6.10	+0.26	-4.43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	명	112,879	127,475	151,569	173,665	213,060	245,003
	증가율*2)	%	100	112.87	118.90	114.57	122.68	114.99
	고령인구 구성비	%	4.8	5.7	7.4	9.0	11.1	13.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재구성

*1) 인구는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1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바뀔 수 있음

*2) 총인구증가율은 당해년도에서 다음년도까지의 증가율이며,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앞 기준 년도에서 다음 기준 년도까지의 증가율임

3) 전라북도 노인 인구 추정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와, 전라북도 내부자료에는 기준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7,655명으로 전체인구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의 고령화추이와 비교하였다. 2000년 센서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평균 7.2%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인구의 15.7%가 노인인구로 고령사회 진입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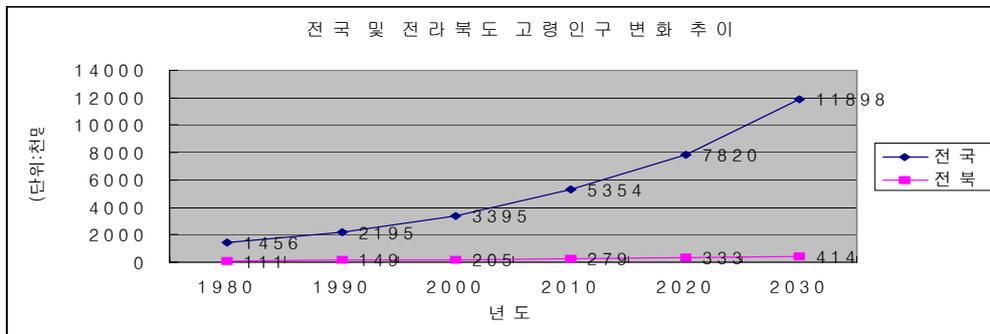
다음의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변화추이를 보면 이미 1980년부터 고령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에는 전라북도는 노인인구가 22.3%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3-2>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전국	고령인구수	1,456	2,195	3,395	5,354	7,820	11,898
	증가율	-	50.7	54.7	56.2	44.6	51.3
	구성비	3.8	5.1	7.2	10.9	15.7	24.1
전북	고령인구수	111	149	205	279	333	414
	증가율	-	34.2	37.6	36.1	19.3	24.3
	구성비	4.9	7.2	10.2	16.4	22.3	31.3

자료: 통계청(2005).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그림 3-1> 전국 및 전라북도 고령인구 변화 추이

4) UN의 노인인구 구성비율에 따르면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 4-7%미만인 국가를 성년인구국, 7%이상을 노년 인구국으로 분류하며, 7% 이상인 국가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인 국가를 고령사회, 20%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 고령화 비율과 노인부양비

고령화 추이는 노인인구층의 다른 연령층과의 상대적 규모가 변한 데서도 기인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전체 인구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고 특히 14세 이하의 연소인구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음은 연소인구, 생산인구 및 노인인구의 상대적 구성비를 변화 시키게 된다. 세계 인구의 연령구조는 차츰 젊은 경제활동 인구(15세 이상-64세 미만의 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유년과 노년인구의 비율(부양비)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연소인구의 지속적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즉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에 6.2%에서 2000년에는 10%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지금 수준보다 3배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6.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0명을 2030년에는 29.8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3> 전라북도 고령화 및 노인부양비 지수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총인구		2,329,212	2,220,652	2,046,776	1,921,970	1,927,005	1,841,564
0-14세	인구수 (구성비)	863,702 (37.1)	709,775 (32.0)	525,435 (25.7)	428,228 (22.3)	392,968 (20.4)	359,685 (19.5)
15-64세	인구수 (구성비)	1,352,631 (58.1)	1,383,402 (62.3)	1,369,772 (66.9)	1,320,007 (68.7)	1,320,977 (68.6)	1,236,876 (67.2)
65세 이상	인구수 (구성비)	112,879 (4.8)	127,475 (5.7)	151,569 (7.4)	173,665 (9.0)	213,060 (11.1)	245,003 (13.3)
고령화지수 ¹⁾		13.1	18.0	28.8	40.6	54.2	68.1
노년부양비 지수 ²⁾		8.3	9.2	11.1	13.2	16.1	19.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에서 재구성

1) 고령화(혹은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인구)*100

2) 노년부양비 지수=(65세 이상인구)/(15~64세인구)*100

이와 같은 노년인구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년부양비 및 의료비 등 노년인구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의 노인부양부담 또한 가중 시킨다.

위의 <표 3-3>을 통해 전라북도의 고령화 및 노인부양비 지수를 살펴보면 노인의 부양비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0-14세에 대한 노년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노령화 지수는 1990년 28.8%에서 2004년에는 68.1%에 달하는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고령화 지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고령화 지수인 32.9%보다 21.3%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1980년에 8.3%에서 2000년에는 16.1%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19.8%의 비율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1980년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8.3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6.1명을 2004년에는 19.8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전라북도의 노인부양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지역별 현황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24.4%이며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전주로 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별 노인인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인인구의 분포가 7%-24% 사이를 이루고 있어 박재규의 연구(2004)에서는 노인인구 분포에 따라 크게 3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즉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도시화의 진전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분포가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 통합 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14%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19-24%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머지 7개 군지역(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표 3-4>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시·군별 분포현황

구분	전 체 인 구(A)			65세 이상 노인인구(B)			노인인구 비율(B/A)
	합계	남자	여자	합 계	남자	여자	
전체	1,906,742	948,697	958,045	237,655	91,850	145,805	12.5%
전주시	622,472	307,510	314,962	46,650	17,801	28,849	7.5%
군산시	265,168	133,643	131,525	26,295	10,022	16,273	9.9%
익산시	322,378	160,934	161,444	32,922	12,590	20,332	10.2%
정읍시	132,285	65,218	67,067	22,192	8,439	13,753	16.8%
남원시	96,243	47,495	48,748	16,001	6,324	9,677	16.6%
김제시	105,195	52,545	52,650	19,751	7,606	12,145	18.8%
완주군	82,482	42,323	40,159	12,908	5,144	7,764	15.6%
진안군	30,757	15,470	15,287	6,627	2,706	3,921	21.5%
무주군	26,183	13,006	13,177	5,818	2,344	3,474	22.2%
장수군	26,788	13,250	13,538	5,694	2,286	3,408	21.3%
임실군	33,008	16,602	16,406	8,048	3,214	4,834	24.4%
순창군	31,814	15,531	16,283	7,511	3,076	4,435	23.6%
고창군	65,203	32,105	33,098	13,964	5,278	8,686	21.4%
부안군	66,766	33,065	33,701	13,282	5,024	8,258	19.9%

자료: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2004.12.31현재) 재구성

제 2 절 전라북도 고령인구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개인 특성 및 생활 실태를 전북 통계 자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각 지역의 통계를 통해 집계한 내부자료,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노인건강 및 여가실태 등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 성별·연령별 고령인구 현황

한국에서 특히 빠른 인구 고령화는 남녀노인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유배우율이 낮아 신체적 부양에 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2004년 현재 전라북도의 고령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노인이 39.1%, 여성노인이 60.9%로 여성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다음의 <표 3-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커지고 있다.

<표 3-5> 성별·연령별 고령 인구 현황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전기 고령인구	65~69세	43.5% (39,023명)	56.5% (50,672명)	100% (89,695명)
	70~74세	40.3% (28,277명)	59.7% (41,879명)	100% (70,156명)
후기 고령인구	75~79세	36.7% (16,725명)	63.3% (28,789명)	100% (45,514명)
	80~84세	32.8% (8,237명)	67.2% (16,844명)	100% (25,081명)
	85세 이상	25.0% (3,648명)	75.0% (10,940명)	100% (14,588명)
전체		39.1% (95,910명)	60.9% (149,124명)	100% (245,034명)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에서 재구성.(자료는 2005년 9월 현재기준)

*2002.5월에 작성한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2005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로 수정·보완한 자료 가운데 2004년도 통계를 활용하였음

한편, 다음의 <표 3-6>을 통해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연령단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인구를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의 연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5-74세 노인인구 비율은 1980년 69.5%에서 2004년 65.2%로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75-84세 노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안에 26.2%에서 28.8%로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 최고령(old-old) 노인의 비율은 4.3%에서 5.9%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안에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연령단계별 변화추이의 특징으로는 65-74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75-84세 노인(middle-old)과 85세 이상의 노인(old-old)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반면 경제적인 독립능력은 저하되므로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게 된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75-84세 노인(middle-old)과 85세 이상의 노인(old-old)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수립될 필요성을 연령단계별 증가율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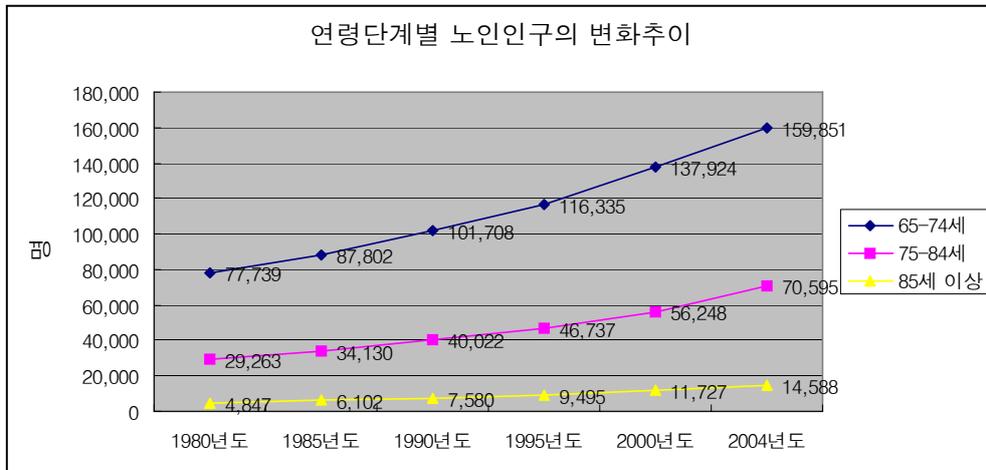
<표 3-6> 연령단계별 노인인구의 변화추이(1980-2004)

단위: 명, %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명)
1980년도	69.5(77,739)	26.2(29,263)	4.3(4,847)	100.0(111,849)
1985년도	68.6(87,802)	26.7(34,130)	4.8(6,102)	100.0(128,034)
1990년도	68.1(101,708)	26.8(40,022)	5.1(7,580)	100.0(149,310)
1995년도	67.4(116,335)	27.1(46,737)	5.5(9,495)	100.0(172,567)
2000년도	67.0(137,924)	27.3(56,248)	5.7(11,727)	100.0(205,899)
2004년도	65.2(159,851)	28.8(70,595)	5.9(14,588)	100.0(245,034)

자료: 전라북도통계연보(2001)의 재구성

2004년 인구는 주민등록기준인구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참고



<그림 3-2> 연령단계별 노인인구의 변화추이

2) 노인세대 구성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1인가구는 전국 평균 16.5%, 노인끼리만 사는 가구는 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1인 독거노인이 13.5%, 노인부부가구가 23.7%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전라북도 고령인구도 독거 및 노인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인 독거노인은 2000년 현재, 전체노인의 20.1%로 전국에 비하면 3.6%포인트 높은 실정이다. 이는 1995년에 비해 2.4% 증가한 결과이다. 노인부부가구의 비율도 34.8%로 전국의 평균 29.3%에 비해 5.5%포인트 많았으며 1995년에 비해 4.9% 증가하였다.

<표 3-7> 전북지역 노인의 가구구성

구분	1995년		2000년	
	전 국	전 북	전 국	전 북
1세대가구	622,616(23.7)	51,322(29.9)	980,128(29.3)	73,024(34.8)
2세대가구	596,487(22.7)	36,817(21.5)	782,559(23.4)	45,262(21.6)
3세대가구	999,513(38.1)	50,126(29.2)	989,092(29.5)	47,256(22.5)
4세대이상가구	31,497(1.2)	1,904(1.1)	29,464(0.9)	1,668(0.8)
1인가구	354,161(13.5)	30,330(17.7)	551,094(16.5)	41,799(20.1)
비혈연가구	19,169(0.7)	1,010(0.6)	14,001(0.4)	694(0.3)
계	2,623,416(100.0)	171,509(100.0)	3,346,338(100.0)	209,703(100.0)

자료: 통계청(200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경제 상황

1)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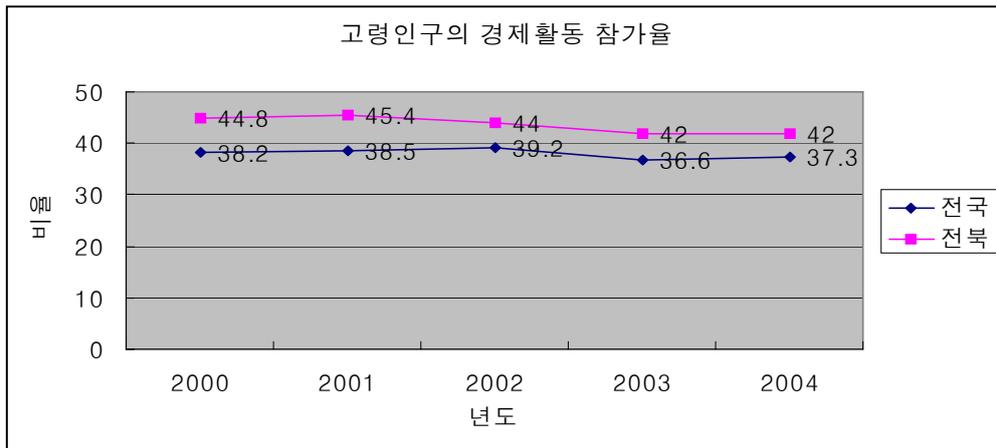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현재 전국 평균이 37.3%로, 2000년 38.2%와 비교해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경우도 근래에 커다란 편차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엔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북이 농도로서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농업 및 어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8>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 60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	60세 이상	38.2	38.5	39.2	36.6	37.3
	남자	49.7	50.5	51.7	48.6	49.7
	여자	30.2	30.0	30.1	27.8	28.3
전라북도		44.8	45.4	44.0	42.0	42.0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에서 재구성. (자료는 2005년 9월 현재기준)



<그림 3-3>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2) 생활비 조달방법 및 부양실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주 소득원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본인의 일이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더 이상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에 반해 사회적인 노인부양체계는 미비하며, 개인 역시 노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인식을 하지 못해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의 <표 3-9>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인구 가운데 생계를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비율은 전국이 55.9%, 전라북도 57.6%로 전국평균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정년과 무관하게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농림어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의존율은 전국 3.8%에 비해 전라북도는 4.5%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전국에 비해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비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이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자녀친척 및 정부나 사회단체로의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이 남성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9> 생활비 마련방법

	60세 이상인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친척	정부, 사회단체	기타
전국	100.0	55.9	40.1	3.8	0.2
남 성	100.0	72.1	25	2.6	0.2
여 성	100.0	44.2	51	4.7	0.1
전북	100.0	57.6	37.8	4.5	0.1
남 성	100.0	75.0	20.9	3.9	0.3
여 성	100.0	45.7	49.4	4.9	-

자료: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004년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가운데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는 총 1,337,714명이며 이 가운데 전라북도는 총 108,201명으로 수급률⁵⁾은 5.9%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률은 전남이 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5.9%로 그 뒤를 있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45,034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9,07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11.8%가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연령별 분포도를 참고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0> 과 같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 수급권자 가운데 26.3%를 차지하고

5) 수급률= 지역의 수급수/지역의 전체인구× 100

있으며 전라북도 수급권자는 전국대비 0.4%정도 많은 2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노인인구가 거의 1/3에 해당하고 있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3-10>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수급자수(명)	1,337,714	108,201	352,348	29,072
수급 비율(%)	(2.9)	(5.9)	(26.3) ⁶⁾	(26.7)

자료: 보건복지부(2004). <http://www.mohw.go.kr>

3. 건강 상태

1) 만성질환상태

『2002 사회통계보고서』에 의한 전북지역 60세 이상 노인의 유병율은 전북 전체 인구 평균 유병율인 15.8%보다 2배 정도 높은 37.5%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의 평균유병일수는 8.1일이며, 전국평균 평균와병일 0.9일보다 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박재규, 2004).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만성질환유병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95.0%)의 만성질환유병률이 남자노인(84.4%)에 비하여 10.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유병률은 무배우 노인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의 교육수준 및 경제상태, 배우자의 유무는 건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3-11>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10대 만성질

6) 시설자 수급율을 뺀 나머지 구성비율임

환 유병률에 대한 전국대비 전북의 통계를 비교 제시한 것이다. 전북 통계는 2004년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서 노인의 건강과 여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노인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표본을 전라북도 전체결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혈압, 당뇨, 백내장 등을 제외한 다른 만성질환은 전국에 비해 전라북도가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절염은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이와 유사한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요통, 좌골통의 유병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고령인구의 10대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	관절염	당뇨	요통 좌골통	소화성 궤양	신경통	골다공 증	백내장	뇌졸중 뇌혈관 질환	피부 질환
전 국	40.8	43.1	13.8	30.6	16.5	22.1	18.9	18.1	6.0	6.6
전 북	33.4	48.5	13.1	41.7	24.3	-	23.5	15.0	7.2	-

자료: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2004). “전북지역 여성노인의 여가실태 및 개선방안”

주: 만성질환유병률은 3개월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었다고 응답한 733명에 대한 조사결과임

한편,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지장정도는 별로 없다는 41.1%로 가장 많고 약간 있다는 34.9%, 많이 있다는 13.1%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활동제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에 의해 생기는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기능적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실제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안 및 바깥활동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동불편정도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5.1%이며, 집안활동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바깥활동은 혼자 할 수 없는 비율이 2.5%로 나타나 전체 7.6%가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의 신체기능을 알아보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ADL)과 사회생활에 대해 혼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등을 통해 노인의 활동제한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200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1.9%가 1개 이상의 ADL 장애가 있었으며, 1가지 이상의 IADL 장애가 있는 비율은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ADL 및 IADL 장애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자립능력 제한이 심해져 수행능력 제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다음의 <표 3-12>에서 보는바와 같이 60-64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노인집단 가운데 ADL 및 IADL 장애가 적어도 한가지 이상 있는 비율은 각각 18.6%, 14.1%이나 후기고령노인에서는 각각 43.2%, 41.1%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75세 후기고령노인에게서 IADL장애를 가진 비율보다는 ADL장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후기노인에게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제한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재가복지 서비스의 수혜 우선 기준은 후기 고령노인, 여성노인, 무배우 노인 우선 순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2> 전라북도 고령인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없음	ADL	IADL
60-64세	67.3	18.6	14.1
65-74세	33.4	35.6	31.0
75세 이상	15.7	43.2	41.1

자료: 보건복지부(2004). <http://www.mohw.go.kr>

제 4 장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현황

- 제 1 절 노인복지 예산 및 사업
- 제 2 절 노인복지시설 현황

제 4 장 전라북도 노인복지 사업 및 시설현황

제 1 절 노인복지 예산 및 사업

1. 전라북도 노인복지예산

정부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2000년을 중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4.86%를 차지하였지만 2000년 그 비율이 6.14%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의 변화를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예산 변화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의 총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7%로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 소급하여 살펴보면 노인복지 예산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82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 0.37%로 37배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예산 규모는 여전히 전체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한국 노인복지현실이 아직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박재규, 2004).

<표 4-1> 중앙의 노인복지예산 변화 추이(2000-2003)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총예산(A)	복지부예산		노인복지예산		
		총예산 (B)	B/A(%)	총예산(C)	C/B(%)	C/A(%)
2003	111,483,098	8,351,072	7.49	407,767	4.88	0.37
2002	105,876,671	7,749,477	7.32	389,763	5.03	0.37
2001	94,124,600	6,272,738	6.66	308,897	4.92	0.33
2000	86,474,007	5,310,021	6.14	280,867	5.29	0.32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개요(2003).

중앙의 사회복지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예산도 2000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예를 들면 1999년 232억의 노인복지예산이 2000년 351억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465억, 그리고 2004년 615억으로 증가하여 약 4년간의 짧은 시기 안에 두 배정도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여성국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4%를 정점으로 하여 2001년 감소하였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 1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전라북도 노인복지예산 변화 추이(2000-2004)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라북도 총예산(A)	복지여성국		노인복지예산		
		총예산 (B)	B/A(%)	총예산(C)	C/A(%)	C/B(%)
2004	1,710,996	371,303	21.7	61,552	3.6	16.6
2003	1,632,059	326,146	20.0	52,034	3.2	16.0
2002	1,439,012	306,460	21.3	46,560	3.2	15.2
2001	1,423,998	269,640	18.9	39,338	2.8	14.6
2000	997,635	181,565	18.2	35,156	3.5	19.4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04)

한편,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예산의 수준은 정부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0.4% 수준이며 복지부의 예산 또한 정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 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의 노인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가 노인복지정책에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노인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박재규, 2004).

한편,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비가 지방단위 사업비로 이양되고 있어 노인복지사업비에 대한 확보나 감축 등에 많은 변수가 우려되고 있다.

2.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

전라북도 노인복지 예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사업내용은 <표 4-3>과 같으며 다음의 내용은 2005년도 전라북도 노인복지 사업내용 및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표 4-3>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 사업내용 및 예산(2005)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 ⁷⁾ (백만원)	구성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경로효친사상고양	-	23	0.02
	노인평생교육 및 시책추진사업	15개소	237	0.23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지원	3개사업	149	0.15
	노인행정지원체제강화	4개사업	124	0.12
	소계	-	533	0.52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	결식노인지원	4,013	1,947	1.92
	노인소득지원	291,004명	55,346	54.53
	노인일자리 참여	4개사업	3,087	3.04
	소계	-	60,380	59.49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건강보장지원	4,685명	97	0.1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4개소	11,360	11.19
	재가복지시설지원	27개소	2,088	2.06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3개소	1,000	0.98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사업	4,950개소	7,448	7.34
	시설관련특별지원	5개사업	817	0.80
	소계	-	22,810	22.47
노인복지 시설 확충	요양시설 확충	32건	17,532	17.27
	양로시설 기능보강	5개소	240	0.24
	소계	-	17,772	17.51
총계			101,495	100.0

자료: 전라북도 노인·아동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내부자료 (2005). “노인복지사업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7) 개별 사업예산액은 국고보조 및 도비지원, 시군비 지원을 모두 합한 예산임

전라북도가 2005년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 부분에 쓰이는 비용이 60,380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사업에 22.47%, 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확충이 17.51%,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0.52%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골드플랜 21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개호서비스와 중양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비용은 전체예산의 2.06%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양시설 확충은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전체 예산 가운데 17.27%를 책정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까지도 서비스의 수혜를 받도록 다기능시설에 대한 투자재원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체예산 가운데 5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소득지원은 경로연금지급과 경로교통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29,074명과 저소득노인 23,661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노인소득수준 지원 총액인 55,346백만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25,846백만원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교통수당은 노인소득지원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28,592백만원에 해당하고 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에서 예산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 및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이 전체예산 가운데 0.98%,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7.34%만을 책정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하면 8.32%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일반노인을 위한 여가사업의 비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인복지회관은 전라북도에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신축과 운영지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 2 절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를 전후해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에만 국한되어 왔으나,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영리법인, 단체에게 인가했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기업 및 개인에게도 허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대구경북개발원 200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 시설을 세분류하여 총 18종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은 다음의 <표 4-4>과 같다.

2004년 12월 현재 전국의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수는 총 518개로 정원대비 현원 78.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당 입소 및 이용 가능한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생활시설(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은 노인인구(2005년도 노인인구 4,124,946명) 7,963명당 1개소에 해당한다. 이외에 재가복지시설은 총 시설수 662개로 6,231명당 1개소에 해당되며 정원(31,212) 대비 현원(30,875) 98.9%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총152개로 노인인구 27,137명당 1개소, 노인교실 819개로 노인인구 5,036명당 1개소, 경로당 51,287개소로 노인인구 80명당 1개소 등에 해당한다.

8)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및 내용은 <부표-1>을 참조.

<표 4-4> 전국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구분	합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전문 병원	복지 주택
개소수	518	78	131	108	12	42	1	41	41	34	22	8
정원 (현원)	35,421 (27,724)	4,972 (3,835)	9,384 (7,880)	8,539 (7,027)	363 (230)	2,310 (1,498)	100 (100)	2,853 (1,959)	985 (640)	1,564 (925)	3,119 (2,587)	1,232 (1,043)

자료: 보건복지부(2005).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이러한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나 짧은 기간 안에 시설 수는 급성장한 것으로 보인다⁹⁾.

그러나 지역 간의 편차도 큰 편이어서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1개 지역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입소시설의 경우는 86개 지자체 또한 시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가복지시설의 경우도 128개 지자체에 노인복지회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47개 지자체의 경우는 노인교실 운영이 없는 실정이다(박재규, 2003).

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현황¹⁰⁾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시설유형에서 절대적인 시설 수는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를 시설당 노인인구 수로 환산하면 전문병원과 단기보호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는 일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단기보호소는 전국에 82개가 존재하고 있어 노인인구 58천명당 1개씩 공급되고 있으나 전북에는 단지 2개만이 존재하여 노인인구 118천명당 1개소로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

9) 즉 각각의 시설에 대해 2003년 노인인구 기준으로 보면 생활시설(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은 총 423개로 노인인구 12,585명당 1개소, 재가복지시설은 10,089명당 1개소, 노인복지회관 총123개로 노인인구 30,000명당 1개소, 노인교실 642개로 노인인구 5,700명당 1개소, 경로당 47,000개소로 노인인구 80명당 1개소 등에 해당한다.

10)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부표-2>에서 <부표-8>까지 참고.

으로 무료치료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 노인전문병원은 단지 1곳만이 존재하고 있어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성 질환 및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실정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경우는 노인 6천명당 1개소로 전국의 19천명당 1개소인것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노인복지시설당 인구수 현황

단위: 개, 천명

구분	전국		전북	
	시설수	시설당노인수	시설수	시설당노인수
양로시설	141	29	13	18
요양시설	214	19	39	6
전문요양시설	251	16	13	18
전문병원	22	187	1 ^(주)	237
노인복지관	152	27	10	23
주간보호시설	278	14	22	10
단기보호시설	82	58	2	118

주)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립병원을 칭함

1)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은 전라북도가 2003년 26개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2년만인 2005년 현재 56개로 약 2배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양로시설은 무료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료시설의 경우는 8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유료시설의 경우는 29.7%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유료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건립 및 운영비 전액을 설립주체가 부담하고 공공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 한편, 시설의 각 시군별 배치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다음의 <표 4-6>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이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상대적

으로 많은 동부산악권(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에는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14개 시·군 가운데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임실의 경우는 무료요양시설 2개소와 실비요양시설이 1개소가 배치되어 있다.

<표 4-6>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소재지역	
주거 복지 시설 (13)	양로 시설	무료	9	489	403	전주(1), 군산(1), 익산(3), 김제(1), 완주(1), 무주(1), 순창(1)
		실비	2	18	18	전주(1), 부안(1)
		유료	1	9	9	완주(1)
		유료복지주택	1	150세대	187	김제(1)
		소계	13	3,006	2,350	
의료 복지 시설 (52)	요양 시설	무료	18	1,018	837	전주(3), 군산(3), 익산(2), 정읍(1), 남원(2), 김제(1), 완주(1), 장수(1), 임실(2), 순창(1), 고창(1)
		실비	15	518	379	전주(10), 군산(2), 익산(1), 정읍(1), 임실(1)
		유료	6	74	22	전주(3), 군산(3)
		소계	39	1,610	1,238	
	전문 요양 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	12	845	681	전주(2), 군산(1), 익산(3), 남원(2), 김제(1), 완주(1), 고창(1), 부안(1)
		유료노인전문요양 시설	1	35	1	군산(1)
		소계	13	880	682	
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10	-		전주(3), 군산(1), 익산(1), 정읍(1), 김제(2), 완주(1), 부안(1)	
	경로당	5,174	160,753		전주(477), 군산(351), 익산(480), 정읍(550), 남원(444), 김제(490), 완주(360), 진안(253), 무주(220), 장수(258), 임실(291), 순창(301), 고창(389), 부안(310)	
	노인교실	45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60	5,117	4,605	전주(15), 군산(5), 익산(7), 정읍(3), 남원(1), 김제(3), 완주(10), 진안(2), 무주(1), 장수(5), 임실(2), 순창(2), 고창(1), 부안(2)	
	주간보호시설	17	278	198	전주(5), 군산(2), 익산(2), 남원(1), 김제(1), 무주(1), 장수(1), 임실(1), 순창(3)	
	실비주간보호시설	5	87	46	전주(3), 익산(1), 진안(1)	
	단기보호시설	2	8	4	김제(1), 고창(1)	

자료 : 전라북도 노인·아동복지과 내부자료(2005).

2)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을 집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것으로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 시설화를 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분야는 주로 가정봉사원제와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간 에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 말벗, 식사시중, 시장보기 또는 혼자 사는 질병노인에게 자원봉사원을 동반하거나 일급을 주고 가정도우미를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4-7> 전라북도 각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분포현황

시군	노인인구 (%)	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재가복지		
		양로	주택	요양	전문요양	노인복지관	경로당	가정봉사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전주시	7.5	2	-	16	2	3	477	15	8	-
군산시	9.9	1	-	8	2	1	351	5	2	-
익산시	10.2	3	-	3	3	1	480	7	3	-
정읍시	16.8	-	-	2	-	1	550	3	-	-
남원시	16.6	-	-	2	2	-	444	1	1	-
김제시	18.8	1	1	1	1	2	490	3	1	1
완주군	15.6	2	-	1	1	1	360	10	-	-
진안군	21.5	-	-	-	-	-	253	2	1	-
무주군	22.2	1	-	-	-	-	220	1	1	-
장수군	21.3	-	-	1	-	-	258	5	1	-
임실군	24.4	-	-	3	-	-	291	2	1	-
순창군	23.6	1	-	1	-	-	301	2	3	-
고창군	21.4	-	-	1	1	-	389	1	-	1
부안군	19.9	1	-	-	1	1	310	2	-	-

자료 : 전라북도 노인·아동복지과 내부자료(2005).

2005년 10월 현재 전라북도에는 총 84개의 재가복지시설로부터 4,85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8.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은 71.2%, 실비주간보호시설은 52.8%, 단기보호시설은 5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 또한 전주시와 전주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완주군, 군산시와 익산시 등에 치우쳐 있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타 시군에서는 접근율과 이용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부족한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김제와 완주에만 분포하고 있어 시설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의 종류로는 노인회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에는 2005년 10월 현재, 노인복지관 10개소, 경로당 5,174개소, 노인교실 45개소¹¹⁾ 등이 있으며 노인휴양소는 없다(<표 4-6>참고).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¹²⁾은 노인인구 23천명당 1개소로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각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와 완주에 4개소 및 익산과 군산에 1개소, 정읍 1개소, 김제 2개소, 부안군 1개소 등만이 분포되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상담 및 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등), 교양강좌 실시 등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의 생활의 중심지이며, 노인생활관리와 욕구 해결,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기초단위이다. 전라북도에는 2005년 10월

11) 노인교실은 물리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대상의 사회참여 및 건강교육, 취미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산하 지역별 지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12)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대규모 시설과 1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바, <표 4-6>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은 대규모 시설에 해당하며 소규모 시설은 완주를 제외한 각 시·군단위에 1개소씩 분포되어 있다.

현재, 5,17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67.6%에 해당하는 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경로당은 양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 노인들이 단순히 장기나 바둑, 화투 등으로 낮시간을 보내는 사랑방 정도의 기능만을 하고 있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자녀와의 별거하여 혼자살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현상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악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전체적인 현상이 반영되어 최근 2-3년 안에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거의 절반 이상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우선적인 이용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노인들은 다양한 환경이나 취약조건에 따라 제때에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노인복지관련시설들이 각 시군에 고루 배치, 분포되기보다는 주로 시 단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심각한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 대비 각 시설 설치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각 군단위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적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요양 시설의 경우 시설과잉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시설 제한지역으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 2005). 반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경우는 지역별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은 타 군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으나 시설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시설증대가 요구되어 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

우, 해당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 및 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등에 따른 향후 이용의사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비전과 그에 준하는 우선적 시책에 의해 노인관련 시설 및 사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관련 인프라를 초기부터 잘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김제시의 경우는 <표 4-7>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관련 시설이 고루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연계된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유력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각 시설별 문제점으로는 양로시설의 이용률에 비하여 요양시설의 경우 실비나 유료시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료시설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비용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거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에 기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과 같이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시설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병원등도 꾸준히 확대 될 필요성이 있다.

여가시설로서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이용계층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갖춘 노인계층이 두터워지리라는 예상을 해 볼 때 다양한 수요자 층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은 지역별 특성, 시설규모, 지역사회 노인의 수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시설, 직원 규모에 따라 형태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별적이고, 선택적 사업이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대구경북개발원, 2003).

경로당의 경우, 현행 단순한 오락기능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어 당초의 설치 목적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로당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재가복지시설 중 단 2.4%에 지나지 않는 단기보호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수를 고려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을 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 제 1 절 노인의 일반특성
- 제 2 절 가족관계 및 지원
- 제 3 절 소득과 경제활동
- 제 4 절 건강 및 의료실태
- 제 5 절 여가 및 사회활동
- 제 6 절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 제 7 절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제 5 장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

제 1 절 노인의 일반특성

노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 노인의 일반특성은 노인의 생활실태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변수들이다. 본 절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53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53.8%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노인이 461명으로 46.2%에 해당하고 있어 여성노인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에서 여자노인이 더 많이 표집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부터 99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연령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 노인 비율이 28.8%, 70-74세 연령군 노인비율이 28.4%, 75세 이상 연령군 노인비율이 42.8%로 나타났다. 따라서 65-74세 이하를 전기노인으로 볼 때, 본 조사에서는 57.2%가 전기노인으로 표집되었으며 나머지 42.8%가 후기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청(2002)이 실시한 65세 이상 전국노인의 연령분포 결과 및 전라북도 2004년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구성비¹³⁾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에서는 후기 노인이 다소 과다 표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후기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부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정책대상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즉 2000년 현재, 전국의 69세 이하의 전기노인은 전체 노인의 40.8%이며 70-74세에 해당하는 중기노인은 27.2%,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또한 2004년 현재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별 분포는 74세이하 전기노인은 65.2%,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은 34.7%로 분포되어 있으며 해마다 후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분포에 있어서는 시부지역이 54.2%였으며 군부지역이 44.8%로 군부지역에 비하여 시부지역이 9.4% 더 많이 표집 되었다.

<표 5-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구 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	461	46.2	
	여	536	53.8	
	Total	997	100.0	
지역	도시지역(시부)	550	54.2	
	농촌지역(군부)	447	44.8	
	Total	997	100.0	
연령구분	65-69세	287	28.8	
	70-74세	283	28.4	
	75세 이상	427	42.8	
	Total	997	100.0	
교육수준	무학	글자모름	228	22.9
		글자해독	260	26.1
		초등학교	329	33.0
	중학교	74	7.4	
	고등학교	81	8.1	
	대학 이상	25	2.5	
	Total	997	100.0	
종교	없음	424	42.5	
	기독교	303	30.4	
	천주교	66	6.6	
	불교	192	19.3	
	원불교· 기타	12	1.2	
	Total	997	100.0	
결혼상태	배우자있음	540	54.2	
	사별	446	44.7	
	이혼	5	0.5	
	별거	5	0.5	
	미혼, 기타	1	0.1	
	Total	997	100.0	
기초생활보장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25	22.6	
	차상위 계층	66	6.6	
	수급권자 아님	706	70.8	
	Total	997	100.0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학이지만 글자해독이 가능한 응답자는 26.1%, 글자를 모르는 노인이 2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는 7.4%, 고등학교 이상은 10.6%로 나타났다. 다른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학력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라북도의 노인들의 학력수준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조사에서는 ‘글자 모름’이 19.2%인 반면,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노인이 25.0%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사의 각각의 결과인 22.9%와 18.0%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 노인들의 학력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은 과거 경제적 빈곤기를 거친 노인들의 생애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들의 낮은 수입과 문화적 생활방식 등에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되어진다.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42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2.5%에 해당하고 있다.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는 57.5%로 이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30.4%(3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불교 19.3%(192명), 천주교가 6.6%(66명), 원불교 및 기타 1.2%(1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배우자 있음이 54.2%, 사별인 경우가 44.7%로 나타났다. 이혼과 별거는 각각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유배우율은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유배우율인 54.8%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2.6%가 표집 되었으며 차상위 계층의 노인은 6.6%,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노인은 70.8%가 표집 되었다.

2.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

노인문제에 있어 남녀노인의 성별간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여자노인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여자노인은 타 연령집단의 여성이나 남성노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2>와 같다.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상태별, 노인가구형태별, 교육수준별, 기초생활보장 구분별 구성비의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유배우율을 보면 남자노인이 83.1%로 여자노인의 29.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녀노인의 평균 수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노인부부이거나 자녀동거인 경우가 87.2%이나 여자노인의 경우 노인부부이거나 자녀동거인 경우는 51.7%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자노인의 경우 9.3%만이 독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 42.9%로 남자노인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가 독신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신여자노인의 비율은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29.3%보다 무려 13.6%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연령	65-74세(전기노인)	57.2(570)	59.0(272)	55.6(298)
	75세이상(후기노인)	42.8(427)	41.0(189)	44.4(238)
결혼상태	유배우	54.2(540)	83.1(383)	29.3(157)
	무배우	45.8(457)	16.9(78)	70.7(379)
노인가구형태	노인독신	27.4(273)	9.3(43)	42.9(230)
	노인부부	43.9(438)	65.5(302)	25.4(136)
	자녀동거	24.1(241)	21.7(100)	26.3(141)
	기타*	4.5(45)	3.4(16)	5.4(29)
교육수준	글자모름	22.9(228)	7.4(34)	36.2(194)
	글자해독	26.1(260)	17.8(82)	33.2(178)
	초등학교	33.0(329)	41.4(191)	25.7(138)
	중·고등학교	15.5(155)	28.0(129)	4.8(26)
	전문대 이상	2.5(25)	5.4(25)	0.0(0)
기초생활보장 구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29.2(291)	26.3(121)	31.7(170)
	일반	70.8(706)	73.8(340)	68.3(366)

*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수준을 보면, 중·고등학교 이상인 남자는 33.4%인 반면, 여자노인은 단지 4.8%에 지나지 않아 남녀 간에 교육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글자를 모르는 노인의 비율에 있어서도 남자노인은 7.4%에 지나지 않지만 여자노인은 36.2%나 되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 남녀노인의 성별간의 격차는 본 조사결과만이 아니라 노인실태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본 조사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의 저하는 전국 조사결과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유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자 가운데 25.0%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18.0%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 전국 11.4%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단지 4.8%로 학력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가족관계 및 지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으로 인해 노인의 관심과 인간관계의 접촉이 직장이나 사회보다는 가족과 자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범위는 자연스럽게 가족관계로 축소되어지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가 노년기 생활의 만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1. 가족관계

1) 가구의 구성

다음 <표 5-3>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독신이 27.4%, 자녀동거는 24.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 노인특성별 가구의 형태

단위: %

가구형태	전체	성별		연령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노인부부	43.9	65.5	25.4	50.5	35.8	18.0	28.9	32.0	48.9
노인독신	27.4	9.3	42.9	25.4	30.3	26.9	25.1	45.0	20.1
자녀동거	24.1	21.7	26.3	20.5	29.1	31.5	34.9	14.4	28.2
기타	4.5	3.4	5.4	4.0	5.2	8.7	5.8	8.6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χ^2		197.210***		20.986***		20.781***		91.347***	

주) ***p<.001

노인의 가구 구성형태를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남자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형태에 있어 모두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여자노인의 비율이 42.9%로 남자노인의 9.3%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자녀동거 가구 비율은 후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부보다는 군부지역에서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계층구분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이 45.0%로 일반노인의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가구는 일반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자녀와의 동거 및 별거 이유

응답자의 대부분인 95.5%는 생존자녀가 있었으며 이들의 자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4.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들은 평균 2.37명, 딸은 평균 2.63명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중인 노인의 경우는 26.3%였으며 별거중인 경우는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거하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따로 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36.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에 대해서는 25.7%였으

며,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1/3정도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으며 1/3에 조금 못 미치지만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인 이유도 자녀와 동거를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외에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와 자녀의 가사 및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이유도 다른 이유보다 조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녀로부터 보호를 받는 동거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유 등 자녀와의 동거이유는 노인의 형편에 따라 규범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상황이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이유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4>에서 보는바와 같다. 성별로는 자녀와의 동거이유에 있어 여자노인의 경우 따로 살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43.1%로 남자노인의 27.0%에 비하여 16%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더 많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한다는 이유에 있어서도 남자노인은 18.0%이지만 여자노인의 경우는 단지 5.1%에 지나지 않는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여자노인이 경제적 의존상태의 삶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지역별로는 따로 살 경제적 능력의 부족을 동거의 이유로 지적한 노인의 비율이 시부가 41.1%로 군부의 26.6%보다 약 15%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를 동거의 이유로 언급한 노인의 비율은 군부가 34.2%로 시부의 21.5%보다 약 13%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거이유에 있어 뚜렷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이유에 있어 규범적 기대가 군부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본 조사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조사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이 일반적으로 가족규범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동거이유

단위: %

동거이유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노인
경제적 능력부족	36.3	27.0	43.1	27.7	44.9	41.1	26.6	47.5	34.0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제공	10.5	18.0	5.1	17.6	3.4	12.7	6.3	7.5	11.2
생활비절약	.8	2.0	.0	1.7	.0	.6	1.3	.0	1.0
가사/양육의 도움제공	7.6	5.0	9.5	6.7	8.5	7.6	7.6	10.0	7.1
따로살집이없어서	3.0	4.0	2.2	3.4	2.5	4.4	.0	2.5	3.0
건강이 안좋아서	3.8	3.0	4.4	4.2	3.4	1.9	7.6	7.5	3.0
배우자의 사망	4.2	5.0	3.6	1.7	6.8	3.8	5.1	2.5	4.6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므로	25.7	25.0	26.3	26.9	24.6	21.5	34.2	7.5	29.4
기타	8.0	11.0	5.8	10.1	5.9	6.3	11.4	15.0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7)	(119)	(118)	(40)	(197)	(100)	(137)	(158)	(79)

연령별로 살펴보면, 따로 살 경제적 능력의 부족을 동거의 이유로 지적한 노인의 비율이 후기노인은 44.9%로 전기노인의 27.7%에 비하여 17.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서 동거하고 있다는 비율은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연령 증가는 자녀의 경제적 부양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후기노인일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적 기대는 연령구분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집단에서 주로 경제적요인으로 인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따로 살 능력이 없어서 라는 이유로 인해 자녀와의 동거하는 비율은 일반노인이 34.0%, 저소득층노인이 47.5%였으며 자녀에게 가사와 양육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일반노인이 11.2%이지만 저소득층 노인은 7.5%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고 이는 자녀와의 동거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표 5-5>의 (1)과 (2)는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노인들의 별거이유로는 결혼해서 분가했기 때문에 41.5%,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므로 17.0%, 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별거이유(1)

단위: %

별거이유	전체	성별		연령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결혼해서 분가했음	41.5	44.8	38.4	41.5	41.6
자녀가 타지역에 거주	17.0	20.3	13.8	19.4	13.1
함께 살기에 집이 좁음	.9	.6	1.1	1.2	.4
건강하므로 의지할 생각 없음	6.2	7.2	5.4	8.1	3.4
따로 사는 것이 편함	13.1	8.7	17.2	14.5	10.9
자녀가 부양능력 없음	9.3	7.8	10.7	5.7	15.0
정든 지역에 살고 싶어서	3.6	3.6	3.7	4.0	3.0
자녀가 원치 않음	2.6	2.1	3.1	.9	5.2
의지할 아들이 없음(딸만 있음)	3.6	2.7	4.5	2.4	5.6
기타	2.2	2.4	2.0	2.4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9)	(335)	(354)	(422)	(267)

<표 5-5>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별거이유(2)

단위: %

별거이유	전체	지역구분		계층구분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노인
결혼해서 분가했음	41.5	35.0	48.2	34.1	44.7
자녀가 타지역에 거주함	17.0	18.9	15.0	7.7	21.0
함께 살기에 집이 좁음	.9	1.1	.6	1.9	.4
건강하므로 의지할 생각 없음	6.2	5.2	7.4	1.9	8.1
따로 사는 것이 편함	13.1	15.8	10.3	6.7	15.8
자녀가 부양능력 없음	9.3	11.7	6.8	25.0	2.5
정든 지역에 살고 싶어서	3.6	1.1	6.2	2.4	4.2
자녀가 원치 않음	2.6	3.7	1.5	4.3	1.9
의지할 아들이 없음(딸만 있어서)	3.6	4.3	2.9	10.6	.6
기타	2.2	3.2	1.2	5.3	.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9)	(349)	(340)	(208)	(48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별거이유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는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리적 이유와 따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라는 생활양식에의 차이가 별거 이유로서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 노인은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어서와 의지할 아들이 없어서 즉 딸만 있어서를 자녀와의 별거 이유로 들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의 별거이유는 노인 자신의 직접적 이유보다는 자녀에 의한 간접적 이유가 별거사유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자녀와의 지원관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으로 인해 개인은 직장에서 물러나고 일반 교제의 범위도 좁혀지면서, 인간관계의 접촉이나 관심이 직장이나 사회보다는 가족과 자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년기의 생활범위는 자연스럽게 가족관계로 축소되어지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가 노년기 생활만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는 노인의 삶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정서적 및 현실적 도움의 교환에 있어 자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노인이 자녀와 갖고 있는 관계의 기본은 접촉과 연락 빈도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본 조사에서는 별거자녀 가운데 가장 가까이 지내는 자녀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때 자녀와의 만남은 노인이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나 자녀가 노인을 방문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동거 및 별거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자녀와의 상호교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

다음에서 제시하는 <표 5-6>을 보면, 노인의 51.4%는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 1년에 3-4번 정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21.8%는 월 1-2회 정도 접촉하고 있으며 9.5%는 주 1회 정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노인은 2.3%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 2-3회 정도는 3.1%, 주 1회 정도는 9.5%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14.9%만이 적어도 주 1회 정도 별거자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조사의 결과는 전국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의외로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조사에서는 노인의 41.1%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주 1회 정도 별거자녀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사보다 무려 26.2%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접촉빈도를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주1회 정도 접촉하는 비율에 있어서 군부의 4.4%에

비하여 시부가 14.5%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1년에 서너 번 정도 비교적 뜬하게 접촉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시부 44.6%, 군부 58.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접촉빈도에 있어 군부노인보다는 시부노인들의 접촉이 더 활발한 것은 다른 연구조사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부노인에 비하여 군부노인들이 도시지역에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별로는 일반노인은 주1회 정도 이상 자녀와 접촉하고 있는 비율이 18.0%이고 저소득층 노인은 7.7%로 나타나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이 별거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하였다. 연령별로 전기노인 보다는 후기노인 쪽에서 별거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년에 서너 번 정도와 년1회 정도, 전혀 안만난다의 비율에 있어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6> 노인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

단위: %

접촉빈도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전기	군부	저소득층	일반
거의 매일	2.3	2.1	2.6	2.4	2.2	3.5	1.2	.5	3.1
주 2-3회 정도	3.1	3.3	2.9	3.1	3.0	3.2	3.0	1.9	3.6
주 1회 정도	9.5	9.3	9.7	9.4	9.7	14.5	4.4	5.3	11.3
2주 1회 정도	3.5	3.0	4.0	4.8	1.5	3.2	3.8	1.0	4.6
월 1-2회 정도	21.8	21.9	21.8	25.1	16.8	19.4	24.3	16.5	24.1
년 3-4회 정도	51.4	53.6	49.3	48.0	56.7	44.6	58.3	50.5	51.8
년 1회 정도	6.0	3.9	8.0	5.5	6.7	7.5	4.4	17.0	1.3
전혀 안만난다	2.3	3.0	1.7	1.7	3.4	4.1	.6	7.3	.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3)	(334)	(349)	(415)	(268)	(345)	(338)	(206)	(477)

2) 자녀와 주고받는 도움

노인이 사회구성원들과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혹은 부양교환형태는 지금까지 노인연구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여러 종류의 자원을 교환하고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비공식적 집단과 공식적 집단의 지원기능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는데, 일군의 학자들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집단,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집단의 영향은 약화되고, 공식적 지원체계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노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박경숙, 2003).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노인의 공식적 사회관계보다는 비공식적 관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오고 있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자녀와의 상호교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자녀와의 교류는 별거자녀 및 동거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들과의 경제적, 신체적, 도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5-7>에 의하면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주는 도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6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21.2%, 손자녀 돌보기 18.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주는 도움을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지원 및 걱정거리 상담에 있어서는 남성노인들의 지원이 많은 반면 집안일에 있어서는 여성노인들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의존적 존재이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생활해 온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하여 모든 분야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응답노인들의 1/3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

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1/5정도의 노인들은 그들의 손자녀를 돌보아 주고 있으며 이는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부보다는 군부노인이 경제적 지원과 걱정거리 상담에 있어 그들 자녀들과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손자녀 돌보기, 집안일, 시장보기와 같은 역할은 시부노인들이 군부노인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자녀들의 집과 근거리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노인이 도시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계층별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저소득층 노인에 비하여 일반노인들이 그들 자녀와의 상호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걱정거리 상담에 있어서는 일반노인과 저소득 노인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자녀와의 상호교류(부모→자녀)

단위: %, (명)

교류 내용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경제적지원	21.2(198)	27.7	15.5	28.6	11.1	13.0	30.8	7.2	26.2
간병 수발	5.8(54)	5.5	6.0	6.5	4.8	6.7	4.7	4.4	6.3
손자녀 돌보기	18.2(170)	18.5	17.9	20.8	14.6	22.7	12.9	12.4	20.3
집안일	15.9(149)	13.7	17.9	17.4	13.9	19.7	11.4	11.2	17.6
시장보기	11.9(111)	12.6	11.2	14.3	8.6	16.0	7.0	10.0	12.5
교통편의	6.2(58)	7.1	5.4	6.7	5.6	8.9	3.0	5.6	6.4
기타상담	64.7(605)	69.1	60.8	68.3	59.8	59.4	71.0	45.0	71.9

다음의 <표 5-8>는 노인이 자녀에게 받는 도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자녀에게 받는 도움종류 가운데 경제적 지원이 6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65.6%, 간병수발에 대한 지원이 34.7%, 시장보기는 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수혜율과 제공율의 차이가 매우 큰 항목으로 앞의 <표 5-7>에서 노인이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의 경우는 21.2%에 지나지 않았지만 반대로 노인이 자녀에게 받는 도움 가운데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가장 높아 68.4%나 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경제적으

로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걱정거리나 문제 등을 상담하는 정서적 지원은 다른 종류의 지원에 비하여 노인과 그들 자녀사이에 있어 상호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이 그들의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병수발에 있어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노인들은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간병수발을 받게 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남음으로서 자녀들에게 간병수발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들이 그들의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 비율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도움에 있어서는 모두 후기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서적 지원에 대한 자녀의 도움은 연령이 많은 후기 노인에게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나 간병수발과 같은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제적 지원과 걱정거리 및 문제 상담 등의 정서적 지원은 시부보다는 군부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는 모든 종류의 지원에 있어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노인들은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있어 자녀로부터의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빈곤은 세대를 통해 재생산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녀 또한 빈곤한 경우가 많고 이는 그들의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 5-8> 자녀와의 상호교류(자녀→부모)

단위: %, (명)

교류내용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경제적 지원	68.4(640)	66.1	70.5	65.1	73.0	63.9	73.8	39.8	78.9
간병 수발	34.7(324)	31.8	37.1	31.2	39.4	31.8	38.1	26.1	37.8
손자녀 돌보기	8.9(83)	8.3	9.4	7.8	10.4	12.6	4.4	9.6	8.6
집안일	26.8(251)	24.0	29.3	23.7	31.1	28.8	24.5	20.5	29.2
시장보기	27.7(259)	25.9	29.3	25.6	30.6	26.8	28.7	21.7	29.9
교통편의	25.5(238)	24.3	26.5	23.7	27.8	23.7	27.6	17.7	28.3
기타상담	65.6(613)	67.7	63.7	68.3	61.9	59.6	72.7	46.6	72.4

제 3 절 소득과 경제활동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1998)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남성 33.2%, 여성 29.7%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문제를 꼽았다. 이것은 경제문제가 건강문제와 함께 노인인구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를 이은 ‘소일거리 없음’과 ‘직업 없음’ 모두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에 따르면 노인들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1/5이 노인이라는 점, 이들 생활보호 대상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0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생활은 지극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들의 취업활동과 취업노인의 특성,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려 한다. 더 나아가 노인들의 다양한 집단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노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노인의 경제상황

1) 노인의 소득수준

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였다. 노인세대의 총 평균소득은 55.9만원이다¹⁴⁾.

<표 5-9>에 의하면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20-4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30.2%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3에 해당하였다. 20만원 미만은 15.5%, 40-60만원 22.7%, 60-80만원 10.5%, 80-100만원 5.5%였으며 100만원 이상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노인이 전체의 65.3%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45.7%만이 40만원 미만의 월평균 수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의 노인소득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노인이 68.4%로 전체의 2/3정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8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21.2%나 되어 전국조사결과의 15.9%와 비교해 볼 때 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조사 결과, 노인의 총 평균소득은 48.6만원으로 본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조사보다 높은 이유는 노인 개인소득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9> 노인특성별 소득수준 분포(1)

단위: %

월평균소득액 구분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20만원 미만	15.5	9.4	20.7	10.1	22.6	10.1	22.6	10.3	17.6
20-39만원	30.2	22.1	37.0	23.4	39.2	23.4	39.2	57.2	18.9
40-59만원	22.7	22.8	22.6	23.4	21.7	23.4	21.7	23.4	22.3
60-79만원	10.5	14.3	7.3	13.1	7.1	13.1	7.1	5.2	12.8
80-99만원	5.5	7.2	3.9	7.4	2.8	7.4	2.8	1.4	7.2
100만원 이상	15.7	24.1	8.5	22.5	6.6	22.5	6.6	2.4	2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8)	(456)	(532)	(564)	(424)	(564)	(424)	(290)	(698)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편이다. 남성은 여성노인에 비하여 높은 소득계층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계층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은 40만원 미만 분포비율이 31.5%인데 비하여, 여성은 동비율이 57.7%에 달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에 속하는 남성은 24.1%인데 비하여 여성은 단지 8.5%만이 이에 해당하여 남녀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하여 소득분포비율이 다소 높았다. 즉 전기노인은 40만원미만 계층이 33.5%를 차지하지만, 후기노인은 동 비율이 6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후기노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있어서는 전기노인은 22.5%, 후기노인은 6.6%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소득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부는 40만원 미만이 33.5%를 차지하고 있고, 군부는 이보다 두 배 정도 높은 61.8%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군부에 저소득층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시부가 22.5%, 군부가 6.6%로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40만원 미만의 소득이 67.5%인 반면 일반노인은 36.5%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은 단지 2.4%에 불과하였으나

일반노인은 2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40만원 미만의 저소득에 있어서는 노인독신이 64.8%, 부부노인은 23.9%, 자녀동거 57.8% ,기타 11.4%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있어서는 노인독신은 2.2%였으나 노인부부는 24.4%로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조사에서 4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층을 유의표집 하였기 때문이며 노인독신이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일 경우, 40만원 미만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다.

<표 5-10> 노인특성별 소득수준 분포(2)

단위: %

월평균소득액 구분	전체	가구형태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20만원 미만	15.5	14.0	4.6	38.0	11.4
20-39만원	30.2	54.8	19.3	19.8	40.9
40-59만원	22.7	21.7	27.4	13.1	34.1
60-79만원	10.5	5.5	16.3	6.8	4.5
80-99만원	5.5	1.8	8.0	5.1	4.5
100만원 이상	15.7	2.2	24.4	17.3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8)	(272)	(435)	(237)	(44)

2) 노인의 소득원

노인이 어떠한 소득원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 자신 또는 배우자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다음의 <표 5-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원으로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자녀로부터의 보조로서 전체 노인의 61.6%가 해당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보호 및 노령수당과 같은 국가보조 53.1%, 본인/ 배우자의 일과 직업에 의한 근로소득 33.8%, 각종 연금이나 보험 20.1%, 퇴직금이나 저축의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 8.8%, 부동산과 집세 등의 임대수입 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노인의 소득원 가운데 생활보호 및 노령수당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표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30% 유의할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와 본인/배우자의 일로부터 얻는 소득이 노인의 소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연금이나 저축 등 노후를 대비해 준비된 소득을 갖는 노인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5-11> 노인특성별 소득원

단위: %

소득원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근로소득	33.8(337)	40.6	28.0	47.2	15.9	20.5	50.1	13.1	42.4
금융소득	8.8(88)	12.1	6.0	11.2	5.6	10.4	6.9	2.1	11.6
임대수입	5.4(54)	6.7	4.3	4.9	6.1	5.6	5.1	0.3	7.5
자녀의 보조	61.6(614)	58.8	64.0	58.9	65.1	56.5	67.8	34.0	72.9
연금/보험금	20.1(200)	26.0	14.9	27.0	10.8	12.5	29.3	10.7	23.9
국가보조금	53.1(529)	50.3	55.4	46.8	61.4	43.6	64.7	90.7	37.5
기타	15.2(152)	17.4	13.4	14.0	16.9	16.2	14.1	11.3	16.9

* 각각의 소득원에 대해 “소득이 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와 비율만을 표시

위의 결과를 2004년 전국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의 수입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인 것은 공통이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일과 직업이 수입원이라는 응답률이 전국 27.8%인 것에 비하면 동 비율이 33.8%로 본 조사에서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을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근로소득의 경우 남성 40.6%, 여성 28.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6%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남녀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타 소득원에 있어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득원이 없지만 자녀로부터의 보조와 국가보조금에 있어서는 여성 노인의 소득원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근로연령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취약과 가족 내 경제권 불평등 배분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산소득원

이 없는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원은 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의한 성별분업이 노년기에도 지속되어 여성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연령별로는 후기노인에 비하여 전기노인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및 연금/보험금의 소득원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령이 높은 후기노인에게서는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근로 소득원이 감퇴하는 반면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원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전기노인은 27.0%가 연금 및 보험금에 대한 소득원이 있는 반면 후기노인은 10.8%만이 연금 및 보험금에 대한 소득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근로소득에 있어 시부 20.5%, 군부 50.1%로 정년이 없이 일하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부의 근로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이나 임대수입 등 자산소득은 군부가 시부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자녀의 보조나 연금/보험금, 국가보조금 등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원은 시부보다 군부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로는 국가보조금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원에 있어 일반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에 비하여 소득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 자녀의 보조에 의한 소득원에 있어서 일반노인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원이 적어 개인의 자립능력과 가족원의 지원에 있어서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2> 노인특성별 소득원과 월평균 소득액

단위: 만원

소득원구분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근로소득	60.20	71.86	45.67	64.19	44.43	55.27	62.69	29.84	64.06
F-값		24.347***		8.643**		1.653		16.464***	
금융소득	44.45	49.11	36.31	49.64	30.63	47.23	39.35	45.00	44.41
F-값		2.346		4.553*		0.861		0.001	
임대수입	47.57	62.29	27.74	45.86	49.42	37.94	60.57	4.00	48.40
F-값		4.978*		0.049		2.025		0.564	
자녀의 보조	24.14	27.63	21.38	25.32	22.72	27.85	20.33	19.85	24.97
F-값		12.586***		2.146		18.633***		4.568*	
연금/보험금	22.18	21.92	22.58	23.20	18.76	36.10	14.85	13.97	23.69
F-값		0.020		0.686		22.244***		2.453	
국가보조금	14.24	15.14	13.54	12.55	15.97	20.02	9.44	25.00	3.52
F-값		1.352		6.270*		66.141***		456.429***	
기타	10.48	11.58	9.26	9.86	11.17	9.55	11.79	10.70	10.42
F-값		0.776		0.246		0.712		0.008	
소득합계	55.90	71.88	42.22	67.42	40.58	49.57	63.63	37.07	63.73
F-값		92.314***		73.210***		19.249***		60.428***	

주) *** p<.001, ** p<.01, * p<.05

* 임대수입에서 저소득층의 응답자는 1명임.

<표 5-12>를 통하여 노인세대의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60.2만원, 금융소득은 44.4만원, 임대수입 47.5만원, 자녀의 보조 24.1만원, 연금/보험금 22.1만원, 국가보조금 14.2만원 기타 10.4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평균소득액에 있어 남성 71.8만원, 여성은 42.2만원으로 남성의 소득수준이 현격히 높았다. 소득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성소득액이 남성의 소득액을 밑돌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이 금융소득과 연금/보험금 및 기타에 있어서만 조금 높은 소득액을 유지하고 있을 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소득액에 있어 평균소득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시부가 55.2만원, 군부가 62.6만원으로 군부가 7.4만원 더 많았다. 반면 금융소득과 연금/보험금에 있어서는 군부보다는 시부의 소득액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근로소득에 있어 저소득층이 29.8만원이나 일반인은 64.0만원으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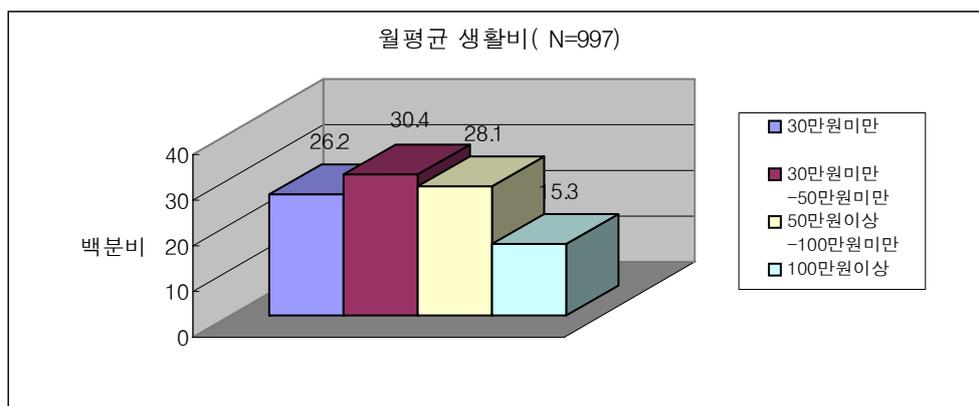
반노인이 무려 34.2만원 정도 더 많아 두 집단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서는 단 한사람만이 소득이 있다고 한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임대수입으로 인한 평균소득액이 48.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금 및 보험금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13.9만원이지만 일반노인은 23.6만원으로 일반노인이 4.7만원 정도 더 많았다.

3)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

다음의 <그림 5-1>은 작년 한 해(2004년) 동안의 생활비는 월 평균 얼마나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만원 미만이 26.2%,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30.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28.1%, 100만원 이상 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월 평균 생활비는 55.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농촌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를 조사한 농촌경제연구원(2004)의 결과인 71만원 보다 15.6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성별, 계층별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30만원 미만의 생활비에 있어서는 남성 14.3%, 여성 36.4%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에서는 남성 23.6%인 반면 여성은 단지 8.2%로 여성노인들이 낮은 생활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1> 월 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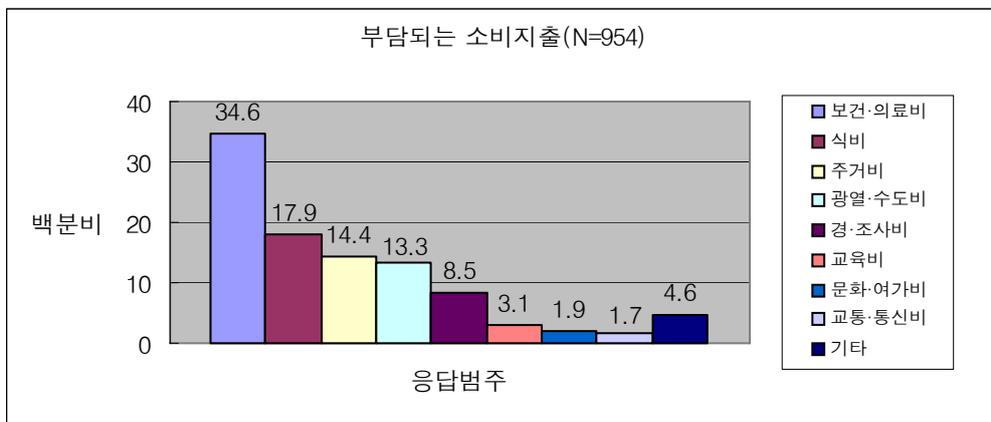
계층별로는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에 있어서 일반노인은 20.3%인 반면, 저소득층 노인은 단지 3.4%에 그쳐 저소득층 노인의 취약한 경제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

4) 부담되는 소비지출

다음의 <그림 5-2>는 노인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소비지출 항목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4.6%, 식비 17.9%, 주거비 14.4%, 광열/수도비 13.3%, 경조사비 8.5%, 기타 4.6%, 교육비 3.1%, 문화/여가활동비 1.9%, 교통통신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큰 지출항목인 보건의료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 전기노인, 군부,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들에게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지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항목인 식비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남성노인, 후기노인, 시부, 저소득층의 노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에 있어서는 지역별,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부 19.5%, 군부 5.6%였으며 저소득층은 22.0%, 일반노인은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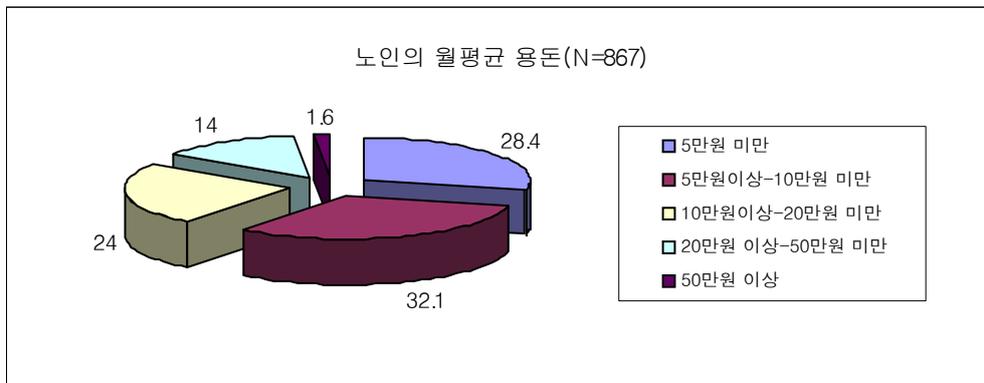
<그림 5-2> 부담되는 소비 지출

5) 노인의 용돈 및 희망용돈 수준

노인의 월 평균 용돈수준은 14만 7천원으로 전국 조사결과인 13만 3천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만원 미만 28.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4.0%,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4.0%, 50만원 이상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용돈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사용하는 남성노인은 47.8%, 여성노인은 72.1%로 나타나 남녀 간의 용돈수준의 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용돈의 규모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만원 미만의 용돈사용에 있어서는 시부 30.9%, 군부 25.4%로 군부보다는 시부에서의 용돈 사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의 용돈사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만원 미만의 용돈사용에 있어 전기노인은 51.1%, 후기노인은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다소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용돈사용에 있어 저소득층 노인은 83.7%, 일반노인은 52.5%로 31.2%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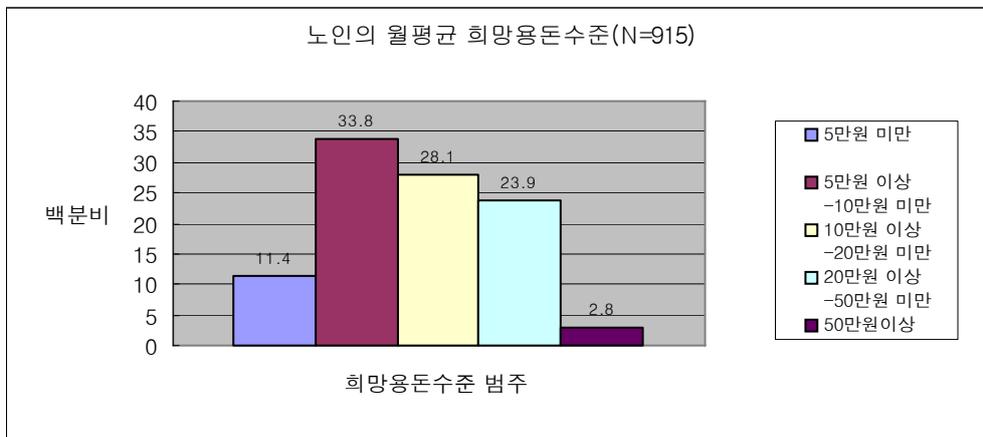
<그림 5-3> 노인의 월평균 용돈

6) 희망용돈 수준

다음의 <그림 5-4>는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용돈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 희망하는 용돈의 평균액수는 20.2만원 정도 이다. 5만원 이하의 용돈을 희망하는 비율은 11.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희망하는 비율은 3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용돈을 희망하는 비율은 28.1%,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용돈은 23.9%, 50만원 이상 2.8% 등으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희망하는 노인은 저소득층 노인, 후기노인, 여성노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4> 노인의 월평균 희망용돈 수준

다음의 <표 5-13>은 앞에서 설명한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 용돈수준, 희망하는 용돈수준, 월평균 수입액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13> 노인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용돈, 희망용돈, 수입의 차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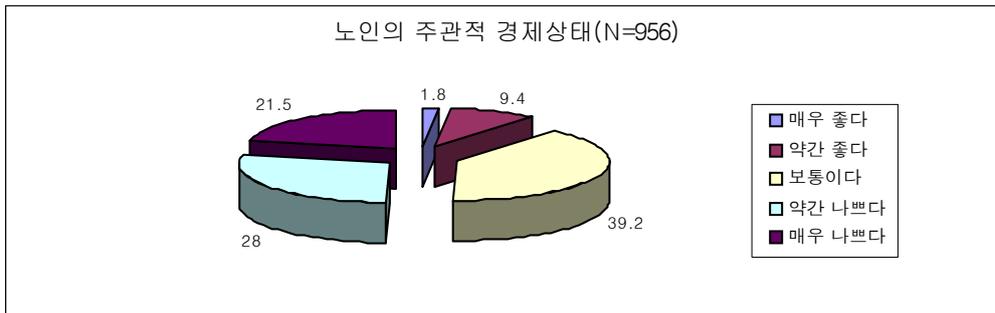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노인
생활비	55.41	65.12	46.17	60.84	47.37	54.61	56.34	35.48	64.21
F-값		52.198***		24.671***		.410		108.040***	
용돈	14.73	18.37	11.37	16.38	12.40	13.86	15.73	8.90	16.72
F-값		66.415**8		19.892***		4.367*		62.948***	
희망용돈	20.20	24.81	16.10	22.49	17.05	20.24	20.16	13.63	22.73
F-값		68.994***		25.134***		.006		59.946***	
월평균 수입액	55.90	71.88	42.22	67.42	40.58	49.57	63.63	37.07	63.73
F-값		92.314***		73.210***		19.249***		60.428***	

주) ***p<.001, **p<.01, *p<.05

7)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 자신의 경제상태를 주변 노인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다음의 <그림 5-5>를 통해 알 수 있다.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고 약간 좋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1.8%, 9.4%로 응답자의 11.2%는 경제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39.2%는 보통, 약간 나쁘다 및 매우 나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각각 28.0%, 21.5%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5%로 응답자 전체노인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의 전국조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응답결과에서도 매우 좋다고 약간 좋다가 각각 2.3%, 9.0%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3%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7%, 약간 나쁘다고 매우 나쁘다가 각각 27.9%, 22.1%로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5>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15.0%)이 여성노인(7.9%)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인력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자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빈곤노인이 양산되어 노후의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을 하계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취업노인의 실태를 통하여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미취업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파악을 통해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취업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1) 노인의 취업율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노인의 30.4%로 나타났다(<표 5-14>참고).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여부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에게서, 그리고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시부지역보다는 군부,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게서 종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본 조사결과는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년)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남자의 경제활동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문화의 존재, 정년이 없는 농업의 특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일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노인 비율이 일반노인 비율 보다 높아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의 심화가 우려된다.

<표 5-14> 노인특성별 취업상태

단위: %

일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취업중	30.4	37.3	24.4	43.7	12.6	20.2	43.0	10.7	38.5
미취업	69.6	62.7	75.6	56.3	87.4	79.8	57.0	89.3	6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χ^2		19.405***		111.168***		60.441***		75.681***	

주) ***p<.001, *p<.05

(2) 취업노인의 종사직종

다음의 <표 5-15>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알아본 것이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일은 농업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관련분야 6.9%, 제조관련 단순노무 5.9% 등의 순이었다.

<표 5-15> (일을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의 내용

순위	일의 내용
1	농업(농사일)
2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분야
3	제조관련 단순노무 분야
4	사무분야
5	청소 및 방역분야

(3)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이 60.6%, 비정기적 시간제 근로자 10.0%, 일용근로자 8.3% 무급가족종사자 8.0% 등으로 자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농업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이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표 5-16>.

취업노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자, 비정기적 시간제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종사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15.4%)에 비해 후기노인(20.0%)에게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군부에서는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시부에서는 상근직 근로자, 비정기적 시간제 근로자, 가내부업에서의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일용 근로자, 비정기적 시간제 근로자, 가내부업에서의 종사비율이 일반노인보다 높았다.

이러한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영업의 비율이 전국 49.2%에 비해 11.4%포인트 높았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군부의 농업종사자가 조사대상자로 포함된 결과이다. 한편, 일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전국의 15.6%, 17.4%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각각 8.3%, 8.0%로 본 조사결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6> 노인특성별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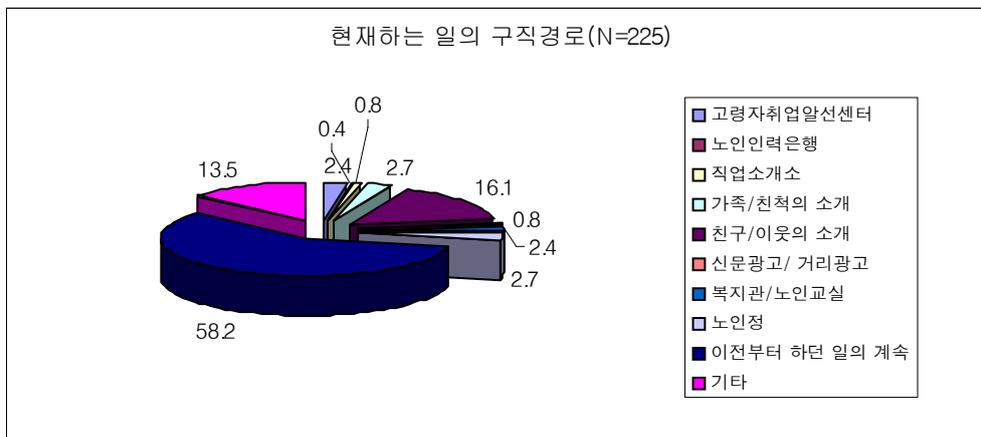
일의 형태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자영업자	60.6	65.2	54.4	60.3	62.0	44.0	69.3	48.3	61.9
고용주	2.4	3.7	.8	2.9	.0	4.0	1.6	.0	2.7
상근직 근로자	5.2	7.3	2.4	6.3	.0	12.0	1.6	.0	5.8
일용근로자	8.3	5.5	12.0	9.6	2.0	5.0	10.1	13.8	7.7
비정기적 시간제 근로자	10.0	9.8	10.4	10.5	8.0	17.0	6.3	20.7	8.8
가내 부업	5.5	4.3	7.2	5.0	8.0	11.0	2.6	10.3	5.0
무급 가족종사자	8.0	4.3	12.8	5.4	20.0	7.0	8.5	6.9	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6)	(170)	(126)	(244)	(52)	(109)	(187)	(30)	(266)
χ^2		18.316*		19.445**		39.978**		9.465	

주) ***p<.001, **p<.01

(4) 취업노인의 취업경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경로를 물어본 결과, 이전부터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58.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친구나 이웃의 소개가 16.1%였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및 노인인력은행 등의 비율은 2.4%와 0.4% 등으로 응답비율이 아주 낮아 노인취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6>.

취업경로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이전부터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 종사자들이 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5-6> 현재하는 일의 구직경로

(5) 취업노인의 취업이유

취업노인의 65.5%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취업을 하며, 9.1%는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4%는 일하는 것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5-17>.

취업이유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포인트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취업률이

나 향후 취업의사에 있어서도 남성노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와 같이 여성노인의 취업의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높은 응답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이 경제적 취약 집단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해서 취업을 한 비율이 69.9%로 본 조사의 65.5%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전국이 9.6% 비율을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단지 1.0%에 지나지 않았다.

<표 5-17> 노인특성별 취업이유

단위: %

일하는 이유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일이 좋아서	4.4	6.5	1.6	4.5	3.8	8.3	2.1	3.3	4.5
돈이 필요해서	65.5	63.5	68.3	68.4	51.9	59.6	69.0	83.3	63.5
건강유지를 위해	1.0	.6	1.6	1.2	.0	.9	1.1	.0	1.1
사람들과 교제	1.0	.6	1.6	1.2	.0	1.8	.5	.0	1.1
소일하기 위해	2.4	1.2	4.0	2.0	3.8	1.8	2.7	3.3	2.3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9.1	12.4	4.8	8.6	11.5	12.8	7.0	3.3	9.8
자녀들 뒷바라지	2.7	3.5	1.6	2.5	3.8	3.7	2.1	3.3	2.6
주변 일손이 모자라서	3.7	2.9	4.8	3.7	3.8	1.8	4.8	.0	4.1
기타	10.1	8.8	11.9	7.8	21.2	9.2	10.7	3.3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6)	(170)	(126)	(244)	(52)	(109)	(187)	(30)	(266)

(6)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취업만족도를 살펴보면 38.7%는 만족하고 있으며, 23.8%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직업 만족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5-18>.

취업만족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그리고 군부보다는 시부지역에서,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게서 취업 만족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취업 만족도는 전국 37.0%, 본 조사 38.7%로 비슷한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만족 비율에 있어서는 전국 37.9%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23.8%로 불만족의 비율이 본 조사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8> 노인특성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단위: %

만족도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매우만족	4.0	5.8	1.5	4.0	3.7	8.1	1.6	3.2	4.0
만족하는편	34.7	36.6	32.1	35.3	31.5	49.5	26.0	19.4	36.4
그저그렇다	37.6	36.0	39.7	38.6	33.3	24.3	45.3	29.0	38.6
만족하지 않는편	18.8	18.0	19.8	19.7	14.8	16.2	20.3	38.7	16.5
전혀만족 하지않음	5.0	3.5	6.9	2.4	16.7	1.8	6.8	9.7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3)	(172)	(131)	(249)	(54)	(111)	(192)	(31)	(272)
χ^2		6.011		19.302*		31.196***		11.884	

주) ***p<.001, *p<.05

(7) 취업노인의 취업불만족 이유

현재 취업 중인 노인 가운데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68명을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살펴 본 결과, 가장 불만인 원인은 기타를 제외한 임금수준으로 26.5%, 업무의 양에 대한 불만이 32.4%, 업무 내용에 대한 불만 7.4% 등으로 나타났다<표 5-19>.

취업불만족인 이유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로 각 집단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지역별, 계층별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부는 군부에 비해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33.3%포인트 더 높았으며, 군부는 시부에 비하여 업무량에 있어서 불만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임금수준에 있어 17.4%포인트 더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에 있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부의 임금에 대한 불만과 군부의 작업량에 대한 불만 이유는 시부에서는 노인 일거리 사업이 제한적이면서 상시적이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소득과의 연결이 어려운 반면, 군부의 경우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에게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오는 불만족으로 보인다.

<표 5-19> 노인특성별 취업불만족 이유

단위: %

불만요소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임금(소득)	26.5	27.8	25.0	29.4	17.6	50.0	16.7	40.0	22.6
업무(일)내용	7.4	8.3	6.3	7.8	5.9	15.0	4.2	6.7	7.5
업무(일) 양	32.4	33.3	31.3	33.3	29.4	15.0	39.6	33.3	32.1
기타	33.8	30.6	37.5	29.4	47.1	20.0	39.6	20.0	3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	(36)	(32)	(51)	(17)	(20)	(48)	(15)	(53)
χ^2		.414		1.968		12.417**		2.436	

주) **p<.01

(8) 취업노인의 취업유지 희망여부

취업노인의 68.1%는 향후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취업유지 희망여부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그리고 전기노인, 시부,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인과 군부노인의 취업유지 희망여부가 낮은 이유는 현 취업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군부노인과 여성노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0> 노인특성별 취업유지에 대한 희망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그만 두고 싶다	31.9	24.1	41.9	30.2	39.6	17.1	40.8	36.7	31.3
계속하고 싶다	68.1	75.9	58.1	69.8	60.4	82.9	59.2	63.3	6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5)	(166)	(129)	(242)	(53)	(111)	(184)	(30)	(265)
χ^2		10.551**		1.791		17.827***		.355	

주) ***p<.001, **p<.01

2) 미취업노인의 취업관련 특성 및 취업욕구

(1) 미취업노인의 미취업 이유

미취업 노인의 취업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57.0%, 일자리가 없어서 14.5%,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 13.2%, 일할 필요가 없어서 4.2%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5-21>.

미취업 이유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는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는 남성이 46.5%, 여성 64.4%로 여성이 17.9%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는 남성 24.5%, 여성 7.5%로 남성이

17%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했다는 응답이 전기노인 19.2%, 후기노인 10.5%로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미취업 중인 노인은 저소득층은 73.8%, 일반노인은 47.0%로 저소득층 노인의 2/3정도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취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반노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17.1%,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 16.0%로 외부적인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율이 저소득층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볼 때, 미취업 이유로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이유가 되는 응답비율은 전국조사와 유사하였다. 자발적인 미취업의 이유(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에 있어서는 본 조사는 5.9%에 지나지 않았으나 전국조사는 이보다 높은 12.3%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사회구조적인 응답에 있어 전국의 17.1%, 본 조사 14.5%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도 본 조사에서는 13.2%나 되어 자발적인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표 5-21> 노인특성별 미취업 이유

단위: %

일 안하는 이유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일하고 싶지 않아서	1.7	2.1	1.5	.9	2.4	1.6	2.0	.4	2.5
일할 필요가 없어서	4.2	5.6	3.2	6.0	2.7	3.9	4.8	.4	6.5
건강이 좋지 않아	57.0	46.5	64.4	57.7	56.3	58.9	53.6	73.8	47.0
일자리가 없어서	14.5	24.5	7.5	19.2	10.5	13.5	16.3	10.2	17.1
가사/가족수발 때문에	1.7	1.0	2.2	2.2	1.3	2.5	.4	2.3	1.4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3.5	3.1	3.7	2.8	4.0	2.8	4.8	.8	5.1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	13.2	14.3	12.4	9.1	16.7	13.3	13.1	8.6	16.0
기타	4.1	2.8	5.0	1.9	5.9	3.4	5.2	3.5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8)	(286)	(402)	(317)	(371)	(436)	(252)	(256)	(432)
χ^2		49.183***		31.255***		9.198		60.457***	

주) ***p<.001, **p<.05

<표 5-22> 노인의 미취업 이유의 전국조사결과와의 비교

단위: %

미취업이유	전라북도(2005)	전국(2004)	장성군(2002)
일하고 싶지 않아서	1.7	7.1	4.4
일할 필요가 없어서	4.2	5.2	3.5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14.5	17.1	7.0
건강이 좋지 않아서	57.0	58.2	79.8
가사일이나 가족수발 때문에	1.7	7.5	-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3.5	3.2	0.9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	13.2	-	-
기타	4.1	1.8	4.4
계	100.0	100.0	100.0

(2) 미취업노인의 취업 희망 여부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률은 14.2%로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 소득계층 별로 는 일반노인에게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23>.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볼 때,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국은 17.5%로 본 조사의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응답율은 남성노인과 전기노인 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본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5-23> 노인특성별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여부

단위: %

구직희망 여부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희망한다	14.2	20.2	9.9	21.9	7.5	14.6	13.4	8.5	17.5
희망하지 않는다	85.8	79.8	90.1	78.1	92.5	85.4	86.6	91.5	8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2)	(287)	(405)	(320)	(372)	(438)	(254)	(258)	(434)
χ^2		14.752***		29.132***		.199		10.744***	

주) ***p<.001

(3) 미취업노인의 취업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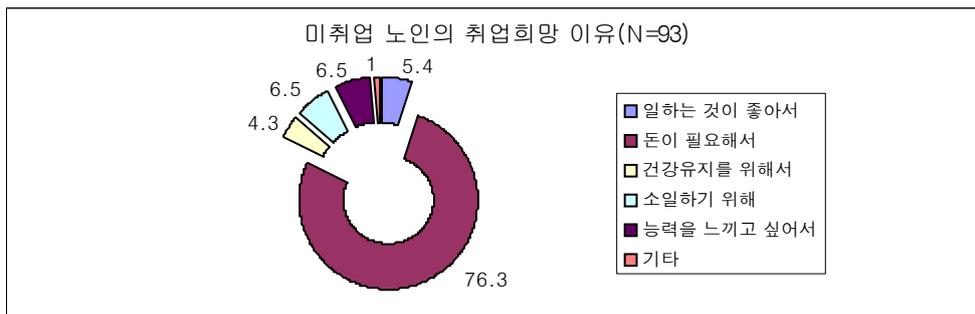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노인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76.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5-24>.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노인들은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하는 것이 좋아서 9.1%, 건강유지를 위해서 7.3%가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89.5%가 돈이 필요해서와 나머지 10.5%는 소일하기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볼 때,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있어 경제적 이유 56.8%, 건강유지 16.2%, 능력을 느끼기 위해 10.6% 등 취업에 대한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이유가 다른 이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4>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이유

일을 희망하는 이유	빈도(N)	백분비(%)
일하는 것이 좋아서	5	5.4
돈이 필요해서	71	76.3
건강유지를 위해서	4	4.3
소일하기 위해	6	6.5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6	6.5
기타	1	1
계	93	100.0



<그림 5-7>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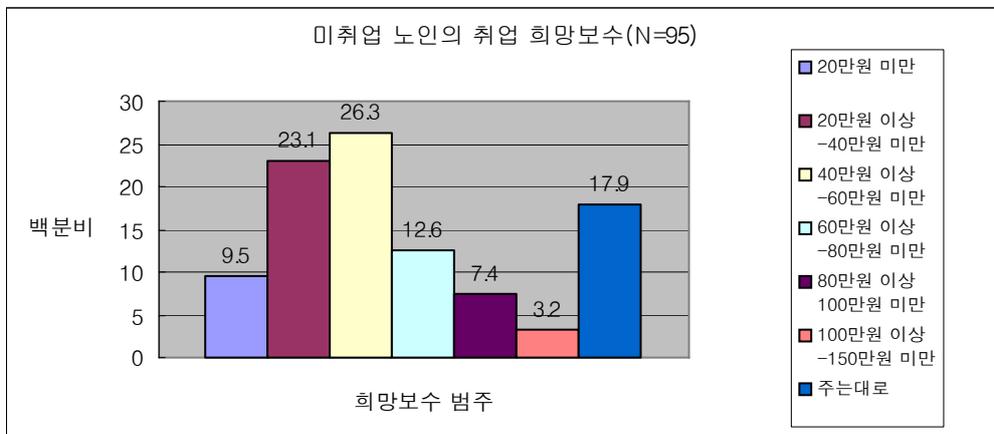
(4) 미취업노인의 취업 희망 보수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노인들이 취업 시 희망하는 보수로는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26.3%,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은 23.2%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주는 대로 받겠다는 응답도 17.9%나 되었다.

노인들의 월평균 수입액이 55.9만원으로 조사된 본 조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이 취업 시 희망하는 보수액은 생활비를 밀도는 액수이나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5>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보수

희망보수	빈도(N)	백분비(%)
20만원 미만	9	9.5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2	23.2
4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25	26.3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2	12.6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	7.4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3.3
주는대로 받겠다	17	17.9
계	95	100.0



<그림 5-8>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보수

(5) 노인의 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필요 없음 12.8%, 노인고용 적합 직종 대한 고용 의무화 9.5% 등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생각하는 정부가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전국조사와 동일하였다. 이는 현재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취업관련 정책은 노인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정부지원 필요 없음에 대한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의 취업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도 전국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제 4 절 건강 및 의료실태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지표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의 증대 및 의료비의 증가 등 노년기의 건강이라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만성질환 유병율과 치료방법, 애로사항 등의 관한 노인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건강검진 수진 여부, 운동실천여부, 건강증진 행위 등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1. 건강상태

1) 만성질환 유병율

노년기 질환의 특성인 만성질환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다. 우리사회의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

질환 유병률은 98년 86.7%, 04년 90.9%로서 노인의 4분의3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2004).

본 조사결과에서도 노인의 93.4%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노인의 유병율은 96.8%로 남성노인의 89.4%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이 91.9%, 후기노인 95.3%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율이 높았다 <표 5-26>. 또한 무배우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았다.

이러한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만성질환 유병율은 전국 90.9%에 비해 본 조사가 93.4%로 약간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2개 이상의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남성의 거의 2배 정도에 달하였으며, 전체 만성질환 유병자의 보유질환의 평균개수는 2.0개로 나타났다.

<표 5-26> 노인특성별 만성질환 유무

단위: %

질환유무	전체	성별		배우자유무		노령구분		계층구분	
		남	여	유	무	전기	후기	저소득층	일반
없다	6.6	10.6	3.2	9.6	3.1	8.1	4.7	2.4	8.4
있다	93.4	89.4	96.8	90.4	96.9	91.9	95.3	97.6	9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40)	(457)	(570)	(427)	(291)	(706)
χ^2		22.297***		17.264***		4.529*		11.807***	

주) *** P<.001, * P<.05

2)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

노인들에게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은 관절염으로 45.0%이며, 그 다음이 고혈압 28.8%, 요골·좌골통 25.9%, 골다공증 18.5%, 소화성 궤양 14.4%, 당뇨병 13.9%, 치과질환 11.9%, 백내장 등 시력장애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27>.

만성질환유병율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노인의 경우 고혈압(28.0%)이 가장 많고, 관절염(26.3%), 요골·좌골통(17.8%) 등의 순인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관절염(59.7%), 요골·좌골통(32.4%), 골

다공증(1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표 5-27>.

<표 5-27>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

		빈도(N)	백분비(%)
암		17	1.8
근골격계 질환	관절염, 류머티스	418	45.0
	요통, 좌골통	241	25.9
	디스크	81	8.7
	골다공증	172	18.5
소화기계질환	소화성궤양	134	14.4
	만성간염, 간경변증	14	1.5
내분비, 대사성	당뇨병	129	13.9
	갑상선 질환	9	1.0
순환계 질환	고혈압, 저혈압	268	28.8
	중풍, 뇌혈관 질환	53	5.7
	협심증, 심근경색증	78	8.4
호흡기계 질환	폐결핵, 결핵	6	0.6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20	2.2
	천식	58	6.2
눈, 귀질환	백내장 등 시력장애	104	11.2
	만성중이염	31	3.3
만성신장질환(만성신부전증)		12	1.3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34	3.7
치과질환		111	11.9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929명에 대한 응답비율을 표기한 것임.

3) 노인특성별 만성질환 치료방법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치료하는 주된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병원(의원)으로 가서 치료한다 7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소로 간다 10.3%, 무료진료(복지관 등) 3.2%, 그냥 참는다 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노인, 전기노인, 시부, 일반노인에게서 병원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8> 노인특성별 만성질환 치료방법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그냥 참는다	2.9	3.0	2.7	2.0	4.0	2.8	3.0	3.6	2.5
약국	1.5	2.8	.6	.8	2.5	1.0	2.2	1.4	1.6
보건소	10.3	9.3	11.2	8.1	13.2	4.5	17.6	15.5	8.1
한방병원 (한의원)	1.6	1.8	1.6	2.0	1.2	.8	2.7	.4	2.2
병원(의원)	77.9	75.5	79.8	83.3	71.2	84.3	70.0	70.5	81.2
무료진료 (복지관 등)	3.2	3.0	3.3	1.6	5.2	3.1	3.2	8.3	.9
민간요법	.2	.5	.0	.4	.0	.4	.0	.0	.3
기타	2.3	4.3	.8	2.0	2.7	3.1	1.2	.4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11)	(400)	(511)	(508)	(403)	(508)	(403)	(278)	(633)
χ^2		22.593***		29.369***		55.808***		57.951***	

주) *** P<.001,

4) 만성질환으로 인한 애로사항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만성질환을 가진 전체 노인의 35.9%가 진료비나 약값이 많이 든다는 점과 교통 불편(14.7%)을 지적하고 있다.

진료비나 약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여성(38.4%)이 남성(32.8%)보다 더 높았으며 시부(32.4%)보다는 군부(40.3%)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은 33.7%, 일반노인은 36.9%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일반노인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11.9%)보다는 후기노인(18.2%)에게서 교통 불편을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부표-9> 참조).

2. 건강관리

1) 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의 다른 노인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주 나쁘다 20.9%, 약간 나쁘다 34.8%로 응답하고 있어 55.7%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5-29>.

자신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대해 노인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별,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노인, 시부, 저소득층노인에게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계층별로는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반노인의 47.1%에 비해 저소득층의 76.5%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1998년, 2004년)와 비교해보면 1998년에는 58.9%가 2004년에는 38.5%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노인의 취업활동과 사회활동 등 노인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상호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29> 노인 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아주나쁨	20.9	15.8	25.4	18.8	23.8	19.9	22.1	41.1	12.6
약간나쁨	34.8	27.1	41.4	34.1	35.6	38.1	30.6	35.4	34.5
보통	23.5	25.4	21.9	23.9	23.0	19.5	28.5	15.8	26.7
좋은편	17.1	25.4	9.9	18.8	15.0	20.3	13.2	7.0	21.3
매우좋은	3.7	6.3	1.3	4.5	2.6	2.2	5.5	.7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1)	(457)	(524)	(560)	(421)	(543)	(438)	(285)	(696)
χ^2		77.128***		7.375		26.946***		122.021***	

주) ***p<.001

2) 건강검진 수진 여부 및 경로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2.8%이며 남성노인, 전기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건강검진 수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부표-10> 참조).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검진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지역 가입자(16.3%) 및 피부양자(25.4%)의 건강검진이 41.7%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시·군·구)지원의 노인건강검진을 받은 경우가 20.0%, 개인비용으로 병원·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19.4%,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건강검진이 17.5%였다.

건강검진 경로를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과 계층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려 있다. 정부지원의 건강검진은 시부(15.6%)보다는 군부(25.7%)에서 일반노인(13.4%)보다는 저소득층노인(39.4%)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개인비용에 의한 건강검진은 군부(15.0%)보다는 시부(22.8%)에서 높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무료건강검진은 일반노인(11.6%)보다는 저소득층노인(34.8%)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운동실천 여부 및 빈도

건강을 위하여 운동¹⁵⁾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25.2%였으며, 가끔 운동을 하는 노인은 22.4%로 전체노인의 47.6%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52.4%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5-30>. 노인들이 일주일에 운동을 하는 평균일수는 4.8일로 나타났다.

운동실천 여부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시부노인이 31.8%, 군부노인 17.2%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5) 규칙적인 운동은 1주에 2회 이상, 1회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함.

이러한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년)와 비교하여 보면, 운동실천 여부에 있어서는 운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전국의 39.4% 보다 높은 47.6%로 본 조사결과가 8.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5-30> 노인 특성별 운동실천 여부 및 주당 평균 운동일수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가끔 한다	22.4	26.3	19.1	26.2	17.3	24.8	19.4	14.5	25.6
아주 규칙적으로 한다	25.2	31.5	19.8	27.8	21.7	31.8	17.2	19.0	27.8
전혀 안한다	52.4	42.2	61.1	45.9	61.0	43.4	63.4	66.4	4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7)	(457)	(530)	(564)	(423)	(544)	(443)	(289)	(698)
χ^2		35.732***		22.744***		42.680***		32.902***	
평균 운동일수	4.81	4.88	4.73	4.78	4.86	5.08	4.28	5.13	4.73
F-값		.650		.164		17.084***		3.092	

주) ***p<.001

4) 주된 운동종목

규칙적으로 또는 가끔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47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을 조사한 결과, 걷기가 7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등산 7.9%, 게이트볼 5.3% 등의 순이었다(<부표-11> 참조).

노인들이 주로 하는 운동종목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주로 걷기와 등산, 게이트볼 등이 많은 편이나 여성노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걷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걷기를 제외한 등산과 게이트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건강증진 실천행위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로는 1순위에서는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순위에서는 잠을 충분히 잔다, 3순위에서는 마음을 편히 가진다가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흔히 생각하듯이 영양제나 보약, 또는 건강식품을 선호한다는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31>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55.5(546)	16.1(161)	6.3(63)
2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12.3(121)	12.3(123)	3.8(38)
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1.5(113)	2.8(28)	13.0(130)
4 마음을 편히 가진다	5.3(41)	9.6(96)	23.2(231)
5 잠을 충분히 잔다	4.2(19)	21.5(214)	18.7(186)
6 영양제, 보약, 건강식품 등 복용	1.9(19)	7.2(72)	4.5(45)

6) 최근 경험한 생활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노인들이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한 일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은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문제가 54.6%로 가장 많이 경험한 일이었고, 다음은 경제적 문제 41.5%,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가 20.8%, 친구의 죽음 13.2%, 자녀와의 불화 12.9%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사건의 유형별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제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일에 대해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거나 심한 정도로 측정되었다. 특히 가족의 죽음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하여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각각 2.93점, 2.80점으로 생활상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가족에 관련된 일로 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등이 노인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생애사건임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표 5-32>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한 생활문제와 스트레스 정도(N=993)

	경험있다.		스트레스 정도 (mean)
	빈도	비율	
건강문제	543	54.6	2.80
사고	61	6.1	2.54
경제적 문제	413	41.5	2.61
부부간 불화	85	8.7	2.19
가족의 질병, 사고	207	20.8	2.76
자녀와의 불화	128	12.9	2.36
친구, 이웃과의 불화	25	2.5	2.22
거처 옮김	34	3.4	2.59
퇴직, 은퇴	7	0.7	2.20
친구의 죽음	131	13.2	2.49
가족의 죽음	86	8.7	2.93

주) 1.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가 없었다 1점'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 4점'까지 측정된 것의 평균값으로 값이 4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함

제 5 절 여가 및 사회활동

본 절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활동희망분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자원활동 경험 유무 및 향후 활동 희망분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여가활동

1) 여가활동 유형

노인들이 취업이나 부업 등으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을 활용하거나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으로는 복지관 및 경로당에서 지내기가 46.4%, 친구, 이웃과의 만남 및 방문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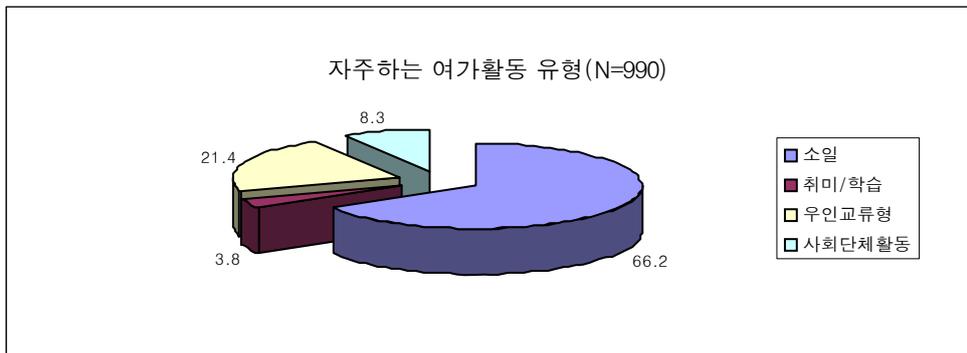
라디오, 신문보기, TV등이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소일 형태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미·학습활동(3.8%)이나 사회단체 활동(8.3%) 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취미 및 학습활동이 많으나 여성은 친구나 이웃과의 담소 및 집안일 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내는 활동이 많은 반면 취미 및 학습활동은 전기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시부보다는 군부노인에게서 친구나 이웃과의 담소로 여가활동을 보내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계층별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지내기는 저소득층 노인에 비해 일반노인의 활동이 많은 반면, 라디오, 신문보기, TV등은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더 많았다.

<표 5-33>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

형태	분류범위	빈도(N)	백분비(%)
소일	라디오,TV시청, 신문보기	139	14.0
	집안일(가사일/손자녀돌보기)	58	5.8
	복지관 및 경로당에서 지내기	460	46.4
취미·학습	서예, 그림, 낚시 등의 취미활동/ 전통춤·악기, 컴퓨터 배우기, 기체조 등	38	3.8
우인교류형	친구, 이웃과의 만남 /자녀, 친척, 친구방문	212	21.4
사회단체 활동	정당 활동 및 지역단체활동	1	0.1
	종교 활동	28	2.8
	사회봉사활동(통반장, 자원봉사활동 등)	54	5.4



<그림 5-9> 자주하는 여가활동 유형

2) 여가활동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노인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평균 3.50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만족도를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기노인, 시부, 일반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일반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으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은 집밖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여가지원 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34> 노인특성별 여가활동만족도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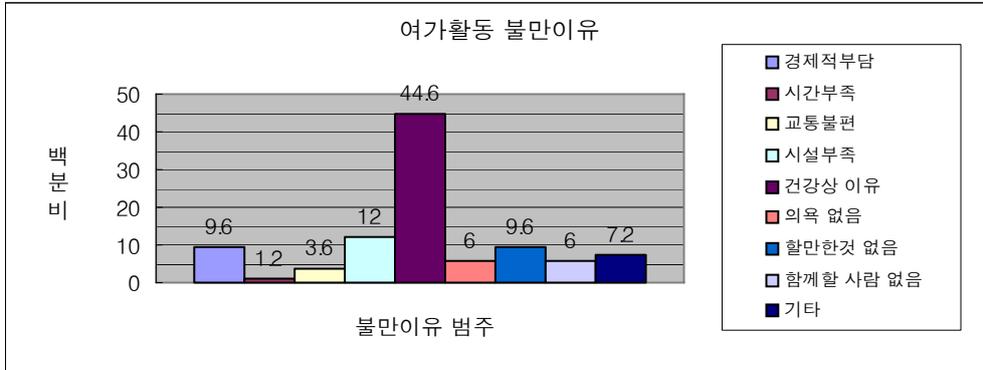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지역		계층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N	991	459	532	566	425	546	445	288	703
Mean	3.50	3.49	3.52	3.57	3.42	3.47	3.55	3.19	3.63
Std.Deviation	.862	.882	.845	.806	.926	.861	.862	.907	.809
F-값		.402		7.405**		2.085		58.077***	

주) 매우 불만(1점)에서 매우 만족(5점)에 이르는 5점척도의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 값이 클수록 만족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음. ***p<.001, **p<.01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서라는 이유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가시설이 없거나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12.0%로 많았다. 한편 마땅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9.6%나 되어 여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불만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을 노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부보다는 군부에서, 일반노인보다 보다는 저소득층노인에게서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건강이 나빠서와 경제적 부담을 여가활동의 불만이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일반노인의 경우 시설이 없거나 부족해서와 마땅하게 할 만한 것이 없어

서를 불만이유로 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에 대한 불만 이유는 주로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반노인들은 여가시설과 프로그램 부족과 같은 여가인프라에 관련된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림 5-10> 여가활동 불만 이유

3) 활동 희망분야

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이외에 앞으로 꼭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활동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가 88.9%였으며, 있다는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표-12> 참조).

노인들이 앞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취미활동이나 노인대학 참여 등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등산이나 조깅, 체조, 운동 등이 27.7%, 종교적 활동 및 봉사활동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적 모임 참여여부

노인들이 현재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는 경우는 67.8%였으며, 모임의 종류로는 노인정(경로당) 39.4%, 친구모임11.5%, 종교단체7.2% 순으로 많았다(<부표-13> 참조).

노인들의 사회적 모임 참여여부를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노인, 전기노인, 군부, 소

특계층별로는 일반노인 집단에서 노인정 및 친구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나가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도 32.2%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는 여자노인, 후기노인, 저소득층노인의 사회참여율이 낮았으며 특히 일반노인에 비해 저소득층 노인의 참여율이 19.0%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사회적 모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비교적 건강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 사회활동 및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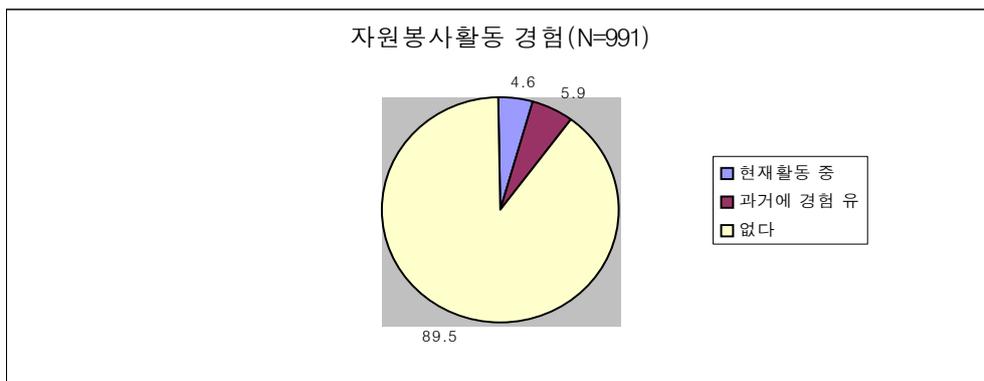
2.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활동 경험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89.5%가 참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5.9%,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4.6%에 불과하였다<그림 5-11>.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의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령을 제외한 각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볼 때 자원봉사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본 조사의 응답율이 4.2%포인트 낮았으나 현재 참여율에 있어서는 0.6%포인트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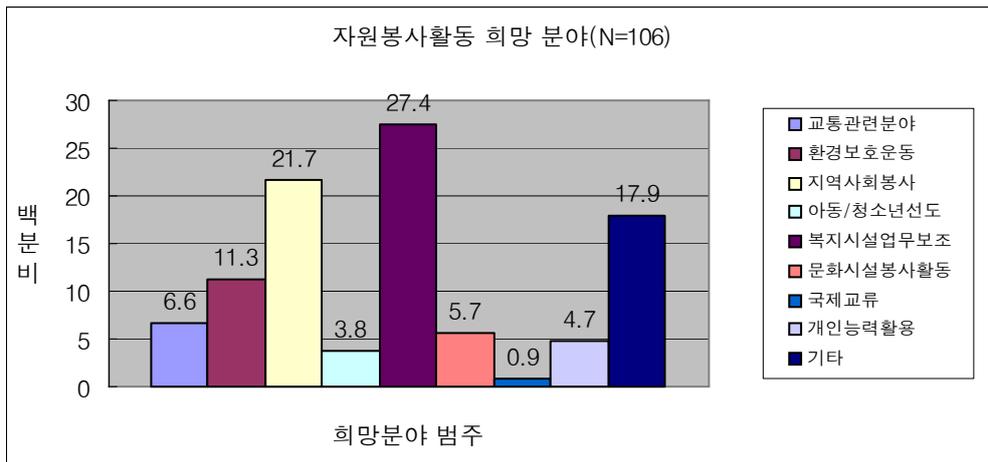
<그림 5-11> 자원봉사활동 경험

2) 자원봉사 참여의향 및 희망 활동분야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에 대하여 10.9%는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65.1%는 없다, 나머지 24.0%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을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을 제외하고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노인, 전기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참여의향이 높았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복지시설 업무보조 및 복지활동 분야 27.4%, 방범, 경비, 청소 등 지역사회 봉사 21.7%, 환경보호운동 11.3%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가장 많았으나 본 조사에서는 복지시설 업무보조 및 복지활동이 가장 많았다.



<그림 5-12> 자원봉사활동 희망분야

제 6 절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본 절에서는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율, 만족도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향후 이용희망율 등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 변화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경로당 이용실태 및 문제점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노인복지프로그램 이용현황

1) 노인복지사업 인지도 · 이용경험률 · 만족도 · 향후이용희망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률, 만족도 및 향후 이용희망률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5-35>와 같다.

각 사업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는 노인소득지원과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취업관련 사업과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낮았다. 각 사업에 대해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 등에 있어서도 경로교통수당과 경로당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사업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정봉사원 사업과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기타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이용희망률에 있어서는 경로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경로당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비교적 높았다.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35> 노인복지사업 인지도 · 이용경험률 · 향후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사업(프로그램)	인지율	이용경험률		만족도	이용희망률
			현재이용 중	이용경험있음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항	경로연금	53.2(430)	15.4(154)	8.6(86)	25.8(62)	73.2(730)
	경로교통수당	94.1(938)	72.5(723)	19.6(195)	18.1(166)	96.9(964)
	노인공동작업장	9.2(92)	1.4(14)	3.1(31)	42.2(19)	26.1(260)
	고령자취업알선센터	5.9(59)	0.5(5)	1.3(13)	33.3(6)	17.8(177)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7(27)	0.2(2)	0.2(2)	25.0(1)	14.3(143)
	기타일자리사업 (사회복지관및노인복지관)	8.2(82)	0.1(1)	1.2(12)	69.2(9)	19.9(198)
노인요양 시설 및 서비스	노인전문병원	16.6(166)	-	0.2(2)	50.0(1)	42.3(422)
	노인전문 요양시설	18.3(182)	-	0.6(6)	33.3(2)	39.4(393)
	무료노인 요양시설	25.0(249)	-	0.2(2)	-	42.9(428)
	실비노인 요양시설	16.6(166)	0.1(1)	-	-	22.9(229)
	단기보호시설	4.8(48)	0.1(1)	-	-	17.0(169)
	주간보호시설	4.2(42)	0.1(1)	0.2(2)	33.3(1)	18.0(179)
	치매상담센터 (보건소치매상담)	16.5(165)	0.2(2)	1.7(17)	63.2(12)	43.1(430)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19.2(191)	1.2(12)	1.7(17)	82.8(24)	38.9(388)
	경로식당/무료급식	38.0(379)	7.2(72)	7.3(73)	62.8(91)	40.3(402)
	노인식사배달	26.9(268)	3.1(31)	1.9(19)	54.0(27)	36.7(366)
가정방문간호서비스	21.4(213)	1.5(15)	2.4(24)	46.2(18)	47.7(476)	
노인 여가 서비스	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	36.9(368)	2.8(28)	6.6(66)	54.3(51)	32.9(328)
	노인(종합)복지회관	45.1(450)	7.9(79)	10.8(108)	55.6(104)	45.2(451)
	경로당	93.5(932)	50.5(503)	26.1(260)	58.1(443)	83.6(833)

본 조사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 볼 때,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에 관련된 소득지원 인지율은 전국(경로연금 37.2% / 교통수당 86.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관련 각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노인공동작업장19.1% / 취업알선센터20.7% / 지역시니어클럽 8.0%) 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 비해 높은 수급율을 보이고 있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에 대한 전북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취업관련 사업과 같은 전라북도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업 서비스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서비스에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중심사업인 경로연금제도와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 노인인력지원기관(지역사회시니어클럽), 기타 일자리 사업선정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이 있다. 각 서비스별로 인지율, 이용경험률, 만족도, 이용 희망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53.2%로 소득보장 서비스중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7.7%, 여성이 37.5%로 남자의 인지율이 여성의 2배정도였으며 연령이 많은 후기노인에게서,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일반노인에 비해 저소득층 노인의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15>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연금 해당자로 이용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응답자는 24.0%였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25.8%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다. 경로연금은 주로 저소득층과 군부에서의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연금제도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전체의 73.2%가 이용을 희망하였고 여성노인에게서, 후기노인, 시부,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보호작업장의 형태로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인지율은 9.2%에 지나지 않아 전국의 19.1%보다 다소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3.0%로 여성의 6.0%보다 높게 나타났다(<부표-15>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사람은 4.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42.2%에 불과하였다. 만족도는 지역별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부의 20.0%에 비해 시부

70.0%로 시부의 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전체의 26.1%로 전국의 16.8%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은 여성노인과 전기노인 그리고 시부노인에게서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

노인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5.9%로 전국의 20.7%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 저소득층의 노인에게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부표-15>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용경험률은 1.8%(1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만족도 또한 33.3%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용희망률도 전체의 17.8%만이 이용을 희망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연령이 낮은 전기노인에게서 이용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20.7%)에 비해 낮았으며, 이용경험율도 1.8%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전국의 11.1%보다 6.7%포인트 높은 17.8%를 보이고 있다.

(4) 지역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일거리제공, 일자리 개발 및 교육 등의 노인인력의 적극적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적으로도 기관의 수가 적고 도내에서도 최근 한곳이 설립된 탓에 취업관련 사업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낮은 2.7%의 비율을 보였다(<부표-15>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경험률도 0.4%로 낮았으며 향후 이용희망율

은 14.3%로 취업관련 사업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국의 이용희망율인 6.8%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5) 기타 일자리 사업선정기관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8.2%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용경험율도 1.3%에 불과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9.2%로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이용희망율은 19.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1) 노인요양관련 시설 서비스

노인전문병원 인지율은 16.6%로 전국조사인 51.9%에 비해 아주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경험율은 0.2%로 매우 낮았으며 향후 이용희망율은 42.3%로 전국의 38.8%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노인, 전기노인, 시부노인, 저소득층노인에게서 이용희망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16>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양로시설(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18.3%, 25.0%, 16.6%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율은 극히 낮아 1-2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0.1-0.2%에 불과했다.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의 향후 이용희망율은 노인(전문)요양시설 39.4%, 양로시설(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각각 42.9%, 22.9%로 나타났다. 노인(전문)이용시설은 시부와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이용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용희망율은 전국조사결과인 29.7%에 비하여 본 조사의 응답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재가복지서비스

○ 단기보호·주간보호·가사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사지원서비스의 인지율은 각각 4.8%, 4.2%, 19.2%로 나타났다.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 경험율은 단기보호는 0.1%, 주간보호 0.3%, 가사지원서비스 2.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만족도는 가사지원서비스의 경우 8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향후 이용희망율은 단기보호는 17.0%, 주간보호 18.0%, 가사지원서비스 38.9%로 각 사업에 대한 인지율에 비하여 향후 이용희망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사지원서비스의 인지율은 전국노인실태조사(2004)결과와 비교해 볼 때 1/2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용희망율은 전국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시설이 수적으로 부족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접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으나, 시설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을 접하고 나서는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시설이 확대되었을 때 이용희망자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 치매상담센터 및 식사서비스

현재 대부분 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16.5%, 이용경험율은 1.7%, 서비스 만족도는 63.2%로 비교적 인지율은 높았으며 향후 이용희망율도 43.1%로 높게 나타났다(<표5-35> 참조).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계층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이 군부보다는 시부에서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지역과 연령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이용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응답결과를 전국노인실태조사(2004년)와 비교해보면 인지율에 있어서는 전국(24.9%)이 높았으나 이용경험율(1.9%)과 향후 이용희망율(43.1%)에 있어서는 본 조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전국: 이용경험율(1.7%) / 향후 이용희망율 33.0%).

경로식당과 무료급식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식사배달¹⁶⁾에 대한 인지율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에 대한 인지율은 38.0%, 이용경험률은 14.5%, 만족도는 62.8%, 향후이용희망률은 40.3%로 만족률과 향후이용희망률이 비교적 높았다.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남성, 후기노인, 시부,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이용희망률에 있어서는 여성, 후기노인, 시부, 저소득층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식사배달서비스의 인지율은 26.9%, 이용경험율은 5.0%, 만족도는 54.0%, 향후이용희망률은 36.7%로 나타났다.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노인, 후기노인, 시부노인, 저소득층노인에게서 인지율이 높았으며 이용경험은 주로 저소득층과 시부지역, 여성노인에게서 높았다. 향후 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여성노인, 후기노인, 시부노인, 저소득층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경로식당과 무료급식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식사배달은 전국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나 이용율과 향후 이용희망율은 전국조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국조사에서는 1998년 이후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향후 이용희망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급식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인지율에 비해 이용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급식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잠재적인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3)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21.4%, 이용경험율은 3.9%, 만족도는 46.2%, 향후이용희망율은 47.7%로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다(<부표-16> 및 <표5-35> 참조).

가정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노인, 저소득층에

16) 노인의 식사서비스는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서비스와 같이 노인이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배달서비스가 있음.

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향후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지역과 계층별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시부지역과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향후이용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

4) 노인여가 서비스

노인여가서비스 기관은 노인교육기관인 노인대학(노인학교, 노인교실)과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노인정)이다. 각 기관의 인지율은 각각 36.9%, 45.1%, 93.5% 등으로 비교적 노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표-17> 참조).

<표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관의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노인대학 9.4%, 노인복지회관 18.7%, 경로당 76.6% 등이었으며 만족도는 각각 54.3%, 55.6%, 58.1%등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의 향후 이용희망율은 노인대학 32.9%, 노인복지회관 45.2%, 경로당은 83.6%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제외하고 노인대학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 일반노인에게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여부에 있어서는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당의 경우에는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에게서 시부보다는 군부노인에게서 이용경험율이 더 높았다. 경로당은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후기노인에게 더 친화적이며 지역적으로 보면 별다른 복지시설이 없는 군부에서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이용희망율에 있어서는 노인대학과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 일반노인에게서 이용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로당의 경우는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 일반노인에게서 향후이용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로당은 그 이용희망대상에 있어서 노인대학과 노인복지회관과는 구분이 되고 있다.

2. 경로당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 빈도

경로당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63.2%로 1주 평균 이용 빈도는 5.36일로 나타났다.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6일 이상 거의 매일 나가는 경우가 과반수이상(55.6%)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6>.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 시부모는 군부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비율을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34.4%로 본 조사의 이용비율이 63.2%로 더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표 5-36> 노인특성별 경로당 이용여부 및 이용자의 주당 평균 출입일수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출입한다	63.2	58.8	67.0	58.9	68.9	52.9	75.8	54.0	67.0
출입안함	36.8	41.2	33.0	41.1	31.1	47.1	24.2	46.0	3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336	294	291	339	157	473
χ^2		7.151**		10.297***		55.739***		15.076***	
주당평균 출입일수	5.36	5.22	5.46	5.17	5.57	5.63	5.13	5.29	5.38
F-값		2.442		7.335**		10.993***		.289	

주) ***p<.001, **p<.01

2)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경로당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가 31.6%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몸이 불편해서 25.1%, 연령이 젊다고 생각해서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18> 참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후기노인의 경우는 몸이 불편해서가 43.4%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부에서는 시간이 없

어서(43.8%)와 몸이 불편해서(17.7%), 연령이 젊다고 해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부에서는 몸이 불편해서(28.2%), 시간이 없어서(26.4%),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12.8%)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노인정에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7.1%나 되었으며 일반노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42.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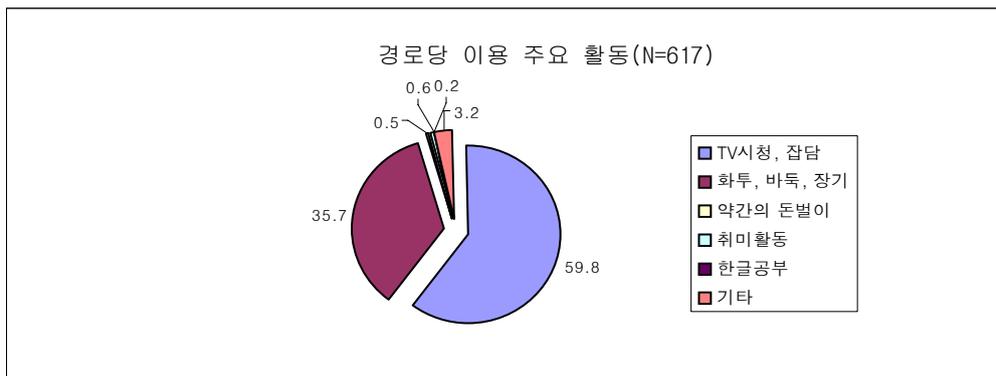
전기노인과 군부지역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젊은 노인과 군부의 노인일수록 취업률이 높고 경로당 이외의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국조사결과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이나 학력적 측면에서 노인 간의 동질성이 낮은 읍면부 보다는 동부에서, 여자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경로당이용 주요활동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TV시청이나 잡담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9.8%), 화투를 치거나 바둑, 장기를 두는 경우도 35.7%나 되어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 활동 내용은 대부분 단순한 소일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경로당에서 TV시청이나 잡담과 같은 단순한 소일거리로 여가를 보내는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노인,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5-13> 경로당 이용 주요활동

4) 경로당이용 만족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64.2%,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경로당이용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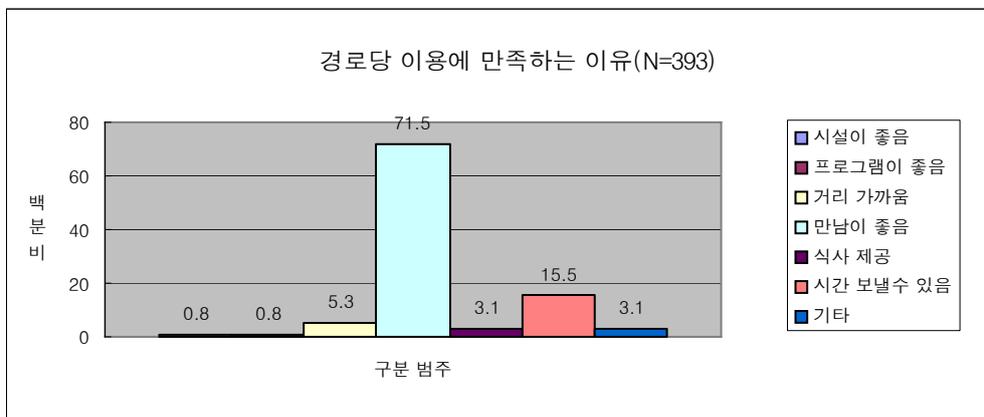
경로당 이용만족도에 있어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 군부보다는 시부에서,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을 제외한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 경로당이용 만족이유 및 불만족이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가 전체 응답 가운데 71.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로 15.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족이유에 대해서는 노인특성에 따른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만족이유에 대한 전국조사 결과는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 경로당 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본 조사결과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4>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노인들의 불만족 이유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시설이 좋지 않아서 25.6%, 타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 20.5% 등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노인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나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타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나 후기노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외에도 가입비, 연회비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61.9%로 가장 많았으나 군부에서는 타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가 33.3%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는 일반노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항목에서 불만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조사에서는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다른 노인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45.9%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나 본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43.6%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프로그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은 경로당에서의 주된 활동이 TV시청이나, 잡담 및 화투, 바둑, 장기와 같은 소일거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6) 희망 프로그램

경로당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건강검진이나 진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60.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스포츠 12.2%, 돈벌이가 될 만한 일 제공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로당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지역을 제외하고 각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스포츠 등에서 관심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돈벌이가 될 만한 일에 희망하는 비율이 12.9%로 남성노인의 8.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은 스포츠나 돈벌이가 될 만한 일에 관심을 보인 반면 후기노인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심분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군부에서 스포츠나 돈벌이에 대한 관심이 시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율이 71.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37> 노인정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보건 의료서비스	60.2	53.1	65.5	53.7	68.1	62.0	58.6	71.0	56.8
스포츠	12.2	17.7	8.2	15.6	8.1	9.8	14.6	8.3	13.5
취미교실	7.2	6.7	7.6	9.2	4.8	8.0	6.5	2.8	8.6
교육	2.0	4.3	3	1.8	2.2	1.7	2.3	.0	2.7
봉사활동 주선	1.5	3.1	3	1.2	1.9	2.1	1.0	.0	2.0
돈벌이가 될 만한 일제공	11.1	8.7	12.9	13.2	8.5	10.1	12.0	10.3	11.3
기타	5.7	6.3	5.3	5.2	6.3	6.3	5.2	7.6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96)	(254)	(342)	(326)	(270)	(287)	(309)	(145)	(451)
χ^2		36.948***		19.550**		5.810		19.486**	

주) ***p<.001, **p<.01

7)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

경로당의 여가활동 가운데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단지 6.3%만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유료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20> 참조).

경로당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를 밝힌 조사대상자들이 거론한 적정비용으로는 1,000원 정도가 적정하다(57.5%)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비용의 범위는 1천원에서 3만원까지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3. 경로식당 이용실태

1) 경로식당 이용실태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정기 및 비정기 이용을 합해 16.5%에 해당하였다(<부표-21> 참조).

경로식당 이용노인은 주로 후기노인이 20.1%로 전기노인의 1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군부(13.7%)보다는 시부(18.8%)가 많았으며 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이 26.1%로 일반노인의 1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로식당 수준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54.5%, 보통이다 40.6%로 식사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식당 서비스 대상집단

경로식당 이용자격에 대하여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으나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이용하게 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24.9%, 정부가 지정한 가난한 노인으로 제한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24.5%나 되었다(<부표-22> 참조).

경로식당 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라는 군부지역의 의견이 45.5%로 시부의 41.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경로식당 이용요금 유료화 여부

현재 대부분의 경로식당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 실비정도의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33.5%가 찬성하였으며 나머지 66.5%가 반대하였다(<부표-23> 참조).

경로식당 이용요금 유료화에 대한 찬성으로는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제 7 절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본 절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나 경제적인 부양 등에 대한 태도, 실질적인 노후준비 등을 통하여 노후준비 및 설계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노인주거 전용주택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태도 등을 통해 노후에 대한 욕구와 향후 정책적 지원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자녀관계 및 부양에 대한 태도

1)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노후에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3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정서적 유대 25.3%, 빈번한 경제적 상호지원 21.9%, 근거리 거주 1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5-38>.

이러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한 각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모두 자녀의 연락 및 방문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서적 유대에 있어서는 남자는 30.0%, 여성노인은 2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노인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이 자녀와의 빈번한 경제적 상호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부에 비하여 군부지역의 노인이 근거리 거주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 정서적 유대에 대한 응답이 18.6%로 일반노인의 28.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빈번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26.0%, 일반노인 20.3%로 나타나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 정서적 유대와 빈번한 연락에 있어서는 전국조사 응답률이 29.0%, 40.1% 등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결과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빈번한 연락 및 방문에 있어서는 본 조사의 결과가 전국조사 응답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5-38> 노인특성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정서적 유대	25.3	30.0	21.2	27.1	22.8	25.4	25.1	18.6	28.0
비슷한 가치관	2.5	1.5	3.4	3.0	1.9	2.7	2.3	2.8	2.4
근거리 거주	11.4	9.8	12.8	11.3	11.5	8.2	15.4	11.2	11.5
연락 및 방문	33.5	35.7	31.6	33.2	33.9	32.9	34.2	34.0	33.2
경제적 상호지원	21.9	20.1	23.5	19.9	24.7	24.1	19.2	26.0	20.3
자녀돌봐주기	1.5	.9	2.1	1.6	1.4	2.0	.9	1.1	1.7
기타	3.8	2.0	5.5	3.9	3.8	4.6	2.9	6.3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9)	(457)	(532)	(564)	(425)	(547)	(442)	(285)	(704)
χ^2		25.170***		5.711		17.645**		17.145**	

주) ***p<.001, **p<.01

2) 동거부양에 대한 태도

결혼 한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응답은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녀동거는 더 이상의 보편적인 규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25> 참조).

자녀와의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로는 가능한 한 장남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대하여 44.2%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형편이 되는 자식 36.1%, 아들 중 누군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 16.7%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규범적 태도에 대해서는 전국조사 결과인 26.6%보다 약간 높은 33.7%로 본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남에 대한 기대보다는 형편이 되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전국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

노후생활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을 물어 본 결과, 스스로 마련 37.1%, 국가적 차원의 보장 36.4%, 가족 및 자녀 2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서는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계층별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44.0%, 여성노인은 31.3%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노인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과 자녀들이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대해서는 남성노인 16.4%, 여성노인 24.1%로 여성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의지는 여성노인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대해 일반노인은 44.2%, 저소득층 노인은 19.9%가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약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이 일반노인의 2배 정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노후부양에 대한 계층간의 의식이 뚜렷하게 상반되고 있다.

전국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 40.9%가 국가를, 40.2%가 스스로 마련을 언급하고 있고 가족 및 자녀에 대해서는 18.7%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본 조사의 응답결과를, 노후대비를 스스로 준비하거나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의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9> 노인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스스로	37.1	44.0	31.3	46.6	24.4	37.3	36.9	19.9	44.2
가족 및 자녀	20.5	16.4	24.1	13.8	29.6	18.4	23.2	13.2	23.5
국가적 차원	36.4	35.2	37.5	33.6	40.3	39.0	33.3	61.0	26.4
기타	5.9	4.4	7.2	6.0	5.7	5.3	6.5	5.9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8)	(457)	(531)	(566)	(422)	(544)	(454)	(287)	(701)
χ^2		21.350***		64.734		5.501		109.891***	

주) ***p<.001

4)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65세 이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22.0%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노인의 약 1/4만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26> 참조).

노후준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노인의 특성별로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 시부보다는 군부,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게서 노후준비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에 비하여 남성노인의 노후준비율이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해왔다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방법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공적연금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저축 28.6%, 개인연금과 부동산 구입 등은 각각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준비방법은 연령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후기노인의 25.0%만이 공적연금이 노후준비방법 인 것에 비하여 전기노인의 41.6%가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방법으로서 저축은 여성노인, 후기노인, 시부노인, 저소득층의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5-40>.

<표 5-40> 노인특성별 노후생활 준비방법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	일반
공적연금	37.3	35.3	41.0	41.6	25.0	32.0	42.1	25.0	38.0
개인연금	11.1	13.7	6.4	11.2	10.7	9.7	12.3	8.3	11.2
부동산 구입	11.1	12.9	7.7	6.8	23.2	8.7	13.2	8.3	11.2
저축	28.6	25.9	33.3	26.7	33.9	35.0	22.8	50.0	27.3
기타	12.0	12.2	11.5	13.7	7.1	14.6	9.6	8.3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139)	(78)	(161)	(56)	(103)	(114)	(12)	(205)
χ^2		5.062		15.396**		6.632		2.870	

주) **p<.01

전국노인실태조사(2004) 결과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공적연금이 67.2%로 나타나 본 조사결과와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런 공적연금은 남자, 연령이 낮은 전기노인, 읍면부에서, 취업 중인 노인에게서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희망 노후 거주형태

1) 건강악화 시 노후 거주형태(유배우일 경우)

만일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노환으로 자리를 높게 될 경우,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거주형태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배우자가 있을 때의 거주형태로는 노인의 68.2%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배우자와 함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 18.4%는 자녀와 함께 있겠다, 12.3%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5-41> 노인특성별 건강악화 시 거주형태(유배우 경우)

단위: %

거주형태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배우자와만	68.2	69.5	65.8	66.8	70.5	70.5	65.7	71.7	67.2
자녀와 함께	18.4	17.8	19.6	18.1	18.9	17.1	19.9	9.4	21.0
노인요양시설	12.3	12.2	12.4	14.3	8.8	11.8	12.8	16.7	11.0
기타	1.1	.5	2.2	.8	1.8	.6	1.7	2.2	.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19)	(394)	(225)	(392)	(227)	(322)	(297)	(138)	(481)
χ^2		4.278		5.107		2.848		12.630**	

주) **p<.01

이러한 응답에 대하여 노인 특성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계층에 있어서만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21.0%였으나 저소득층에서는 9.4%만이 응답을 하였고 노인요

양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노인 11.0%, 저소득층 노인 16.7%가 응답을 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일정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노인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이 자녀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전국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응답율에 있어서는 전국 9.2%, 본 조사결과 12.3%로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본 조사결과가 약간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2) 건강악화 시 노후 거주형태(무배우일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의 거주형태로는 노인의 43.9%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로 33.3%가 응답하였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혼자 살겠다는 응답은 19.3%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때의 거주형태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성별을 제외한 각 변수에 있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의 경우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후기노인보다 높은 반면 후기노인은 자녀와 살겠다는 응답이 전기노인에 비하여 높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는 전기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2> 노인특성별 건강악화 시 거주형태(무배우 경우)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혼자 살고 싶다	19.3	14.9	20.3	25.3	14.0	23.2	13.3	19.6	19.1
자녀와 함께	43.9	47.8	43.1	34.3	52.5	38.6	52.0	26.1	56.0
노인요양시설	33.3	34.3	33.1	38.2	29.0	34.2	32.0	50.3	21.8
기타	3.4	3.0	3.5	2.2	4.5	3.9	2.7	3.9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8)	(67)	(311)	(178)	(200)	(228)	(150)	(153)	(225)
χ^2		1.159		17.116***		8.869*		40.939***	

주) ***p<.001, *p<.05

지역별로는 자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비율에 있어서 시부 38.6%이며 군부는 52.0%로 나타나 군부에서 자녀와의 동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응답이 50.3%로 일반노인의 21.8%에 비해 두 배정도 많은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자녀와 살고 싶다는 56.0%가 응답하여 저소득층노인 보다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노인실태 조사(2004) 결과에서는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50.0%로 본 조사결과(43.9%)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전국의 22.5%에 비하여 본 조사결과는 33.3%로 시설에 대한 선호율이 본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노인주거 전용주택 입주의향(비용 및 규모)

노인주거전용주택이나 실버타운에 대한 입소의사를 물어 본 결과(<부표-27> 참조), 응답자의 68.9%는 들어갈 생각이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들어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응답은 23.7%, 들어갈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는 단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들어갈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주거전용주택에 대한 입주의사는 계층을 제외한 각 변수에 있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들어갈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에 대해서는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주거전용 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있는 노인 308명을 대상으로 적정비용 및 규모를 물어 본 결과(<부표-28>,<부표-29>참조), 비용에 있어서는 40만원 이하가 4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43.2%나 되었지만 이들은 40만원보다 더 적은 실비를 원하거나 무료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진다. 입소시설에 대한 적정규모로는 13평에서 17평이 54.3%로 가장 많았다.

4) 노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비보장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19.8%, 일자리 제공 7.2%, 복지관, 경로당 등 여가시설 확대 5.7%, 노인병원 등 노인요양시설 5.1%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생활비보장에 대해서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일자리 제공은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의료비지원은 시부지역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일반노인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여가시설 확대에 대한 지원 요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43> 노인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정책(1순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노후생활 보장 (생활비 지원)	58.2	55.8	60.3	56.0	61.2	65.1	49.5	74.9	51.2
의료비 지원	19.8	17.9	21.5	19.4	20.5	14.0	27.2	11.5	23.3
일자리 제공	7.2	8.8	5.7	9.2	4.3	6.8	7.6	3.8	8.5
사회봉사 기회 제공	.5	.7	.4	.5	.5	.6	.5	.0	.7
복지관, 경로당 등 여가시설 확대	5.7	6.0	5.5	5.5	6.0	4.2	7.6	2.4	7.1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 의료시설 확대	5.1	7.3	3.2	5.9	4.1	5.3	4.8	4.5	5.4
노인주택 및 실버타운 건설	2.5	2.2	2.7	2.7	2.2	2.6	2.3	2.4	2.5
기타	1.0	1.3	.8	.9	1.2	1.5	.5	.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78)	(452)	(526)	(563)	(415)	(544)	(434)	(287)	(691)
χ^2		15.077*		11.349		38.930***		51.875***	

주) ***p<.001, *p<.05

5) 삶의 만족도

노인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노인의 31.3%는 자신의 삶 전체를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47.1%는 그저 그렇다, 21.6%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불만족보다는 만족하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있어서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전기노인이, 군부지역보다는 시부지역에서,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4>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매우 불만	4.4	2.8	5.8	4.6	4.2	4.2	4.7	8.9	2.5
약간 불만	17.2	17.4	17.0	12.6	23.2	18.5	15.4	31.6	11.2
그저그렇다	47.1	43.4	50.4	48.4	45.4	41.6	53.9	45.7	47.7
약간 만족	27.8	30.8	25.2	30.7	23.9	31.8	22.8	13.4	33.7
매우 만족	3.5	5.6	1.7	3.7	3.3	3.8	3.1	.3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χ^2		21.410***		20.575***		16.944**		111.671***	

주) ***p<.001, **p<.01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제 1 절 주요결과 요약
- 제 2 절 정책제언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 1 절 주요결과 요약

1. 전라북도 노인인구 추이 및 전망

전라북도는 이미 1980년부터 고령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22.3%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전라북도 고령화지수는 1990년 28.8%에서 2004년 68.1%로, 노년부양비는 같은 해 11.1%에서 19.8%에 달하는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부양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인구 성별분포는 2004년 현재, 남성노인 39.1%, 여성노인 60.9%로 여성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커지고 있다.

65-74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후기노인에 속하는 75-84세 노인(middle-old)과 85세 이상의 노인(old-old)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가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2. 전라북도 노인복지 사업 및 시설 현황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예산 수준은 정부의 전체예산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전라북도가 2005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체 예산 가운데 5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소득지원은 주로 경로연금지급과 교통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수

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6%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후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시설유형에서 절대적인 시설 수는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를 시설 당 노인인구수로 환산하면 전문병원과 단기보호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거동불편 노인, 치매나 와상과 같은 중증 요보호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시설 수급 확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2-3년 안에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거의 절반 이상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우선적인 이용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노인들은 제때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이용계층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3.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1) 가족관계 및 지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으로 인해 노인의 관심과 인간관계의 접촉이 직장이나 사회보다는 가족과 자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범위는 자연스럽게 가족관계로 축소되어지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가 노년기 생활의 만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응답자 노인의 43.9%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95.5%는 생존자녀가 있어 기본적인 가족지원체계는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73.7%에 달해 자녀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4.1%로 전국조사결과인 44.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및 결혼으로 인한 분가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독신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사결과에서는 27.4%로 전국조사결과인 34.7%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독신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노인과 저소득 계층 및 건강이 나쁜 노인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개인특성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체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일차적 타겟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인의 54.1%는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 1년에 3-4번 정도 접촉하고 있었으며 14.9%만이 적어도 주 1회 정도 별거자녀와 접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촉관계는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 노인이 상호 주고받는 도움에 있어 노인이 자녀에게 주는 도움으로는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과 같은 정서적 교류(64.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 (21.2%)과 손자녀 돌보기(18.2%) 등이었다. 이러한 도움정도는 전기노인, 군부노인,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게서 도움이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으로는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68.4%)과 걱정거리 상담이나 의논 등 정서적 교류(65.6%)가 가장 많아 노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와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정도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저소득층보다는 일반노인이 도움을 받는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간병수발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후기고령 노인의 증가로 인한 가족원의 간병수발이 향후에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소득과 경제활동

(1) 소득 및 생활수준

노년기는 주 수입원의 활동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가족이나 자녀로부터의 지원(61.1%), 국가보조(53.1%), 노

인 자신의 근로소득(33.8%) 등이 주된 소득원이었으며 연금이나 보험금, 개인의 금융 자산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은 소수 상층에게만 해당되었다. 노인들의 근로소득은 전국 평균인 27.8%에 비해 본 조사의 비율이 33.8%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정년 없이 일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소득구조의 다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노인, 후기노인, 저소득층의 노인은 소득원의 구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자녀와 정부로부터의 보조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남녀 및 계층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남성노인의 평균 소득액은 71.8만원이었으며 여성노인은 42.1만원, 저소득층은 29.8만원 일반노인은 64.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55.4만원, 월평균 용돈액은 14.7만원, 희망하는 월평균 용돈액은 20.2만원이었다.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5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56.6%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시하고 있는 1인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이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다. 노인들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소비지출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34.6%), 식비(17.9%), 주거비(14.4%) 등의 순으로 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비와 관련되어 있다.

노인들의 경제수준은 노후대책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2.0%에 불과하였다. 노후대책은 성별 간에 격차가 커서 여성노인의 노후준비는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쳐, 향후 여성노인의 빈곤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노인만이 아니라 지금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재산까지 전부 자녀를 위해 투자했던 세대들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노후대책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여성, 후기고령, 저학력, 저소득 노인집단이다.

(2) 경제활동

현재 소득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은 30.4%로 전국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인 29.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14.2%가 경제활동 참가를 희망하여 본 조사대상자의 44.6%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노인의 종사 직종으로는 농업(70.0%)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관련분야 (6.9%)와 제조관련 단순노무(5.9%)등의 순이었다. 취업노인의 취업경로로 취업알선 등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홍보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해서(65.5%)가 가장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비취업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7.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는 38.7%로 비교적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업무량(32.4%)과 임금수준(26.5%) 등이었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 및 앞으로 참가 희망자, 현재 취업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비율 등은 모두 남자 노인, 전기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 등의 집단에서 높았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력수준보다는 성별, 연령별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므로 비교적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가능성도 높은, 남자노인과 전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수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들을 제외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 동기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 고학력과 후기고령인구들이 많으므로 이들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는 등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취업전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미취업 노인들의 일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57.0%)라는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일자리가 없어서(14.5%),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여서(13.2%)등의 외부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상당수 있어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한 고용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노인의 취업희망직종으로는 건물시설 관리나 청소관련, 포장원, 상표부착 등 단순노무직등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취업 희망이유로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경제적 이유가 76.3%로 전국조사 결과인 5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자리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노인의 희망보수로는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주는 대로 받겠다는 비율도 17.9%나 되고 있어 취업의 동기가 절박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건강 및 의료실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93.2%로 전국노인실태 조사결과인 90.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유무는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지역,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가진 만성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은 관절염(45.0%)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다. 만성질환유병률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 만성요통 등은 여성 특유의 질병으로 여성노인이 평생 수행해 온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전국추세(1998년: 58.9%, 2004년 38.5%)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55.7%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노인, 시부지역,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취업활동과 사회활동 등 노인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 노인들만의 특수성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식적·실천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위한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였고 다음으로는 보건소에 이용율이 높았다. 보건소 이용율은 여성노인, 후기노인, 군부지역 노인, 저소득층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건소 접근의 용이성과 치료비의 부담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중심점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개인들의 생활양식 및 건강증진 행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과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52.8%였으며 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로는 피부양자 및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의한 무료건강검진이 대부분이었다.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25.2%에 불과하였으며 군부지역에서 운동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지역 간의 격차가 다소 있었다.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로는 평소 규칙적인 식사(55.5%), 규칙적인 운동(12.3%), 아무것도 하지 않음(11.5%) 등의 순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으며 영양제나 보약, 건강식품 등에 대한 선호(1.9%)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의 대부분이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적인 빈곤, 국가적·사회적 자원과 정책부족으로 만족스러운 여가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노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내기(46.4%), 친구나 이웃 만남(21.4%), 라디오 및 TV 시청(14.0%) 등의 단순소일형태가 많았으며 취미 및 학습(3.8%)이나 사회단체 활동(8.3%)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노인의 특성에 따라 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성은 취미 및 학습활동이 많으나 여성은 친구나 이웃과의 담소 및 집안일 등이 많았다. 연령이 많은 후기노인일수록 접근성이나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내는 활동이 많았으며 취미 및 학습활동은 전기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여가활동의 불만족 사유로는 개인의 건강이 나빠서(44.6%)가 가장 많았으나 여가시설의 부족(12.0%)과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서(9.6%)라는 이유도 상당수 있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단조로운 소일형의 여가에서 탈피하여 취미 및 학습형과 사회참여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소극적이며 집안에서 보내는 제한적인 활동이 많아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경험율은 전국평균 보다 낮았으나 현재 참여하고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약

간 높았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은 10.9%였으며 남성노인, 전기노인,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참여 의사가 높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복지시설 업무 보조 및 복지활동 분야(27.4%)와 방범, 경비, 청소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21.7%), 환경보호운동(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63.2%였으며 1주 평균 이용빈도는 5.36일로 경로당은 노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시설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여성, 후기노인, 군부, 일반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거리 중심의 활동이나 제한적 활동을 하는 후기노인과 여성노인에게 보편적인 시설이었으며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는 군부지역에서의 이용빈도가 높아 경로당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이용율에 비해 경로당에서 하는 주요활동으로는 TV시청 및 잡담(59.8%), 화투나 바둑 및 장기(35.7%) 등 대부분 단순한 소일거리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용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43.6%)와 시설이 좋지 않아서(25.6%)라는 이유가 많아 경로당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5)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의 규모와 비중, 노인복지 서비스의 기반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①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사항 ②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③ 노인여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각 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율(현재 이용중, 이용경험 여부), 만족도, 이용희망율 등을 통해 지역 노인복지 수준과 향후 정책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인지도

각 사업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는 노인소득지원에 해당하는 경로연금과 경로교통수당 및 여가시설 가운데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10% 미만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16%-20% 정도의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5%미만의 극히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재가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로식당과 무료급식에 대한 인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복지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수혜율과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과 같이 지역에서 숫적으로 적은 시설 수와 그로 인해 수혜자가 적으면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나 숫적으로 많거나 수혜자가 대부분인 경로당,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에 대한 인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이용경험

각 사업에 대해 현재 이용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 등에 있어서도 경로교통수당과 경로당 이용률이 높은 반면, 취업관련 사업 및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이용경험에 있어서도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에 대한 이용 경험 역시 10% 미만의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는 여전히 경로당 이외의 다른 대체 시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시설 및 복지자원으로서의 변화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인지율과 이용율이 가장 높은 경로교통수당과 경로연금에 대한 사업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노인취업관련 사업으로서 노인공동 작업장과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극히 소수이어서 평가가 어려우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재가복지 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사업과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2.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 역시 이용 경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율

향후 이용희망률에 있어서도 경로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경로당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10%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용희망율은 인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노인공동 작업장에 대한 이용희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이용희망율은 전국의 16.8%보다 높은 26.1%로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용희망율은 40% 정도로 인지율과 이용경험율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노후생활 인식 및 태도

(1) 자녀관계 및 부양에 대한 태도

노후에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33.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외에 정서적 유대(25.3%), 경제적 상호지원(21.9%), 근거리 거주(11.4%) 등을 거론했다.

결혼한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데 대해 33.7%만이 응답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왔던 자녀동거는 더 이상의 보편적인 규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람직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어 본 결과 스스로 마련 37.1%, 국가적 차원의 보장 36.4%, 가족 및 자녀 2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의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해 남성노인은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여성노인은 가족과 자녀가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 희망 노후거주형태

부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노후생활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을 때와 배우자가 없을 때 응답결과가 서로 달랐다. 유배우일 경우 68.2%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우자와 함께 있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살겠다 18.4%, 노인요양시설은 12.3%만이 응답하였다.

반면 무배우일 경우, 자녀와 함께 살겠다 43.9%, 노인요양시설 33.3%,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살겠다는 응답이 19.3%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부부끼리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가 높기는 하나 노인요양시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3.3%로 전국조사결과인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가족지원체계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이 일반노인의 두 배정도 많았으며 일반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동거가 저소득층 노인의 응답율보다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주거 전용주택 입주의향(비용 및 규모)

노인주거전용주택(실버타운)에 대한 입주의사에 대해 68.9%는 들어갈 생각이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들어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응답은 23.7%, 들어갈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는 단지 7.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들어갈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1.1%에 해당하며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지역, 소득계층별로는 일반노인에게서 입주의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입주의사가 있는 노인들이 제시하는 적정비용으로는 40만원 이하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 규모로는 13평에서 17평사이가 54.3%로 가장 많았다.

(4) 정부의 우선지원 정책

노인들을 위하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비보장(5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19.8%) 과 일자리 제공 (7.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생활비보장에 대해서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일자리 제공은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에게서, 의료비지원은 시부지역보다는 군부

지역에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일반노인에 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여가시설 확대에 대한 지원 요구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삶의 만족도

노인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노인의 31.3%는 자신의 삶 전체를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47.1%는 그저 그렇다, 21.6%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불만족보다는 만족하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있어서는 남성노인, 전기노인, 시부지역,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일반노인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 2 절 정책제언

1. 정책추진방향

1) 후기고령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연령단계별 변화추이의 특징으로는 65-74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75-84세 노인(middle-old)과 85세 이상의 노인(old-old)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반면 경제적인 독립능력은 저하되므로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게 된다.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족 또는 자녀 의존적 수발체계는 노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수발가족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노인학대 및 유기, 가족의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는 치매나 외상 등의 중증 요보호 노인의 증가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들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의 시설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요를 공공에서 담당하기는 힘든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통한 유료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후기고령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재가복지 사업의 전개와 함께 양질의 다양한 요양보호시설 공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노인들의 유병율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노인 본인의 의료비 부담과 간병비 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체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되고 있는 가정간호사 파견이나 방문간호사 사업, 그룹홈,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및 수발전문요원의 확보, 의료진의 활용과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여성노인문제를 고려한 성인지적 노인복지정책

전라북도의 고령인구의 성별분포는 남성노인이 39.1%, 여성노인이 60.9%로 여성노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유배우율이 낮아 신체적 부양에 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본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의 건강상태는 남성보다 더 취약하며 낮은 연금가입율과 수급율, 생활비 조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해결보다는 가족 및 국가에 대한 의존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은 취약한 형편이다. 이처럼 여성노인의 경험이 남성과 서로 다른 이유는 여성노인들 대부분은 일생 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고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후의 빈곤문제나 건강문제는 여성노인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여성노인의 삶과 생활에서 겪는 문제점 등이 남성노인의 그것과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정책의 수혜자로서 여성노인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여성노인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기를 보낼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시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인들의 입장과 삶의 현실이 반영된 노인복지가 실현되려면 우선 여성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문제가 해결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차원에서는 성 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중심으로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개발 및 집행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기구의 정비와 예산확충, 성별 통계의 구축, 정책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성 인지력 향상,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 분석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3) 다양한 계층과 농촌 중심의 노인복지정책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은 경제생활, 가족관계, 건강상태, 여가활동 및 욕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녀 간, 지역 간, 계층 간, 연령 간 차이와 다양성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인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빈곤, 질병, 무위, 소외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혼재되어 정책적으로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노인층이 있거나 아직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환경을 가진 부유한 노인층 등 다양한 노인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요보호 중심의 사후치료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의 욕구를 수렴하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를 세분화 시키고 그들의 특성도 구분하여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이 도시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노인의 비율이 높고 특히 가족적 지원체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농어촌에서 높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하위집단으로서도 이들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사회의 구조개선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향후 추진과제

1)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 및 주기적인 노인실태 조사 실시

노인실태조사는 전국단위로 매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시·도별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어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환경에 따라서 복지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역별 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의 규모와 비중,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의 차이가 존재하고 노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단위 사업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산출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관련 통계자료는 아주 미흡하여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과 노인세대구성 등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수혜자에 관련된 기본 통계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더욱이 모든 정책에서 성별분리 통계 구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복지에 관련된 지역별 통계자료의 구축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표준화 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의 변화와 욕구를 노인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노인복지증장기 계획수립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변화추이를 보면 이미 1980년부터 고령인구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22.3%를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65세-74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노인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의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노인의료시설 및 여가시설,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는 예

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은 지방단위 사업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조정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을 둘러싼 정책적, 인구학적 변화, 노인욕구의 다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자원을 고려한 지역에 기반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은 노인정책의 보편성과 지역 노인이 당면한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을 예측하게 하며 제한된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노인지원프로그램 운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과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 및 치매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일수록 외부와 차단되기 쉽고 고립되어 폐쇄적인 생활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노인지원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경도 세타가야구(世田谷區)에서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돕고 나아가서는 요양 수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서 즐거운 사롱(saloon)”과 “서로 돕는 미니 데이케어(mini daycare)”를 운영하고 있다. “만나서 즐거운 사롱(saloon)”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과 같이 타인과의 교류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교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로 돕는 미니 데이케어(mini daycare)”는 와상노인이나 집에서만 지내는 노인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구민 자치적 도우미 활동이다. 식사제공,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월 2회 혹은 주 2회 실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도 지역 내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부녀회, 학점 취득을 위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증진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노인대상 자원봉사는 대부분 취약계층과 요보호 대상 중심의 사후발생적 관리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세대간의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족지원이 취약한 노인대상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 병약한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많은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노인보다는 일반노인, 경제적 수준이 더 좋거나 시부지역의 노인 등 생활여건이 더 양호한 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 및 그들로부터의 지원에서 가족지원망이 더 확고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족지원과 같은 비공식적 지원망이 취약한 독거노인과 저소득노인,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공식적 지원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족들에게 노인부양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이웃과의 결연관계를 맺어 취약한 노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린단위로 소방서나 보건소로 연결하는 비상시스템을 구축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노인건강진단의 확대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현실화 한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업으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 실시하며 노인은 심신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질병노인에 대한 치료와 사후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건강검진의 결과를 본인과 가족주치의,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여, 검진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후 조치로 병원과 의원 등을 연계하여 관리를 해주도록 한다. 아울러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체도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1회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체도를 포함한 예방대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노인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건강에 관련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교육방법을 개발·실시하고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체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6)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노인관련 의료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나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거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과거 노인을 부양했던 가족의 부양체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족의 지원만으로는 노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매스컴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목표와 비전」.
- 국무조정실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 권중돈(2002). 『군산지역 노인복지 욕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김경식(1995).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4,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지지망”, 『한국노년학』, 20(1), 한국노년학회.
- 김선자(2001).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 김영득(2004). “원주시 노인의 여가활용실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복지논총』, 2004년, 상지대학교.
- 김오남(2003). “농촌노인의 건강수준,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2), 한국가족복지학회.
- 김재숙·박종·류효연·이철갑·김학렬·김양옥(1999). “일부 농촌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 『한국농촌의학회지』, 21(1), 한국농촌의학회.
- 김제시(2001).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자치단체의 역할』, 제1회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세미나 자료집.
- 김춘수 외(1995), 고령화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 훈(2001a). 『전주시 사회복지 행정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 전주시.
- _____ (2001b). 『전주시 노인복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 전주시.
- 김훈·백종만(2002). “농촌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 완주군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2호.
- 농림부(2002).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연구』.
- 문옥륜(2002). 노인의료 정책의 현황과 전망, 제29차대한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제34집 가을호, 한국사회학회.
- 보건복지부·관계부처합동(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 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박재간 외 편저(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사.
- 박재규(2004).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라북도.
- 변재관(2001). “21세기 노인보기정책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 보건복지부(2004a).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_____ (2004b).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 _____ (2004c). 「2004년도 일자리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참여복지기획단(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서 윤(1992). “노인 욕구와 사회복지발전방향”, 제3회 『전북사회복지대회 자료집』,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 서진교(200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망, 사회적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서현미(2001).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모형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재은(2000).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_____ (2002). “노인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1호.
- 석재은 외(2000). 『노인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2001). ‘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1호.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3).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 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적용, 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 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희자·전보경(2003).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3(2), 경북대학교.
- 원영희(1996).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8권.
- _____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4권 1호, 한국노년학회.
- 원형중(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한국노년학회.
- 유영주·김순기(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재가노인을 대상

- 으로”, 『노인복지연구』, 2000년 봄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가영·박태진(2000).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1(5), 한국가정의학회.
- 이가옥 외(1995).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미(2002).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정(1994). “노년기의 삶의 사건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23, 한국사회복지학회.
- 장인협·최성재(2002). 『노인복지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 장하진·박영란(2002). 「고령화 시대의 여성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주최.
- 전북발전연구원(2005). 『전라북도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예측 및 중기시설 수급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한국노년학회.
- _____ (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62호.
- _____ (2002a).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68호.
- _____ (2002b).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68호.
- _____ (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3).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한국가족복지학회.
- 조경옥(2004a). “노인교육과 사회관계, 생활만족에 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23, 한국노인복지학회.
- _____ (2004b). 『전북지역 여성노인의 여가실태 및 개선방안』,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진기남·조성남·윤경아(1995).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한국노년학회.
- 최은정(2000).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사회와 문화』, 제11집, 고려대학교.
- 최정신(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한국노년학회.
-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한국노년학회.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한국노년학회.
- 황미영·이정숙(1998).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2, 한국가족복지학회.
- Berkman, L. F.& Glass,T(2003). 『사회통합, 사회네트워크, 사회적 지지와 건강』, 신영전·김명희 외(역), 한울.

<통계자료>

- 통계청(2002). 「장래인구 추계 2001」.
- _____ (1998, 2002). 「사회통계조사」.
- _____ (200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부 록

- 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 2. 설문조사 통계표

1.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현황(2005년 12월 현재)

<부표-1>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기준표

시설종류	구 분	시설의 용도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게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게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들에게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45일-3개월)입소시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3.

<부표-2> 전라북도 주거복지시설

시설 종류	구분	시군	시설명	주 소	정원	전화번호
주거 복지 시설 (12)	무료노인 양로시설 (8개소)	전주	신성양로원	완산 삼천동2가 224	50	222-6007
		군산	성모양로원	서수면 축동리 310	50	453-8400
		익산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	신용동 237-1	130	855-6021
		익산	아가페정양원	황등면 울촌리 185	50	856-4671
		익산	신광의 집	덕기동 731-1	50	834-2001
		김제	애린양로원	용지면 반교리 28	60	542-9351
		완주	성요셉동산양로원	소양면 해월리 157-3	80	243-1440
		순창	아름다운 이야기가있는 집 (아이집)	팔덕면 월곡리 618	10	652-6520
	실비노인 양로시설 (2개소)	전주	금산사회강원	완산 용복동 509	33	222-7434
	부안	배매골사랑방	주산면 백석리 579-7	9	582-5911	
	유료양로	완주	서린은빛마을	구이면 광곡리 680-1	9	221-8797
	유료노인 복지주택	김제	노인복지타운	하동 404-20	150 세대	545-0343

<부표-3> 전라북도 의료복지시설

시설종류	구분	시군	시설명	주소	정원	전화번호
의료 복지 시설 (35)	무료노인 양로시설 (13개소)	전주	전주요양원	덕진 송천동 1가 24	86	252-2539
		전주	소망요양원	덕진 팔복동1가 34	50	212-7622
		군산	행복한집	소룡동 1349-9	56	462-7214
		군산	정다운요양원	개정동 448	50	452-9747
		익산	원광요양원	신용동 235-1	80	854-0383
		정읍	정읍원광노인요양원	덕천면 도계리 314-5	70	536-7720
		남원	남원소망의 문	이백면 남계리 343-8	70	635-1004
		남원	광덕원	대강면 생암리 257-6	50	631-2501
		김제	성암복지원	입석동 420-1	50	544-1005
		완주	에은요양원	상관면 신리 140-15	50	351-8028
		장수	장수수양원	장수읍 동촌리 14	50	351-8028
		임실	원광수양원	관촌면 방현리 35	50	643-6688
		임실	사랑요양원	삼계면 오지리 55	50	642-9191
	순창	옥천요양원	순창읍 순화리 538	40	653-2553	
	고창	원광고창효도의집	고수면 봉산리 53-42	50	563-9401	
	무료노인 전문요양 (10개소)	전주	성예전문요양원	완산 삼천동3가 774-17	56	229-9393
		전주	전주은혜마을효경원	완산 삼천동 2가 740	70	229-5100
		군산	보은의 집	서수면 마룡리 293	78	451-8778
		익산	사은의 집	신용동 775-1	50	855-6067
		익산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황등면 울촌리 232-36	60	856-1038
		남원	효성의 집	대산면 신계리 431-6	55	625-7588
		남원	경 애 원	인월면 인월리 72-2	68	636-0036
		김제	김제시노인전문요양원	하동 404-17	72	540-3577
		완주	인산노인사랑건강센터	소양면 해월리 496-41	99	243-3565
	고창	고창원광보은의집	고수면 봉산리 224-7	50	564-8804	
	실버노인요 양시설 (5개소)	전주	성예요양원	완산 삼천동3가 774-15	79	221-1311
		전주	전주원심원	덕진 송천동1가 24	50	271-4808
		전주	화원실비요양원	완산 평화동2가 842-2	30	221-3697
		전주	참사랑노인요양원	완산중화산동2가 447-8	10	220-3542
		익산	원광상록원	신용동 320-5	50	857-6440
	유료노인 요양시설 (4개소)	군산	베데스타요양원	서수면 마룡리 329-3	9	453-9023
		군산	해피실버홈	성산면 도암리 606번지	9	453-3591
		군산	군산동부노인요양원 사랑마을	나포면 서포리 513번지	9	453-9902
		군산	대광노인요양원	서흥남동 824-23번지	9	461-6679
	유료노인 전문요양 시설	군산	봉정요양원	개정동 413-10(舊개정병원)	113	450-3888

<부표-4>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No.	시 설 명	이용 정원	종사 자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시설 설치일	운영주체
소 계	51개소	4,419	205				
1	남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20	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57-	224-6845 (224-6845)	04.03.19	늘충만교회
2	덕진가정 봉사원센터	80	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29-2	246-8279 (246-8179)	'00.06.27	사회)나눔 복지재단
3	동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2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572-23	212-5677 (212-5677)	'03.02.05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4	살림가정봉사원 센터	84	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416	224-8082 (224-5491)	99.08.03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5	성애가정 봉사원센터	80	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74-15	221-1312 (225-6598)	95.06.19	사회)신명복지
6	안디옥가정 봉사원센터	81		전주시 덕진구 금암 2동 1595-1	274-7211 (253-4198)	'02.04.18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7	엠마오가정 봉사원센터	84	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149-1	231-5333 (232-0303)	99.04.29	사단) 한국노인의 전화전복지회
8	여명가정 봉사원센터	80	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223-5673 (224-6896)	'99.09.01	사단)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9	온고을가정 봉사원센터	78	4	전주시 덕진구 인후 2동 251-1	275-1335 (274-8080)	'02.11.07	개인(양혜남)
10	전주가정 봉사원센터	80	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557-1	246-1366 (246-9289)	98.03.14	공공) 대한가족 계획협회 전복지회
11	전주중부 가정봉사원센터	80	4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397	286-0057 (286-1036)	'01.04.11	사회)전주 중부복지재단
12	전주중앙가정 봉사원파견센터	98	3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29-3	283-1330 (283-1330)	'03.05.04	사회)중앙 복지원
13	노인사랑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739-6	226-9723 (227-1231)	'04.09.17	사단)노인사랑복지회
14	효경가정봉사원파견 센터	80	16	전주시 완산구 삼천1가 642-5	227-1360 (227-1359)	04.07. 29	사회)효경 복지재단
15	군산노인가정 봉사원파견센터	80	4	군산시 중앙로 2가 140-8	445-7542 (442-4229)	01.04.02	사회)삼동회 대표 서금성
16	군산재가복지 봉사원파견센터	80	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99-7	451-8023 (451-2975)	03.01.09	사단) 한국노년 자원봉사회 군산시지회
17	동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31	453-9902 (453-1085)	04.01.02	개인(이영남)
18	보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293	451-8778 (451-8775)	04.03.16	사회)중도원

19	함께하는가정 봉사원파견센터	80	4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332	453-0884 (453-4882)	03.03.27	사회)함께하는 공동체
20	부송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5	익산시 부송동 1069번지	831-0250 (833-2959)	02.05.23	사회)삼동회
21	북익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3	4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510-2	856-4354 (852-2336)	02.10.16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22	신광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익산시 창인동 1가165	843-1230 (843-8256)	99.03.11	사회)신광 복지재단
23	왕궁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익산시 왕궁면 홍암리 91-20	832-5586 (832-7440)	02.07.10	사회) 삼동회
24	원광효도마을 가정봉사원파견센터	80	4	익산시 신용동 237-1	855-6044 (855-6076)	96.03.01	사회)원광 효도마을
25	익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00	3	익산시 남중동 1가 97-19	843-1370 (843-1480)	02.07.09	개인(최광현)
26	익산새소망가정봉사 원파견센터	80	4	익산시 금강동 1008-13	852-1794 ()	04.11.01	사회)임마누엘복지재 단
27	남원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3	남원시 동충동 199-19	631-0133 (631-0133)	03.03.10	사회)사회 복지 협의회
28	김제가정봉사원 파견센터	90	4	김제시 요촌동 366-13	547-9006 (544-9003)	01.11.09	재단) 대한 성공회 유지재단
29	성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김제시 임석동 420-1	545-1005 (548-7804)	99.03.11	사회) 성암복지원
30	실로암가정봉사 원파견센터	91	4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536	547-5841 (547-5840)	03.07.07	개인(정영주)
31	구이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542-15	221-3483	04.02.23	사회)구이원
32	명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80-1	243-1208 (242-8355)	03.06.21	사회)명지원
33	봉동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194-10	262-1803 (261-1803)	01.12.20	재단)대한예수교 장로회/봉동 시민교회
34	연강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상관면 신리 221번지	285-3345	04.04.08 (신규)	사회)연강원
35	예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0-7	232-2442 (232-5344)	'00.04.12	사회)예은원
36	완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고산면 울곡리 156	261-4266 (261-4265)	01.04.25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37	용진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72	243-7206 (244-9665)	04.02.23 (신규)	사회)한국장 로교복지재단
38	운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509-1	262-7370 (262-7370)	03.10.22	사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39	원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70	243-8051 (243-8051)	03.10.22	사회)기독교 수양관
40	이서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66-12	222-9163 (221-8326)	01.07.10	재단)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서교회

41	임마누엘가정 봉사원파견센터	80	3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61-24	432-0831	02.07.20	개인(이공순)
42	진안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3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12	433-9939	02.05.18	개인(이문수)
43	무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97	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3-2	322-7123 (322-2090)	'04.05.11	사단)더불어 사는모임
44	장수가정봉사원 파견센터	96	4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76	351-9178 (352-0648)	02.06.19	사회)한국기독교 교장로회총회
45	무진장재가 복지봉사센터	90	5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1-5	353-0911	'03.07.18	사단)더불어 사는모임
46	장수수양원가정 봉사원파견센터	100	4		351-8028	'04.03.06	사회
47	다비다가정 봉사원센터	40	4		351-3141	'04.03.06	개인
48	임실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1	5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72-1	643-0263 (642-0163)	02.05.30	재단)인존 장학복지재단
49	순창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53-1	653-2604 (653-1316)	03.04.12	사회)한기장 초록의집
50	순창사회복지 협의회 호스피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00	4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489-25	650-1818 (652-0308)	04.05.21	순창군사회 복지협의회
51	부안가정봉사원 파견센터	80	4	부안읍 봉덕리 631-6	581-1281 (581-0315)	'05.01.14	부안교회 (개인 : 김남복)

<부표-5>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실비주간보호시설

No.	시 설 명	이용 정원	종사 지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시설 설치일	운영주체
소 계	5개소	88	27				
1	안골 실비 주간보호센터	20	7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764-1	241-6435 (245-8684)	03.03.31	사회) 중부 복지재단
2	인보실비주간보호센터	25	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61-35	284-0295 (284-0294)	'04.09.15	사회) 천주교인보회
3	전주화원실비 주간보호센터	20	7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42-2	221-3696 (221-9188)	04.06.19	회원침례회
4	구세군월성 실비 주간센터	15	2	익산시 월성동 526-1	834-0693 (834-6093)	03.03.26	사회)구세군 복지재단
5	금당사 실비주간보호센터	8	4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41	432-0108	03.08.21	사단)대한 불교 조계종

<부표-6>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간보호시설

No.	시 설 명	이용 정원	종사 자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시설 설치일	운영주체
소계	14개소	224	80				
1	서원주간보호센터	20	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1-1	227-7483 (227-7484)	'02.12.20	사회)금산사 복지원
2	인보주간보호센터	30	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361-35	284-0295 (284-0294)	98.10.31	사회)천주교 인보회
3	가나안주간보호센터	20	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37-1	222-0005 (222-0006)	04.11.04	사회)가나안 복지재단
4	살림주간보호센터	15	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416	224-8082 (224-5491)	04.09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5	군산 주간보호센터	26	6	군산시 중앙로2가 140-8	445-7542 (442-4229)	01.04.02	사회)삼동회
6	나운주간보호센터	15	8	군산시 나운2동 45 주공아파트 내	462-7261 (465-7261)	04.05.21	사회) 한기장 복지재단
7	성모노인주간센터	20	7	익산시 영등동268-9	854-7049 (852-4718)	98.02.19	재단) 예수수도회
8	원광효도마을 주간센터	15	5	익산시 신용동237-1	856-6044 (856-0458)	99.07.24	사회)원광 효도마을
9	살림 노인주간 보호센터	10	5	남원시 동충동199-19	632-5256 (632-5256)	03.01.10	사회)한기장 복지재단
10	김제 주간보호센터	5	2	김제시 하동 404-17	540-3951 (542-1275)	02.01.03	김제시
11	무주 나누미 주간보호센터	9	4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18-5	322-7123	04.05.11	사단)더불어 사는모임
12	무진장재가 복지봉사센터	9	5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51-5	353-0911	03.07.18	사단)더불어 사는모임
13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순창주간보호센터	20	7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55	652-9991 (652-9991)	04.04.22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14	사랑의 동지 주간보호센터	10	5	순창읍 남계리 877-4	653-9191	'04.07.19	

<부표-7>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 단기보호시설

No.	시 설 명	이용 정원	종사 자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시설 설치일	운영주체
소계	2개소	20	6				
1	김제 단기보호센터	15	2	김제시 하동 404-17	540-3951 (542-1275)	02.05.13	김제시
2	원광고창효도의집	5	4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53-42	563-9401 (561-4568)	99.10.01	사회) 한울안

<부표-8> 전라북도 경로당 현황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시·군	경로당수	회원수
계	5,174개소	160,753명
전주시	477	18,369
군산시	351	12,910
익산시	480	18,240
정읍시	550	16,113
남원시	444	14,000
김제시	490	15,910
완주군	360	12,034
진안군	253	6,368
무주군	220	5,542
장수군	258	5,730
임실군	291	7,960
순창군	301	6,800
고창군	389	11,681
부안군	310	9,096

2. 설문조사 통계표

<부표-9> 질병치료의 힘든점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병원에 가기 힘들어(영진이 필요)	1.3	1.0	1.6	.2	2.7	1.4	1.2	3.2	.5
진료비나 약값 부담	35.9	32.8	38.4	35.2	36.9	32.4	40.3	33.7	36.9
병원에 갈 때 동행자가 필요	4.8	3.0	6.2	3.7	6.2	5.1	4.4	10.3	2.3
간호/수발해 줄 사람이 없다	2.2	1.0	3.1	1.5	3.0	1.8	2.7	5.3	.8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5.1	5.2	5.0	6.0	4.0	5.5	4.6	3.5	5.8
교통불편	14.7	14.1	15.1	11.9	18.2	12.8	17.0	22.7	11.1
특별한 어려움 없다	30.1	35.1	26.2	35.2	23.4	33.4	26.0	16.0	36.3
아무런 치료도 하지않는다	2.7	4.0	1.7	2.7	2.7	3.3	1.9	2.1	3.0
기타	3.3	4.0	2.7	3.7	2.7	4.3	1.9	3.2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21)	(405)	(516)	(520)	(401)	(509)	(412)	(282)	(639)
		23.420**		35.644***		17.985*		103.339***	

주) ***p<.001, **p<.01, *p<.05

<부표-10>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실시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예	52.8	57.0	49.2	58.2	45.5	53.9	51.3	45.9	55.6
아니오	47.2	43.0	50.8	41.8	54.5	46.1	48.7	54.1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5)	(460)	(535)	(569)	(426)	(549)	(446)	(290)	(705)
		6.034*		15.597***		.653		7.822**	

주) ***p<.001, **p<.01, *p<.05

<부표-11> (운동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운동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걷기	76.8	68.7	87.3	75.7	78.9	80.9	68.9	85.6	74.5
등산	7.9	12.1	2.4	9.5	4.8	7.8	8.1	6.2	8.3
체조	1.3	1.5	1.0	1.6	.6	.0	3.7	.0	1.6
게이트볼	5.3	7.5	2.4	4.6	6.6	4.5	6.8	1.0	6.4
배드민턴	.2	.4	.0	.3	.0	.3	.0	.0	.3
수영	1.5	1.1	2.0	1.6	1.2	.3	3.7	.0	1.9
헬스	1.1	1.1	1.0	1.3	.6	.6	1.9	.0	1.3
요가	2.1	1.5	2.9	2.6	1.2	2.3	1.9	3.1	1.9
기타	3.8	6.0	1.0	2.6	6.0	3.2	5.0	4.1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70)	(265)	(205)	(304)	(166)	(309)	(161)	(97)	(373)
		34.936***		10.379		25.688***		11.392	

주) ***p<.001, **p<.01, *p<.05

<부표-12> 희망하는 여가활동 유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특별히 없다	88.9	85.9	91.5	86.5	92.2	87.6	90.5	94.7	86.5
있다	11.1	14.1	8.5	13.5	7.8	12.4	9.5	5.3	1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2)	(454)	(528)	(561)	(421)	(541)	(414)	(284)	(698)
		7.686**		7.943**		2.015		13.706***	

주) ***p<.001, **p<.01

<부표-13>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모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노인정(경로당)	39.4	38.0	40.7	34.8	45.8	37.6	41.7	34.4	41.5
복지관/노인교실 (대학)	3.5	3.7	3.3	4.5	2.2	3.7	3.2	2.1	4.0
자원봉사활동/기관 모임	1.1	1.8	.6	1.6	.5	.9	1.4	.4	1.4
취미활동 모임	1.5	2.9	.4	2.1	.7	1.8	1.2	.0	2.2
종교단체 모임	7.2	5.9	8.3	8.9	4.8	8.9	5.1	9.2	6.4
친구 모임(동창회 등)	11.5	16.5	7.1	16.6	4.6	11.1	12.0	3.2	14.9
시민단체/사회단체	.6	1.3	.0	.9	.2	.4	.9	.4	.7
특별한 모임 없음	32.2	27.5	36.4	27.5	38.7	32.3	32.2	45.7	26.7
기타	2.9	2.4	3.3	3.2	2.4	3.3	2.3	4.6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4)	(455)	(519)	(561)	(413)	(542)	(432)	(282)	(692)
		46.978***		63.267***		9.321		66.043***	

주) ***p<.001

<부표-14>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현재 하고 있다	4.6	5.7	3.8	6.2	2.6	5.3	3.8	3.1	5.3
과거에 한 적 있다	5.9	7.2	4.7	6.7	4.7	6.7	4.8	6.2	5.7
한 적 없다	89.5	87.2	91.5	87.1	92.7	88.0	91.4	90.7	8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1)	(460)	(531)	(565)	(426)	(549)	(442)	(290)	(701)
		4.970		90.404**		3.063		2.242	

주) **p<.01

<부표-15> 소득보장·취업관련사업 인지도

단위:명, %

	전체 (N=997)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N=461)	여성 (N=536)	전기 (N=570)	후기 (N=427)	시부 (N=550)	군부 (N=447)	저소득층 (N=291)	일반 (N=706)
경로연금	53.2	67.7	37.5	41.4	45.4	67.7	34.9	67.7	33.0
			16.957***		17.255***		37.605***		101.579***
교통수당	94.1	94.8	93.5	94.9	93.0	92.2	96.4	94.2	94.1
			1.639		1.970		14.746***		1.274
노인공동작업장	9.2	13.0	6.0	9.8	8.4	9.5	8.9	7.6	9.9
			32.264***		22.482***		3.382*		6.710*
취업알선센터	5.9	10.0	2.4	7.5	3.7	6.2	5.6	2.7	7.2
			55.127***		24.672***		4.627		11.624**
지역시니어클럽	2.7	3.7	1.9	3.9	1.2	4.2	.9	2.4	2.8
			11.876**		7.843*		12.985**		.832
기타일자리사업	8.2	11.7	5.2	10.0	5.9	11.3	4.5	4.8	9.6
			37.856***		14.530***		20.395***		13.341***

“잘알고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와 비율만을 표시

주) ***p<.001, **p<.01, *p<.05

<부표-16>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인지도

단위:명, %

	전체 (N=997)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N=461)	여성 (N=536)	전기 (N=570)	후기 (N=427)	시부 (N=550)	군부 (N=447)	저소득층 (N=291)	일반 (N=706)
노인전문병원	16.6	20.2	13.6	18.4	14.3	21.1	11.2	12.0	18.6
		20.202***		37.111***		18.721***		20.695***	
노인전문요양시설	18.3	23.6	13.6	21.6	13.8	23.3	12.1	13.4	20.3
		27.974***		40.497***		22.538***		12.310**	
무료요양시설	25.0	31.2	19.6	26.3	23.2	30.5	18.1	18.6	27.6
		20.974***		13.469***		26.012***		9.962**	
실비요양시설	16.6	21.7	12.3	19.3	13.1	21.8	10.3	10.7	19.1
		19.065***		22.819***		26.577***		24.489***	
단기보호시설	4.8	6.7	3.2	7.0	1.9	6.5	2.7	3.4	5.4
		22.784***		18.031***		26.410***		1.971	
주간보호시설	4.2	6.5	2.2	6.1	1.6	7.3	.4	2.7	4.8
		20.712***		17.334***		46.110***		2.292	
치매상담센터	16.5	21.0	12.7	20.9	10.8	18.2	14.5	14.4	17.4
		32.309***		40.802***		6.840*		3.709	
가사지원서비스	19.2	19.7	18.7	19.3	19.0	22.7	14.8	25.8	16.4
		.416		8.065*		16.961***		11.740**	
경로식당, 무료급식	38.0	43.4	33.4	37.9	38.2	46.5	27.5	44.3	35.4
		16.899***		27.480***		39.529***		10.356**	
거동불편노 인식사배달	26.9	28.0	25.9	26.5	27.4	33.6	18.6	35.7	23.2
		2.667		6.016*		28.885***		21.774***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21.4	25.4	17.9	23.7	18.3	22.0	20.6	26.5	19.3
		8.728*		9.357**		35.144***		9.650**	

“잘알고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와 비율만을 표시

주) ***p<.001, **p<.05, *p<.01

<부표-17> 여가서비스 인지도

단위: %

	전체 (N=997)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N=461)	여성 (N=536)	전기 (N=570)	후기 (N=427)	시부 (N=550)	군부 (N=447)	저소득층 (N=291)	일반 (N=706)
노인대학,교실	36.9	43.8	31.0	40.9	31.6	45.1	26.8	29.2	40.1
		23.384***		34.479***		37.838***		147.762***	
노인복지회관	45.1	52.1	39.2	51.1	37.2	50.9	38.0	37.8	48.2
		21.576***		29.996***		16.754***		9.706**	
경로당	93.5	94.4	92.7	94.2	92.5	91.1	96.4	92.1	94.1
		1.501		2.743		12.549**		1.469	

“잘알고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와 비율만을 표시
 주) ***p<.001, **p<.01

<부표-18> 경로당 출입 않는 이유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시간이 없어서	31.6	30.2	33.1	37.6	20.4	26.4	43.8	14.0	42.1
시설이 좋지않아서	4.3	4.7	3.9	4.8	3.5	4.0	5.2	4.1	4.5
거리가 멀어서	3.1	1.2	5.2	3.8	1.8	2.6	4.2	1.7	4.0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0.5	12.4	8.4	9.0	13.3	12.8	5.2	10.7	10.4
가입비/회비가 부담스러워	7.1	5.3	9.1	4.8	11.5	8.4	4.2	9.9	5.4
노인들과의 관계가 좋지않아서	2.5	3.0	1.9	1.4	4.4	2.6	2.1	5.0	1.0
몸이 불편해서	25.1	23.1	27.3	15.2	43.4	28.2	17.7	47.1	11.9
노인정에 또래 친구가 없어서	5.0	5.9	3.9	6.7	1.8	5.7	3.1	3.3	5.9
이용하기에 연령이 젊다고 생각해서	10.8	14.2	7.1	16.7	.0	9.3	14.6	4.1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23)	(169)	(154)	(210)	(113)	(227)	(96)	(121)	(202)
		12.625		62.338***		18.234*		73.621***	

주) ***p<.001, *p<.05

<부표-19> 경로당 이용 만족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불만족	10.2	8.5	11.5	12.2	7.8	12.4	8.3	9.6	10.4
보통	25.6	28.8	23.2	24.5	27.0	19.3	31.1	31.4	23.7
만족	64.2	62.7	65.3	63.3	65.2	68.3	60.7	59.0	6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28)	(271)	(357)	(335)	(293)	(290)	(338)	(156)	(472)
		3.352		3.419		12.439**		3.640	

주)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 ~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척도를 3점 척도로 재구성함.

주) **p<.01

<부표-20>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없다	93.7	91.5	95.3	92.3	95.2	94.8	92.6	95.5	93.0
있다	6.3	8.5	4.7	7.7	4.8	5.2	7.4	4.5	7.0
계	630	271	359	336	294	291	339	157	473
(명)	(630)	(271)	(359)	(336)	(294)	(291)	(339)	(157)	(473)
		3.656		2.336		1.298		1.257	

<부표-21>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정기적 이용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정기적으로 이용	7.7	8.5	7.1	6.1	9.8	10.4	4.5	12.7	5.7
비정기적으로 가끔 이용	8.8	8.2	9.3	7.7	10.3	8.4	9.4	13.4	6.9
이용하지 않는다	83.5	83.3	83.6	86.1	79.9	81.3	86.1	73.9	8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936		7.320*		12.069**		27.512***	

주) ***p<.001, **p<.01, *p<.0.1

<부표-22> 경로식당 서비스 대상집단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정부에서 지정한 가난한 노인만 이용해야 한다	24.5	23.7	25.2	26.8	21.5	22.7	26.7	19.0	26.8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	24.9	24.8	25.0	25.6	24.1	25.5	24.3	25.2	24.8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43.0	45.1	41.2	41. %	45.5	40.5	46.1	47.2	41.2
기타	7.6	6.3	8.6	6.5	9.0	11.4	2.9	8.6	7.1
계	991	459	532	567	424	546	445	290	701
(명)	(991)	(459)	(532)	(567)	(424)	(546)	(445)	(290)	(701)
		2.863		6.059		26.590***		7.496	

주) ***p<.001

<부표-23> 경로식당 이용요금 유료화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찬성	33.5	42.3	25.9	36.3	29.7	35.6	30.9	28.2	35.7
반대	66.5	57.7	74.1	63.7	70.3	64.4	69.1	71.8	6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29.800***		4.735*		2.512		5.224*	

주) ***p<.001, *p<.05

<부표-24>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정서적 유대 (관심과 사랑)	25.3	30.0	21.2	27.1	22.8	25.4	25.1	18.6	28.0
비슷한 가치관	2.5	1.5	3.4	3.0	1.9	2.7	2.3	2.8	2.4
근거리 거주	11.4	9.8	12.8	11.3	11.5	8.2	15.4	11.2	11.5
빈번한 연락 및 방문	33.5	35.7	31.6	33.2	33.9	32.9	34.2	34.0	33.2
빈번한 경제적 상호지원	21.9	20.1	23.5	19.9	24.7	24.1	19.2	26.0	20.3
자녀돌봐주기, 쇼핑동행	1.5	.9	2.1	1.6	1.4	2.0	.9	1.1	1.7
기타	3.8	2.0	5.5	3.9	3.8	4.6	2.9	6.3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89)	(457)	(532)	(564)	(425)	(547)	(442)	(285)	(704)
		25.170***		5.711		17.645**		17.145**	

주) ***p<.001, **p<.01

<부표-25> 동거부양에 대한 태도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그렇다	33.7	32.0	35.1	26.7	43.1	30.7	37.4	36.2	32.7
아니다	66.3	68.0	64.9	73.3	56.9	69.3	62.6	63.8	6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4)	(459)	(535)	(569)	(425)	(550)	(444)	(290)	(704)
		1.072		29.090***		4.877*		1.150	

주) ***p<.001, *p<.05

<부표-26> 노후준비 여부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예	22.0	30.4	14.7	28.2	13.6	18.9	25.7	4.1	29.3
아니오	78.0	69.6	85.3	71.8	86.4	81.1	74.3	95.9	7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35.323***		30.619***		6.687**		76.321***	

주) ***p<.001, **p<.01

<부표-27> 노인주거전용주택/실버타운입주의사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들어갈 생각이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68.9	68.8	69.0	65.8	73.1	64.4	74.5	62.5	71.5
들어가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23.7	20.6	26.3	23.9	23.4	26.4	20.4	36.1	18.6
들어갈 생각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	7.4	10.6	4.7	10.4	3.5	9.3	5.1	1.4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7)	(461)	(536)	(570)	(427)	(550)	(447)	(291)	(706)
		15.283***		17.276***		13.091***		49.408	

주) ***p<.001

<부표-28> (입주의사 있는 경우) 적정 지불 비용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
40만원 이하	43.5	41.3	45.5	46.1	39.1	48.7	34.5	38.5	46.2
40-60만원	10.1	14.0	6.7	10.4	9.6	12.3	6.2	2.8	14.1
60-80만원	1.3	1.4	1.2	1.6	.9	1.5	.9	.9	1.5
80-100만원	1.9	3.5	.6	2.6	.9	3.1	.0	.9	2.5
기타	43.2	39.9	46.1	39.4	49.6	34.4	58.4	56.9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8)	(143)	(165)	(193)	(115)	(195)	(113)	(109)	(199)
		8.376		3.941		19.268***		18.363***	

주) ***p<.001

<부표-29> (입주의사 있는 경우) 적정 거주 규모

단위: %

	전체	성별		연령구분		지역구분		계층구분	
		남성	여성	전기	후기	시부	군부	저소득층	일반노인
13-17평	54.3	56.7	52.1	57.4	49.1	62.4	40.0	51.4	55.8
17-22평	11.2	13.5	9.2	12.6	8.8	13.4	7.3	9.3	12.2
23-25평	3.9	5.0	3.1	5.3	1.8	6.2	.0	.0	6.1
25-30평	1.0	.0	1.8	1.1	.9	1.0	.9	.0	1.5
기타	29.6	24.8	33.7	23.7	39.5	17.0	51.8	39.3	2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4)	(141)	(163)	(190)	(114)	(194)	(110)	(107)	(197)
		6.844		10.086*		44.373***		14.088**	

주) ***p<.001, **p<.01, *p<.05

전발연 2005-R-15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